



12

1990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0. 12호

(루계 518)



◆◆◆◆◆◆◆◆◆◆

## 차 례

◆◆◆◆◆◆◆◆◆◆

<b>김일성</b> 동지께 경의를 .....	4
세월이 아꼈던 글밭 .....	4
비행장에서 .....	5
<b>김정일</b> 동지께 드리는 시 .....	6
빛나는 우리 세월 .....	7
못잊을 가을날이 나에게 있어 .....	8
오산덕으로 오르는 마음 (외 1 편) .....	8
어데서나 안고사는 집 .....	9
조선의 영원한 해발 김정숙 .....	10
그날처럼 살자 .....	10
임무 .....	11
통일거리 전투장에서 .....	18
우리의 명절 .....	19
우리의 통일거리 .....	20
그 마음이다 .....	20
평범한 나날에 .....	21
지는 해야 아쉬워말아 .....	25

해지는 저물녘에 .....	25
처녀의 고백 .....	26
이 기쁨, 이 웃음을 위해 .....	37
벗에 대한 이야기 .....	38
앉아서 소리없이 읽지 못할 시를 두고 .....	49
전망과 현실 .....	50
인간학의 높은 경지를 특색있게 개척한 빛나는 화폭 .....	52
금은화피는 땅 .....	57
벼이삭에 깃든 이야기 .....	69
아들의 키 .....	70
이삭은 말한다 .....	71
남조선 진보적시문학에서의 조국통일지향의 예술적구현 .....	72
아들딸들이 돌아온다 .....	78
피지 못한 꽃 .....	79
잘 가라, 통일의 열망으로 들끓던 해여! .....	79

# 김일성동지께 경의를

아부 드라오레

경의를 드립니다  
평화위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당신께선 한평생을  
인류의 안녕과  
평화위업에 바치시는분

인류의 평화위해  
바쳐오신 로고 많고도 많으셨으니  
영광, 영광을 드립니다  
평화위업의 위대한 수령이시여!

물러가라 매국노들아  
제소굴로 돌아가라  
피에 주린 승냥이 양키야  
남녘땅엔 네놈들 발볼일곳 없거니  
각성된 인민들의 원한  
분렬을 반대하는 목소리 높아만가라

하여 조선은 하나로

평화적으로 통일되리  
경의를 드립니다  
창조의 영재 **김일성**동지이시여!  
당신의 숭고한 주체사상 있기에  
당신의 현명한 령도 있기에  
위대한 조선 당당히 서있습니다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들의 앞장에

오 **김일성**동지이시여!  
리론과 실천 밀접히 결합하시여  
쌓으신 업적 그 얼마였습니까  
당신의 학설 구현하여 솟아났습니다  
지상락원 조선이  
세계의 귀감이!

(필자는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성원)

# 세월이 아꼈던 글밭

황명성

10년이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장장 반세기가 가깝도록  
누구도 모르고 지내던 글밭  
  
백두밀영의 푸른 밀림이라  
두만강 물소리 높은 온성땅에도  
평양성이 지척인 어은동 소나무숲에도  
투사들이 적어놓은 혁명의 글밭

눈비에 젖을가보아  
광풍에 색이 바랄가보아  
세월이 고이고이 품고있었던가  
세월이 두고두고 지 쳐왔던가

불길속에서 찾은 진리 너무 소중한  
폭풍속에서 얻은 신념 너무 소중한

태고연한 자연의 푸른 숲이  
오랜 세월 감싸고있었더니  
  
세월아 너의 기다림은  
빛나는 력사의 기다림  
은혜로운 향도의 해빛 강산에 비치여  
영광을 안고 자랑을 안고 이루어졌구나

다시는 잃지 않을 이 땅의 생명처럼  
영원히 놓지 않을 삶의 젖줄기처럼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위업이 있어

광복의 빛발이 비낀 내 조국 어디나  
혁명의 뉘트로 새겨진 영원한 글밭  
세월과 세월을 넘어  
로동당시대에 찬연히 빛나오르는구나

## 비행장에서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이날 평양비행장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실 새 려객기에 대한 시험비행이 있었다.

그런데 려객기가 뜨기 직전에 뜻밖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비행장에 나오시었다.

친애하는 그이를 몸가까이 뵈게 된 시험비행사들은 기쁨에 겨워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도 그럴것이 그들은 민항의 일꾼들을 통하여 시험비행을 하게 된다는것을 사전에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정작 이렇게 나와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때문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비행사들의 기쁨어린 얼굴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비행기의 정비상태며 개인준비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었다.

그러신다음 오늘 시험비행에는 자신께서도 직접 참가하겠으니 준비가 다 되었으면 어서들 비행기에 오르자고 말씀하시었다.

《예?!》

비행사들은 뜻밖의 말씀에 놀랐다.

그들이 미처 만류할 사이도 없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비행기승강대로 먼저 걸음을 옮기시었다.

(아니 시험비행에 참가하시다니?!)

방금전까지만 하여도 자기들의 비행술을 보아주시겠거니만 여겼던 비행사들의 얼굴에는 삽시에 놀라운 빛이질었다.

사실 이날 비행은 말그대로 시험을 위한 비행이었다.

시험비행에는 특별히 훈련된 비행사 이외에 그 누구도 참가하지 못한다는것은 하나의 공인된 상식이였다.

게다가 이날은 날씨까지도 불리하였다. 비를 머금은 매지구름이 드문드문 뜬데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어떤 기류현상이 일어날는지 그 누구도 장담할수 없었다.

비행사들은 일제히 달려가 가슴과 가슴으로 담을 쌓으며 그이의 앞을 막았다. 그리고는 저마다 절절히 간청하였다.

《이 비행기에는 타시지 못합니다.》

《날씨가 나빠 위험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비행사들을 미더운 눈길로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부드럽게 수령님을 모시기 위한 시험비행인데 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어서 오르자고 말씀하시었다.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그이의 숭고한 품모에 그들의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비행사들의 어깨를 가버이 헤치시며 비행기승강대를 한단한단 오르시었다.

더는 어쩔수 없게 된 비행사들은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 그이를 한동안 우러르다가 말없이 뒤를 따랐다.

잠시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비행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하늘로 날아올랐다.

비행사들은 시장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조국의 거창한 모습이 하나의 대화폭으로 시야에 안겨왔다.

평소같으면 약동하는 조국의 모습에 미소를 머금었을 그들의 눈가에 물기가 번쩍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위하여 친히 시험비행에까지 참가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드넓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용맹과 담을 키운 비행사들, 웬만한 일에는 눈물을 보일줄 모르는 그들이건만 이날만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충성심앞에 눈물짓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

이 이야기도 역시 평양비행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몇해전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를 방문하시고 조국으로 돌아오시던 날이었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침 일찌기 비행장에 나오시어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신 비행

기가 도착할 시간을 기다리고제쳤다.

그이께서는 시계도 들여다보시고 하늘도 올려다보시다가 문득 비행장의 한 일군에게 비행기를 어느 방향으로 받는지 물으시었다.

《날아오르는 북쪽방향으로 직접 착륙하게 됩니다.》

일군이 대답을 드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비행기가 날아올 북쪽하늘을 유심히 살펴보시었다.

그런데 그 북쪽하늘에는 구름 몇점이 뚱뚱 떠오르고있었다.

해맑은 날에도 흔히 볼수 있는 보통구름이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위해서는 사소한 징후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이께서는 저 구름이 비행기의 착륙에 지장이 없겠는가고 물으시었다.

그 일군은 별일 없을것이라고 선선히 대답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곧 기상대에 알아보고 대책을 취하라고 이르시었다.

그 일군은 지체없이 기상대에 전화로 알아보았는데 천만뜻밖에도 놀라운 기상통보를 받았다.

북쪽하늘에 비구름이 몰려오고있다는것이였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그 구름의 일부가 벌써 비행장의 북쪽 상공을 덮고있다는것이였다.

잠시후 북쪽하늘엔 어느덧 구름이 시꺼멓게 뒤덮이고 이미 그곳에 와닿은 비행기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내리지 못하고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일군들도, 비행지휘관도 느닷없는 정황앞에서 당황하여 어찌할바를 몰랐다.

이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비행지휘관이 되시여 구름의 밀도, 바람의 속도 등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아직은 구름이 제일 적게 낀 남쪽방향으로 착륙하라고 지령을 내리시었다.

그리하여 이날 비행기는 대단히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맑은 날과 다름없이 무사히 활주로에 내려앉을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을 안전하게 모시게 된 비행기승조원들은 그동안 땅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기쁨김에 당직 비행지휘관을 찾아가 정황처리를 잘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아니요, 내가 아니요.》

당황한 비행지휘관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노라고 손을 내저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의 말소리는 깊은 감동에 젖어있었다.

##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시

느구루비 씨리 아니씨

**김정일** 그이는 찬란히 빛나는 주체의 향도성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영재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기쁨도 어려움도 함께 나누시여라  
인민을 친혈육과 같이 사랑하시며  
인민에게서 힘을 얻으시는 그이  
그이는 로동계급의 영명한 지도자이시여라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혁명적기치 높이 드신

**김정일**동지  
인민들은 그이를 주체위업의 계승자로 우러러  
모시여라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인민들을 더 좋은 미래으로 이끄시거니  
온 세상 인민에게도 한없이 친근하신 그이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하노라

(필자는 콩고사람임)

# 빛나는 우리 세월

김광충

삶의 시작도

아버이수령님의 품에서 시작하시고

삶의 끝도

아버이수령님의 안녕에 두고 가신

우리 어머니

김정숙어머님

너무도 짧았건만

너무도 빛나는 삶이었기에

우러르는 마음

순간을 더듬어도

가슴에 솟아나는 대사하치기 불언덕...

한치 한치

사령부의 안전을 노려

원쑤의 검은 총구가 다가드는

폭풍전 순간을 맞으시고도

혁명의 위기를 자책하시며

떨구지는 눈물 풀잎에 구울 때...

수령님을 받드는 그 길에선

순간에도

충성의 절점에 오르시고도

그 높이에서

또다시 충성의 첫 걸음을 떼시던 어머니

아, 어머니의 군복자락 스치던

승엄한 그 언덕에

가슴 대이고

높뛰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고있더라

한몸바쳐 장군님을 보위하시고도

모자라신 그 마음에

두손을 가리우고 흐느끼시던

어머님의 그 깨끗한 이슬방울에

삶의 자욱자욱을 비쳐보아라

날마다 우리 행복에 취해

웃으며 보낸 순간

잊으며 보낸 순간

너나 없는 우리모두의 한생을 다 모은들

어머님의 그 순간을 더미 따를수 있으랴

그때문에 어머니

영생불멸의 공적을 세우신

그 순간 하나만 해도

어머님은 그리도 빛나는것이며

우리의 가슴은 감사에 목메이는것이나니

어머님의 고결한 그 순간이

어찌 대사하치기에만 스쳤다하랴

수령님을 받들어

수령님 따라

어머님 헤쳐오신 혈전수만리

걸음걸음 자욱자욱이

그런 빛나는 순간으로 이어졌으니

오늘도 래일도

마음속에 모신 우리모두

어머님을 따라

어머님처럼

살아야 알 그 순간

그 삶의 봉우리여서

친위전사의 한모습으로 서시였던

어머님의 그날

어머님의 그 순간은

우리의 날

무궁한 우리 세월로 빛나는것이어라

아버이수령님을 모시는 길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드는 길에

# 못잇을 가을날이 나에게 있어

김정순

가을이구나

완연한 가을이구나

사십여년전 그날도 가을이었지

모란봉 기슭에 들국화 곱게 피어웃고

솔바람 불어불어 가을도 한껏 무르익는

절기중에 좋은 절기였지

들국화꽃이 고와 잠자리 좋아

즐겁게 뛰노는 애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김정숙어머님은 말씀하시었지

해방된 오늘의 조선을 못본채

일찌기 떠나간 동지들이 그림다고

흰눈우에 청춘의 피를 뿌리며

백두산야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어

저애들의 미래는 가을하늘처럼

한없이 맑고 푸를것이라고

들국화되는 가을날에 여기 오르면

그날의 어머님 뵈을듯싶어

해마다 이맘때면 애들의 손잡고

그 몇번 이 모란봉을 올랐던가

그날의 그 미소 못잊어

그날의 그 음성 듣고파

절절한 그리움속에 가을해 바래우고

이 산기슭을 내린적 얼마던가

들국화밭에서 뛰놀면 애들의 앞날이

가을하늘처럼 창창하리라던 그 확신

어떻게 현실로 찬란히 꽃피었는가를

단 한순간만이라도 보낼수 있다면

이다지도 내 마음 쓰리지 않으련만...

어머님의 념원이 활짝 핀 이 락원우에

나와 내 아이들을 올려앉혀주신듯,

눈들어 사방을 둘러보니

산천은 제대로인듯싶으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빛나는 예지로

가을하늘 가득히 솟은 새 건축물들

눈에 부시구나 눈에 부시구나

들국화 곱게 피었던 그 가을날

어머님의 애무속에 뛰놀면 그 애들

이제는 다 장정으로 자라

아들딸 그꼴히 앞세웠구나

아, 산천도 이때 마음 아는듯

그날처럼 하얗게 들국화 곱게 피워

이 산기슭을 한벌 쪽— 깔았구나

그날의 어머님을 못잊어 못잊어

이 산천이 그대로

들국화묵음으로 된듯하구나

# 오산덕으로 오르는 마음 외1편

럼우봉

백살구 꽃잎이 지고진듯

하야니 갈린 솟눈을 밟으며

오산덕으로 오르는

나의 이 마음

그리움에 젖어

한자옥

환희에 넘쳐

또 한자옥

오르고 오를수록

끝없이 받들고 따를



오직 그 한마음

2천만겨레의 소원을 담아

겉겹이 서렸던 암운을 뚫고

민족의 태양이 솟아올랐던

나의 조국

그날의 조국강산에 탄생하신

장군님의 해발

혁명의 어머니

아, 더없이 경사롭던

그날 그 아침을

다시 또다시 마중갈듯

서두르며 오르는 오산덕

영광의 이 언덕이여

높지 않은 이 언덕에 오르며

가사

마음속엔 안겨오누나

항일의 불길 만리

불멸의 자욱 새기시던

도천리와 대사하

못잊을 저 백두밀영이...

정녕 여기서였구나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모신

김정숙어머님 충성을 따라

수없이 자라고 자란

전사의 의리가 이어진것이

내 진정 내려서지 않으리

몸은 비록 내려선대도

불덩어리 이 마음만은

충성의 높은 산마루

의리의 이 절정에서

## 어데서나 안고사는 집

소백수의 물소리 마중나오고

푸르른 가지들도 손저어 부르네

그리움이 나래펴 달려가는 집

아 백두밀영 고향집이여

귀틀집 부엌문을 활짝 여시고

어머님 나오시여 반겨주실듯

어데서나 마음속에 안고사는 집

아 백두밀영 고향집이여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우리모두 한품속에 안겨사는 집

대를 이어 효성 다해 빛내어나갈

아 백두밀영 고향집이여

# 조선의 영원한 해발 김정숙

플라비오 에스투아르도 감보아

두볼이 빨강게 얼어도  
먼동이 터오는 이른새벽까지  
어머님께선 지주집 연자방아를 돌려야 했더라  
그이의 나이 겨우 열두살

어머님께 들썩워진  
가난과 굶주림 천대와 고역  
이것은 그이의 의지 튼튼히 다쳐주고  
가슴속 깊은곳에서  
해방투쟁의 불길을  
활활 타번지게 하였어라

어머님께선 15살도 되기전에  
커다란 불행이 닥쳐왔어라  
일제놈들 그이의 어머님 학살하였다니  
어머님께서는 크나큰 슬픔 안고  
맹세다지시였어라  
나의 피와 눈물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그것을 힘과 용기로 바꾸리라  
짓밟힌 조국땅을  
기어이 해방하리

항일투쟁에 떨쳐나선 그이

투쟁으로 이어가던 1935년의 봄날  
오매에도 그리시던  
사령관동지를 만나뵙게 되었더라  
그이를 단 한번이라도 만나뵙자던 소원  
어머님의 평생소원 이루어지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더없는 영광 차례졌어라  
**김일성**동지에 대한 어머님의  
흠모의 정 날을 따라 높아져  
대사하치기전투에선  
육탄이 되어  
그이를 옹위하시였더라

아! 전설같은 이야기여!  
어머님께로 쏠려진 비발치는 탄우도  
그이의 용감성앞에선  
맥추지 못하였거늘  
정녕 김정숙어머님께선  
사령관동지를 어떻게  
보위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귀감이시여라

(필자는 니까라과 시인임)

가사

## 그날처럼 살자

박원식

수령님 안겨주신 믿음속에서  
용기도 신심도 모두 나왔네  
시련의 돌파구를 떠맡겨주신  
그 사랑 대고조의 나라되었네  
아 강선은 부른다 그날처럼 살자  
  
엄혹한 시련의 언덕을 넘어  
말없는 압연기도 영웅되었네  
수령님 바라심을 철로 꽃피워

나라의 허리를 편 천리마고향  
아 강선은 부른다 그날처럼 살자  
  
세월이 흘러서 해가 간다고  
쇠물에 단 가슴 녹이 질소나  
수령님과 당중앙을 강철로 섬겨  
혁명적의리를 빛내가리라  
아 강선은 부른다 그날처럼 살자

## 임무

김성관

락조가 비껴드는지 수림속이 불그레해지기 시작했다. 류춘호는 발부리에 떨어지는 그 빛을 감수하자 한층 걸음을 다그쳤다. 등에는 짐을 졌다.

그는 몸을 구부린채 외삭외삭 물대를 밟으며 삼대서듯한 아름다리 나무들사이를 빠져나갔다. 이마에서는 국수발같은 땀이 물흐르듯했다. 째절한 땀줄기는 입안으로도 거침없이 흘러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타할 경황이 없었다. 어둡기전에 큰바위골 산전막까지 가야 한다. 거기서는 지금 김명부중대장이 먼저 도착하여 기다릴수 있었다.

그가 명부와 헤어진것은 한주일전이었다. 장군님의 작전적구상에 따라 머지 않아 항일대오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새로 들어오게 된다. 입대식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대경사로 성대하게 진행될것이다. 뜻깊은 그날을 위해 춘호네 련대에는 군복천을 해결할 영예로운 과업이 제기되었다. 련대지휘부에서는 명우를 비롯한 여러명의 공작원들을 몇개의 지구에 파견했다.

춘호는 그들보다 며칠간 뒤늦게 임무를 받고 신평지구의 상대두부락으로 나가게 되었다.

《공작이 끝나거든 큰바위골 산전막으로 가오. 거기서 동무네 중대장을 만나게 될거요. 그후 행동은 중대장동무가 결심한대로 하면 되오.》

련대장은 이렇게 지시했다.

공작지에 도착하여 며칠간은 일이 순조롭게 진척되었다. 하지만 도중에 변절자가 생기는 바람에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었다

춘호는 단호히 결심하고 즉시 선손을 썼다. 그놈을 없애버리기는 했지만 그는 배에 부상을 입었다. 큰 부상이 아니어서 문제될것은 없었지만 정황을 수습하고 나머지 물자를 손에 넣자면 시간이 필요했다. 춘호는 여러모로 생각하던 끝에 공작지를 떠났다. 한시바빠 명우를 만나고싶어서였다.

련대를 떠나면 그날아침이었다.

련대장과 막 작별인사를 나누려고 할 때 한대원이 여라문살 되어보이는 사내애를 앞세우고 귀틀막으로 들어왔다.

키는 작고 하사하게 생긴 방랑아행색의 사내였다. 정경이가 깡똥하게 드러난채 무명바지를 입고 우에는 누구의 퇴물인듯 팔굽이 꿰진 검은 학생복을 걸치었는데 입었다기보다 뒤집어쓴 감이 들게 후렁후렁해서 애를 더욱 초라해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어떤 의혹과 호기심을 담고 방안을

쉬임없이 둘러보는 예리하고 총총한 눈만은 애가 께 련리함을 말해주고있었다.

애를 보자 련대장은 대원의 보고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쪽걸상을 밀어젖히며 문가로 마중나갔다. 얻어지듯 큰 몸을 구부려 애를 덥석 품에 안은 그는 무릎을 꿇고앉아 버리며 팔이며 좁은 가슴을 마구 어루만지었다.

《일석이 아니냐?》

그는 부르짖듯 다급히 물었다.

《네.》

련대장은 다시금 사내를 꼭 껴안고 불을 비벼댔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도 현대 이놈이, 어디에 숨어있었기에 그리도 찾기 힘들었느냐? 너때문에 장군님께서 얼마나 애를 태우셨는지 알거나 하느냐?》

일석은 갑자기 련대장의 목을 꼭 그러안으며 쿵쾅쿵쾅 울기 시작했다. 련대장은 기가 막히는지 한동안이나 애를 바라보기만 할뿐 말을 못했다.

《됐다. 이제 그만해라, 눈물을 거두구 어머니 원썩음을 생각을 해야 될게 아니냐.》

련대장이 조용히 달래자 일석은 껍껍 숨을 몰아쉬며 더 서럽게 울었다.

《어서 눈물을 거두라는데... 그래야 장군님께 인사드리러 갈게 아니냐, 네가 자꾸 울면 그이께서 피로워하신단다. 자 어서》

련대장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고나서 측은한 눈매로 일석의 발부리를 내려다보고있었다. 다해진 짙신, 굵히고 터져 피멍이 든 발잔등. 그는 그 짙신을 벗기더니 장작이 그물그물 타고있는 난로속에 집어넣었다.

《이까짓건 태워버리고말자.》

그리고는 벽에 걸린 배낭에서 커다란 군화를 꺼내여 그의 발에 신겨주었다. 어찌나 큰지 신을 신었다기보다 쪽배우에 올라선듯 하였다

《이제 발에 꼭 맞는 신발을 구하자, 의복도 새천으로 지어입구너의 아버지두 곧 돌아올게다. 네가 여기에 와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날개가 돋혀 날아올게다.》

련대장은 그제서야 생각난듯 춘호를 돌아보았다.

《동무네 중대장의 아들이요. 이 애의 어머니는 백리평에서 지하사업을 하고있었는데 뜻밖에 조직이 로출되자 동지들을 구원하다가 그만 늑들에 게 참변당했소. 일석이여 제때에 숨었으니망정이지 하마트면...》

그는 목이 메이는지 인차 말을 잊지 못했다.

《그 사실을 보고받으시자 장군님께서는 명우동무가 놈들에게 아들까지 빼앗길수 있겠다고 가슴 아파하시며 하늘끝을 뒤희서라도 애를 찾아 데려오도록 급히 사람들을 파견하시였댔소.》

춘호에게는 지금도 편대장의 그 말이 귀에 생생했다. 더우기 사내애의 그 터진 발등과 해진 짚신 받은 잠시도 그의 눈앞에서 사라질줄 몰랐다. 어쩌면 그 어린 나이에 어른들도 참아내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굶주림을 이겨낼수 있었단말인가. 장군님의 그 사람의 품이 아니었다라면 그 애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것인가는 너무도 뻔했다. 어서 그 감격적인 소식을 명우에게 전하고싶었다.

이제 그 말을 들으면 명우가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생각만해도 그는 가슴이 두근거려지고 마음이 급하여 가쁜 숨을 헉헉 몰아쉬면서도 다그쳐 걸었다. 허나 몸은 그 급한 마음을 따라가주지 못했다. 걸을수록 발에 돌덩이가 묻어나니기라도 하듯 무거워졌다.

상처가 피곤했다. 게다가 심한 허기마저 느낀 그는 걸음을 멈추고 아름답리 붓나무에 치킨 몸을 기댔다. 그는 저고리주머니에서 건빵 한개를 꺼냈다. 기운을 회복하자면 우선 요기라도 좀 해야 한다. 그는 배낭을 지고 신체로 빵조각을 뜯어 입안에 넣었다. 퍼놓고 앉아서 먹을만한것도 못되었거니와 그랬다가는 피로와 식곤증에 노그라져 인차 일어서지 못할수도 있었다.

춘호는 33년도에 연결현 다진창에서 명우의 도움을 받아 입대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어엿한 구대원으로 성장했지만 그 나날에 그는 한두번만 그러한 경우를 당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대원들에게 짐이 되고 대모의 행군에 지장을 준 일도 없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명우의 말없는 따뜻한 손길이 언제나 그를 고무하고 이끌어주었다.

빵한개를 다 먹자 그는 힘을 내어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밀림이 버성거져더니 앞이 흰한 개활지대가 나타났다. 춘호는 멈춰서서 지형을 살폈다. 백메터 좁 저쪽, 장벽처럼 막아선 수림뒤에 우중충한 바위신이 서있었다. 바위산밑에 그 산전막이 있었다.

춘호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면서도 정작 목적지에 이르고보니 이제까지의 그 바쁘고 서둘러만지면 마음과는 달리 그 어떤 이상한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은근히 찾아들고있음을 깨달았다.

숲우등지를 흔들며 한줄기의 대륙풍이 지나갔다. 와수수 숲이 설레었다.

춘호는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구세먹은 진대 나무밑등을 세번 두드렸다. 호출신호였다.

《딱 딱 딱.》

그 소리가 숲속으로 사라지기도전에 기다리고나 있었던듯 딱따구리가 나무를 쫓는듯한 궁군

울림소리가 마주 울렸다.

《중대장동지가 먼저 도착했구나.》

춘호는 본능적이다싶게 순간적인 환희를 느끼며 서둘러 또한번 나무를 두드렸다. 이번에는 잠간사이를 두었다가 같은 응답신호가 날아왔다.

춘호는 더 이상 무엇을 생각할것도 없이 반가움과 은근한 불안감을 한가슴에 안은채 헤덤비며 숲밖으로 빠져나갔다.

《중대장동지!》

그는 입에 손나팔을 해대고 목청껏 불렀다.

《춘호동무!》

굵은 목소리에 이어 키가 꺾뚝한 명우가 저쪽 맞은편 숲변두리에 불쑥 나타났다.

《나 여기 있소!》

그는 한쪽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이렇게 웨치던지 춘호를 발견했는지 개활지대를 가로질러 곧추 달려왔다.

산전막은 아늑했다. 명우는 그 푹한 성미에도 불구하고 춘호를 마주보며 마치도 오래동안 헤어졌던 동생을 만난것처럼 반가와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는 우선 따뜻한 아래목에 그를 앉히고나서 그가 미처 대답할사이도 없이 이것저것 편이여 물어댔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듯 후닥닥 일어나 부엌으로 뛰어내려갔다. 김이 문문 나는 조밥 한 그릇과 버섯볶음을 들고 다시 방으로 올라온 그는 그것을 춘호앞에 놓으며 다짜고짜 먹으라고 권했다. 춘호는 그만 웅색하여 숟갈을 들지 못했다.

《전 먹었습니다. 중대장동지나 드십시오.》

《내 걱정은 마오, 아무려면 제손으로 밥 지은 사람이 뭐 굶고 앉았겠소.》

명우는 그의 손바루 밥그릇을 끄당겨 놓아주고 숟가락까지 쥐여주었다. 춘호는 아닌게 아니라 구수한 밥냄새를 맡으니 한층 가슴이 쓰리고 허기가 물려들어 건디기가 어려웠다.

《어디에 뜬 나들이라도 왔는가 생각하오? 사양이 무슨 소용이 있소. 어서 들기나 하우.》

그는 거듭 권했다. 춘호는 더 참지 못하고 자식의 응석을 도리어 대견히 여기는 부모앞에서처럼 정신없이 몇숟가락 떠먹었다. 그러다가 불쑥 사업보고부터 했어야 될것이였다는 자각이 들자 숟가락을 놓고 옷대무시를 바로잡았다. 명우는 그의 행동거지를 보고 짐작이 간듯 유순해보이는 눈에 정겨움을 담고 빙그래 웃었다.

《공작보고는 밥을 먹은 다음에 해도 되오. 동무는 우선 먹어야겠소. 얼굴에 다 나타나있는데도 뭐 저녁을 먹었다구? 몇끼나 굶었는지 내가 말해 보라우?》

추궁도 아니요 룡담도 아닌 푹한 말이였으나 춘호는 대뜸 가슴이 몽클해졌다. 하긴 동지들의 그 뜨거움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이 천고의 밀림속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을수도 있었다. 산에

들어온후 그는 혁명의식이 굳건해지기에 앞서 동지들의 그 뜨거움에 먼저 매혹되었었다. 나라를 찾겠다고 정든 고향산천과 사랑하는 부모처자를 버리고 산에 들어와 고생을 락으로 여기며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일신의 안락만을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인간이란말인가.

명우는 춘호가 식사를 끝내고 한숨 돌린 다음에야 입을 열었다.

《그럼 이야기를 좀 들어보지요.》

명우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춘호는 생각을 고쳐했다. 혁명임무수행을 이해 그 무엇도 서슴없이 바칠줄 알아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는 그앞에서 감히 사업보고를 뒤로 미루고 그 이야기부터 꺼낼수 없었던것이다.

그는 이쩔수 없이 공작보고부터 먼저 시작했다. 단숨에 제격 끝낼 생각밑에 그는 그동안 공작지에서 벌여졌던 일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이야기를 전개해나갈수록 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등골에 땀이 흘렀다. 군복천을 조금도 미진됨이 없이 전량 구해가지고 돌아왔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렇게까지 자기 립장이 웅색해지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문제는 그 변절자놈때문이다. 그놈만 아니였다라면 사정은 달라졌을것이였다. 더러운 짐승같은놈! 《음.》

명우는 고개를 추궁하고 묵묵히 듣기만 했다.

춘호한테서 더 말이 없자 그는 머리를 들었다.

《그놈때문에 일이 어려웠겠소.》

《네, 하긴 뭐 딱히 그런건 아니지만.》

춘호는 열길에 떠들거리며 대답했다. 명우는 그러는 춘호를 유심히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춘호동무는 단독공작이 처음도 아니지 않소?》

《그렇습니다.》

《음...좌우간 변절자때문에 욕을 봤겠소.》

춘호는 삼시에 귀뿌리가 화끈해져서 술그머니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감쳐물었다. 단독공작이 처음도 아닌데 변절자놈때문에 중도에 돌아설수 있겠는가하는 비난의 소리로 들렸던것이다. 그는 저으기 기분이 상했지만 변명할 도리가 없어 꺼져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중대장동지! 필요하면 다시 갔다오겠습니다.》

《옳소! 잘 생각했소. 앞으로는 웅당 그래야 하오. 하지만 이번만은 그만둬도 될것 같소.》

명우는 구석쪽을 돌아다보았다. 거기에는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세개의 배낭이 묵직하게 놓여있었다.

《아니? 저걸 혼자서 다 가지고 왔습니까?》

춘호는 눈이 커졌다. 자기는 크지 않은 배낭 하나도 겨우 지고왔는데 하는 말이 목구멍으로 막나왔으나 입밖내 내지는 않았다. 부상을 당한 몸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허나 춘호는 그것부터가 자기자신에 대한 그 어떤 변명같기도 해서 얼굴을 찌프리였다.

《마련해놓은것이야 못가지고 오겠소.》

명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어째선지 그 말은 춘호의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야릇한 불안감만 더해주었다.

《글세 몇백미터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춘호의 그 불만스러움이 짙게 담겨져있었다. 명우는 고개를 기웃하며 춘호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동문 몇백미터라면 어떻게 했겠소?》

《제가 뭐 어린애니까? 그쯤이야 서너번 달려갔다면 되지 않습니까.》

《옳게 말했소. 백리나 이백리라 해도 몇백미터쯤으로 생각하면 되는지요. 마음먹기에 달린거지. 허허...》

하긴 그랬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될수 있다.

허나 말이 쉽지 그게 간단한 일인가. 말할수 없는 간고한 로정을 거쳐 여기까지 와닿았을상싶은 배낭들을 바라보느라니 춘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중대장동진 참!) 하면서도 그는 그 배낭들속에 방금전 명우가 암시한 예비가 있을듯싶기도 해서 은근히 마음을 쓰며 그의 속시원한 이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명우는 그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듯 말했다.

《저속에 그만한 예비는 있을것 같소.》

(됐구나, 이젠련대로 돌아가게 됐어!)

춘호는 순간에 얼굴이 밝아지였다. 그는 안도감에 잠겨 열길에 마음속 비밀을 드러내놓았다.

《이젠 됐습니다. 됐어요 하긴 전 벌써부터 중대장동지가 그럴줄 알았습니다만...》

《응? 동무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그걸 미리 알았다는거요?》

춘호는 그에게 입대후 오늘까지 매사에 자기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던 중대장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어째서인지 명우의 표정이 푹하게 굳어지는것을 보고 입을 다물어 버리였다.

《그러니까 동무는 나를 믿고 거기서 쉬이 돌아설수 있었겠소?》

춘호는 다시금 까닭모를 불안을 느끼며 가슴이 철렁하여 우물쭈물 대답했다.

《그런건 아닙니다.》

부정은 했지만 왜 그런지 그의 마음은 한층 언짢아졌다. 어쩌면 그리도 명우가 자기의 마음속을 뻔히 들여다보고있단말인가. 민망스럽기까지 했다. 《동무가 이번에 제손으로 변절자를 처단한것은 아주 잘한 일이요. 허나 우리는 거기서 웅당한 교훈을 찾아야 하오. 그놈도 투쟁의 길에 들어설땐 제나름의 희망과 각오가 있었을거요, 세상에 변절을 목표로 혁명에 뛰어드는 사람은 있을수

없는거요. 그럼 어째서 변절자가 생기는가?)

광술불이 그물그물 꺼져갔다. 명우는 작은 광술 가치를 하나 쪼개서 그우에 던놓았다.

《그건 혁명적신념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뭐 복잡하게 생각할건 없소. 변절은 결국 자기자신과의 타협으로부터 시작되는거요. 난관앞에 타협을 하지. 난관이란 뭐 꼭 힘든것만인줄 아우? 동요를 일으킬수 있다면 좋은 일도 마음속의 난관으로 될수 있는거요.》

명우는 계속했다. 처음에는 눈에도 잘 뜨이지 않는 사소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합쳐지면 큰 타협이 된다. 한번 두번 크게 하는 타협이 버릇되면 다음에는 그것쯤 타협으로 보이지조차 않게 된다. 그쯤되면 벌써 그는 변절의 문어구에 한 발을 깊숙이 들여놓았다는것을 의미한다.

웁은 말임에는 틀림없었으나 그것은 추호의 비위를 심히 건드려놓았다.

《중대장동진 그럼 뭐 제가—》

분기마저 치밀어 불끈해놓고보니 그 다음 말은 입에 담기조차 두려워서 잊지 못했다. 생사고락을 나누며 한두해를 같이 싸워오는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 추호에 대해 그런 말까지 다 한단말인가. 《허허허》

명우는 소리내어 허겁게 속빈 웃음을 웃었다.

《내 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오. 사실은 추호동무보다 그런 시점에서 내자신을 두고 검토해보는 소리였소. 한 대원의 타협은 그 한사람에게서 끝나겠지만 지휘관의 마음속에 타협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소?》

허나 이미 목이 터진 불길처럼 추호의 입에서는 자기의 그 억울함이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번에 중대장동지를 생각하며 혼자서 웃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 눈물겨운 사연을 제 작은 가슴에 그대로 안고있기가 너무 아참차서 중대장동지들 한시바빠 만나야겠다고 버르면서 말입니다.》

목소리는 절절했다. 거기에는 자기는 중대장을 위해 그렇듯 마음을 쓰는데 그 심정을 그렇게도 몰라주느냐는 은연중의 호소도 깃들어있었다.

명우는 심중해졌다. 그는 추호쪽으로 반쯤 몸을 돌리고 랑미간을 모으며 은근히 들었다.

《추호동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소?》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보니 추호는 이상하게도 코허리가 시큰해져서 얼른 고개를 떨구며 그들의 의면해버렸다. 명우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추호동무! 왜 그러우?》

《중대장동지의 아들말입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됐다는거요?》

성난듯한 목소리였다. 추호는 무엇부터 말을 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을 재촉하는 명우

의 시꺼먼 엄한 눈을 보고서야 서둘러 말했다.

《일석이가 지금 우리 련대에 와있습니다.》

명우는 한층 얼퍼름해졌다.

《뭐라구? 우리 일석이가? ...》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말입니다.》

추호는 마치도 명우가 그것을 부인이라도 하듯 역정을 냈다.

《추호동무! 흥분하지 말구 무슨 일인지 좀 차근차근 말하오.》

《중대장동진 정말 깜깜이구만요 장군님께서 벌써 달포전에 일석이만은 절대로 놈들에게 빼앗길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늘끝을 뒤희서라도 꼭 찾아데려오라고 대원들을 파견하셨답니다.》

그리고는 그날아침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말했다. 방랑아를 련상케 하던 일석의 초라한 모습, 엮어질듯이 달려나가 일석을 더듬서 그리안던 련대장, 다 해진 짚신, 굵히고 터진 발잔등, 자기의 커다란 군화를 신겨주던 련대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신을 신었다기보다 쪽배를 한것 같던 일석의 그 우습강스런 모습도 빼지 않았다. 일석이가 련대장의 가슴에 안겨 쿨쩍거리던 일,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어서 눈물을 거두라고, 그래야 장군님께 인사드리러 가지 않겠느냐고 달래던 련대장이 대해 말할 땐 추호의 눈곱에도 질척하게 눈물이 고였다.

《중대장동지! 허나 일석이 어머니는...》

추호는 다시금 왈각 치밀어오르는 비분으로 말을 잊지 못했다.

《그건 이미 알고있소!》

명우는 이렇게 심중히 말하고나서 두눈을 습벅거리며 광술불그을음이 꺼명게 앓은 키낮은 천정만 올려다보고있었다.

《장군님의 그 뜨거운 품이 있기에 우리는 어디를 가나 마음놓고 싸울수 있지. 설사 죽음이 앞을 막는다 해도 서슴없이 맞받아나갈수 있는지요 죽어서도 그 품에 안겨 영생하기 위해서 말이요, 난 우리 집사람이 최후까지 잘 싸운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보오.》

그의 목소리는 갈리고 눈물에 젖어있었다.

《오늘은 우리 애가 또 장군님 품에 안겼소. 그러니 내 더 바랄것이 뭐요?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뜻을 잘 받들겠는가, 그 한가지 생각뿐이오. 그이의 원대한 조국광복구상에서 자그마한 주춧돌이라도 될수 있다면 내 이 한몸도 서슴없이 바치겠소》

추호는 감동되었다. 그는 가슴이 벅차올라 명우에게 나도 끝까지 중대장을 따라 싸우겠다고 말하고싶었으나 마음속에만 새겨넣었다.

그는 급히 배낭을 뒤지었다. 갑자기 멧적은 생각이 들자 그는 배낭에서 손을 뽏고 주춤주춤했다. 의아하게 바라보는 명우의 눈길을 감추고서야 그는 다시 배낭밑에서 신발 한켠레를 꺼냈다.

가죽으로 지은 털신발이었다.

《일석이 말에 맞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 한방울이 반짝거리는 신코에 떨어졌다. 명우의 눈물이었다. 그는 어쩔사이 없이 흘러내린 그 눈물자욱을 얼른 손바닥으로 문대며 멋지게 웃었다.

《허허, 이거 안됐소 훌륭한 신발을 보여 눈물이 나는구만.》

춘호자신도 눈곱이 달아올라 대답을 못했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호젓한곳에 혼자 있고 싶었고 명우에게도 그렇게 해주고싶었다.

밖은 먹물속처럼 새까맣다. 춘호는 장작더미 위에 앉았다. 싸늘한 대기를 흔들며 힘들지도 않는 지 접동새는 그냥 한껏으로 울어댄다.

그는 명우를 생각했다.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있단말인가. 사람하는 안해를 잃고 버린 자식의 생사여부조차 모르던 그 아버지가 아닌가.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못별들이 자개처럼 박힌 넓은 하늘로 별찌 하다가 흰줄을 그으며 날아간다. 이제 저 별들이 사라지고 새날이 오면 그들 부자간의 상봉이 이루어질것이다.

춘호의 눈앞에는 벌써 그 광경이 선히 떠올랐다. 온 련대가 떨쳐나 그들을 맞을것이며 장군님께서 직접 그들의 상봉을 축하해주실것이다. 박수, 포옹, 꽃보라 그리고 눈물.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더니 다리가 뻣뻣해지기 시작했다. 상처가 말썽을 부리려는 모양이었다.

춘호는 될수록 상처를 놀래우지 않으려고 조심히 산전막으로 들어갔다.

명우는 아직 신발을 손에 쥔채 심중한 낯색을 하고 앉아있었다.

《춘호동무, 이 귀한것을 구하느라 수고했겠소.》

《바른대로 말해서 좀 몸을 들었습니다. 사실 전 자랄 때 것처럼 해진 짚신은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좋은걸 구하고싶었습니다. 만일 금으로 만든 신발이 어디에 있었다면 저는 마다하지 않았겠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일석이가 어떤 앵니까? 중대장동지 아들이래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명우는 춘호의 걱정엔 넘친 이야기에 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점점 얼굴이 컴컴하게 굳어졌다.

《이젠 모든걸 알만하오, 그러니까 동무에게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소. 내 말이 틀리오?》

춘호는 대번에 들었던 감정이 폭 꺼지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것은 어쩔수 없는 사실이었다.

한점에 머문듯한 그의 눈길은 지긋게 대답을 기다리고있었다. 춘호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웁습니다.》

《동무의 그 심정을 내 왜 모르겠소? 거기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하오. 허나 동문 마음속에 움튼 그 인정과 타협을 하지 말았어야 했소. 임무를 떠

나서 무엇을 생각할수 있겠소.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요.》

춘호는 할말이 없었다. 그만큼 마음이 괴롭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상처가 자꾸 쑤셔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았다.

《춘호동무, 왜 그러오?》

춘호는 황급히 자신을 수습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명우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헤치고 복부의 상처를 찾아냈다. 창상은 크지 않았으나 시뻘겋게 독이 오르고 부어있었다.

《내 어쩐지이런 상처를 숨겨두다니...》

명우는 급히 배낭속에서 느릅나무가루를 꺼내여 되게 반죽을 했다. 이런 경우를 여전해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것이였다. 진한 소금물로 상처를 닦아낸 다음 그 반죽을 상처에 붙이였다.

《래일아침이면 상처가 꼭 가라앉을테니 이제부터는 가만히 누워있소.》

그는 아래목에 춘호의 잠자리를 정해주었다, 그러면서도 그자신은 주섬주섬 길떠날 차비를 했다. 춘호는 불안한 예감이 들어 반쯤 일어나며 말했다.

《중대장동지, 차라리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명우는 그를 놀려맞으며 랑해를 구하듯 말했다.

《춘호동무, 달리 생각마오, 누구든 여기에 한사람은 남아있어야겠는데 별수 없지 않소? 동무는 부상을 당했구 난 몸이 생생하오. 그러니 내가 가는게 어느모로 보든지 옳단말이요. 래일저녁이면 돌아올테니 너무 마음을 쓰지 마오.》

죄스럽고 미안했지만 춘호는 그를 멈춰세우지 못했다. 일단 결심하면 그대로 하는 그의 성미를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춘호는 마음이 쓰리고 아팠다. 련대에서는 지금 일석이가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있을것이다.

그에 못지 않게 련대의 전우들도 기다릴것이다. 허나 명우는 공작지로 다시 떠나갔다. 그러니 떠나는 그 마음이 어땠겠는가.

춘호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것인지 다는 모른다. 그의 아버지는 세상에 태어나 순종밖에 모르고 살아오는 고지식한 농사꾼이었다.

《애야 예로부터 강약은 부동이라 했느니라.》

그는 늘 이렇게 아들을 신칙했다 아버지의 그 순종때문에 춘호는 어려서부터 부역마저 남들보다 몇배는 더 해야 했다. 참다참다 더는 참을수 없게

된 춘호는 버르던꼴에 어느 하루는 구장놈과 대판싸움을 벌렸다. 그놈들이 돌아가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상처에 애처로이 약을 바르고 닭알을 굴리며 야단을 했으나 아버지만은 옷방에 꿇꿇이 앉아 말한마디 하지 않았다 자기 의사를 거역하고 굳이 구장놈과 맞선 자식이 패싴했던 모양이었다.

허나 그날밤이었다. 굳잠이 들었던 춘호는 무슨 예감에서였든지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꼭 여민 이불깃 틈으로 벌건 불빛과 함께 담배연기가 술술 스며들고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머리맡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춘호는 까딱 않고 누워있었다. 곧 옷방으로 올라가시겠지. 허나 벌건 불빛은. 그의 잠자리를 지키거나 하듯 꺼질듯하다가도 다시 이어지군했다.

그 불빛과 함께 코를 간지럽히며 술술 스며드는 담배연기는 춘호의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어놓았다. 게다가 이따금 이불깃로 새어드는 한숨소리로해서 그는 가슴이 저러왔다. 아버지가 왜 저러실가? 무슨 생각을 하기에 온밤을 저렇게 새우실가?

피멍든 아들의 상처를 더듬고있을까? 그럴수도 있었다. 허나 그보다는 아들의 장래를 두고 걱정할것이다. 물론 자기나름의 장래일것임에 틀림없겠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얼굴에 흠칠을 하지 않는 그런 장래일것이다. 춘호는 그날밤을 그렇게 뜬눈으로 새웠다. 그는 이불속에서 아버지의 그 말없는 기원앞에 머리숙여 맹세를 다지였다. 아버지만이 아닌 모든 조선의 아버지들앞에 떳떳한 그런 아들이 되겠노라고 춘호에게는 아직도 그날밤의 벌린 담배불빛이 눈에 선했고 코를 간지럽히는듯한 담배연기를 감수할 때면 때없이 가슴이 훈훈해진다. 아버지의 사랑이란 바로 그런것이였다. 하물며 지금 명우의 심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생각만 해도 춘호는 가슴이 메이는듯했다. 아아, 임무란 참...

발자국소리도 없이 명우가 다시 방안으로 불쑥 들어왔다. 춘호는 열길에 후닥닥 일어나앉았다.

《가다가보니 어두워서 힘들더구만, 그래 오늘밤은 여기서 동무와 함께 꼭 자고 래일아침에 떠나기로 하겠소.》

명우는 들어오자바람으로 춘호의 곁에 잠자리를 보며 말했다. 춘호는 얼굴이 밝아졌다.

《래일아침이면 제 상처도 다 낫습니다.》

《그럼 동무가 가도 되오.》

명우는 꽤히 웅하고나서 불을 켰다. 춘호는 그에게 아래목을 권했다 명우는 춘호더러 따뜻한데서 자야 상처가 풀린다면서 굳이 사양했다. 춘호는 더는 어쩔수 없게 되자 명우의 팔을 잡고 끝다싶이 했다. 순간 명우는 어쩔사이 없이 신음소리를 냈다.

《아니, 그럼?》

춘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십여일전 왕가촌습격전투에서 당한 부상이 아직 완치되지 못했던말인가? 그럼 그 성하지도 못한 팔을 가지고 저 많은 짐을그것이 얼마나 간고했으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런데 자신은? ...춘호는 눈을 꼭 감고 자신을 호되게 질책했다.

《춘호동무, 아무것도 아니오. 어서 잠이나자자구.》

명우가 거들 권했으나 춘호는 그대로 잠들수가 없었다.

《중대장동지! 용서하십시오. 전 미옥한놈입니다. 사실은 공작지에서 신발때문에 그 더러운 변질자에게 걸려들뻔했었습니다 중대장동지가 성을 낼 일도 두려웠지만 전 어떻게 하나 빨리 런대로 돌아갔으면해서 그것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 정말...》

명우는 이미 그랬으리라고 짐작은 했었지만 그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이번 일은 결코 군복천 몇벌감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했다

《잘못을 깨달은 사람은 얼마든지 고칠수 있소》

명우는 잠을 청해보려고 눈을 감았다 그럴수록 정신은 더욱 맑아만졌다. 지글대는 밤귀뚜라미소리때문인지 이상하게도 지나간 추억들만 자꾸 되살아올랐다. 그는 나이 스물을 훨씬 넘기도록 제 이름마저 잊고 살았다 지주집에서는 모두 머슴인 그를 샅살이라 불렀다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지주집 손자녀석까지도 샅살이라 했다. 아래도리나 겨우 건사하기 시작할 그 어린시절에 머슴으로 들어가 번 그 별명은 지꽃게도 떨어질줄 몰랐다. 혁명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일생을 샅살이로 마쳤을것이였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했다.

인생에는 파란곡절이 많하지만 그는 서른아홉이라는 길지 않은 자기의 한생에서 그 억울하고 눈물겹던 시절은 인생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목숨은 불어 숨은 쉬고있었으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 죽으나 다름없던 그 생활이 무슨 인생이란 말인가.

혁명만이 그에게 참다운 인생을 안겨주었다. 하기에 그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반아들인 그 인생을 열던 헛되게 하고싶지 않았다. 춘호의 드림도 없이 임무에 무조건 충실하는것, 거기에 바로 그 인생을 참되게 하는 길이 있다고 그는 굳게 확신하고있었다.

《춘호동무, 자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뭘 생각하오?》

춘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는 그가 지금 자기처럼 무엇인가를 두고 깊이 생각하고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곤하오임무에 대해서말이요.》

정작 이렇게 말을 때놓고보니 명우는 참으로 할말이 많았다.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그 임무들을 통해 조국방



복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고계신다, 하기에 그 매개의 임무는 장군님의 그 구상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디딤돌로 된다! 이렇게 말이오. 그러니 우리가 임무앞에서 어떤 립장을 취

해야 되겠소? 한치도 드림없이 무조건 수행해야 하오.》

《전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춘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이 산속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탓하지 않고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를 묵숨바쳐 수행해나가고있다는것을 중대장동진 지금 저에게 깨우쳐주고있습니다. )

《이것보오 춘호동무, 임무에 대한 리치는 조국이 광복된 다음에도 변하지 않을거요. 그때에 가셔도 장군님의 구상에 따라 새 조국이 서게 될것이구 사회주의—공산주의위업이 실현되어나가것기에 말이오.》

춘호는 무한히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튿날, 날이 밝아서야 춘호는 눈을 떴다. 첫 순간에 그에게 떠오른것은 어서빨리 공작지로 다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명우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누웠던 자리에는 목침만이 덩그렇게 놓여있었다. 그는 대뜸 울상이 되어 후닥닥 밖으로 뛰어나갔다.

《중대장동진!》

《중대장—동—지—이!》

목청껏 불렀으나 돌아오는것은 숲속을 들었다놓는 메아리뿐이었다. 춘호는 어쩌면 그리도 자기가 무사태평하게 잠을 잘수 있었는지 알수 없었다.

그는 비로소 어제밤 명우가 되돌아온것은 그의 말대로 밤길을 걷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안정을 주고 폭 쉬우기 위해서였다는것을 깨달았다. 밀림을 제집마당처럼 다니던 사람이 어두워서 갈수 없었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뻔한것을 어제밤에는 왜 미처 알아채지 못했단말인가.

지금도 그에게는 그가 명우를 처음 만나던 때의 일이 눈에 선했다.

춘호는 그때 구장놈과 대들이를 한것으로 해서 끝내 불잡혀가게 되었다. 죄도 없이 류치장살이를 한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그는 참을수가 없어 순사놈을 때려눕히고 산으로 도망쳤다. 다시 불잡혀 포승끈에 묶이웠다. 여기서 명우에 의해 구원되었다. 명우는 그때 공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춘호는 그가 산에서 싸우는 사람이라는것을 인차 알아차리었다. 어차피 자기도 산으로 들어가는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는 명우에게 자기를 데리고 가줄것을 간청했다. 놈들에게 불잡힐

때 다리에 부상을 믿어 그에게 짐이 되겠지만 달리는 어쩔 방도가 없었다. 명우는 말없이 그를 부축하여 얼마동안을 갔다. 다리는 점점 부어오르고 저려나기 시작했다. 더는 걷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명우는 안침진 풀덩굴속에 자리를 만들고 그를 눕혔다. 그는 춘호의 손에 강낭떡 세개를 뒤여주며 사흘만 참아달라고 부탁하고 훌쩍 떠나갔다.

춘호에게 있어서 그것은 청천벽력이었다. 운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무인지경에 헌신짝버리듯 해놓고 어쩌면 그럴수 있단말인가. 산사람들이란 그렇게 부정한단말인가. 그는 늘 정의의 상징으로 산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동경해왔다. 허나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판이했다. 그는 명우가 돌아온다고 한 말을 믿지 않았다. 올 사람이면 날버리고 훌쩍 갔겠는가.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명우는 두명의 대원과 함께 나타났다. 어쩌나 극진하던지 춘호는 명우의 그 행동에 도리어 얼떨떨해졌다.

인간의 감정이 어쩌면 그렇듯 서로 상반되는 두 극단에서 꺼리낌없이 오락가락할수 있는지 그는 리해하지 못했다. 명우가 긴급임무때문이었다고 거듭 양해를 구했으나 춘호는 종시 그것을 납득하지 못했다. 후날에야 춘호는 그것을 리해했고 임무앞에서는 춘호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거기에 명우의 가장 뜨거운 인간미가 있다는것을 생활속에서 깨닫게 되었다.

춘호는 한숨을 짓고 맑게 개인 하늘을 바라보며 언제면 자기도 명우와 같은 장군님의 전사가 될수 있을가하고 생각했다.

춘호는 갑자기 울리는 총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첫 순간에 그의 망막에 들어온것은 먹물같은 어둠이었다. 그는 화닥닥 일어났다. 명우가 달려들어오며 소리쳤다.

《춘호동무, 빨리!》

그는 방바닥에서 재빨리 몇개의 배낭들을 더듬어메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 미처 말한마디 건늬여불 사이도 없이 춘호는 나머지 짐을 가지고 뒤따라나갔다.

밖에는 말파리가 대기하고있었다. 명우는 한쪽 손에 권총을 거머쥐고 말파리들 가리켰다.

《저우에 군복천이 다 있소. 먼저 떠나오.》

춘호는 필쩍 뛰었다.

《그건 안됩니다. 중대장동진이 먼저 떠나십시오.》

그는 중대장의 손을 뿌리치며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제가 적을 막겠습니다. 중대장동진 빨리 런대로 돌아가십시오.》

《어서 떠나오! 이런 명령이요》

그는 말파리쪽으로 춘호의 등을 힘껏 밀었다.

《내 곧 뒤따라 가겠소》

명우는 벌써 숲 저쪽으로 달려갔다. 이윽고 거기서 자지러진 총소리가 연방 물렸다. 총소리는 점점 산전막 반대편으로 떨어져갔다.

춘호는 금시 심장이 멎는듯했다. 가슴에서 피가 끓어올랐으나 어찌는수가 없었다. 임무만 아니었다면 그는 죽어도 살아도 중대장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을것이다. 그는 피가 지게 입술을 짹 사려 물고 말파리우에 홀쩍 뛰어오르자 고삐를 힘껏 나꿔챘다. 엉치가 암팡지고 키가 경충한 자라말은

와뜰 놀라 앞다리를 넉떡 들어올리더니 대가리를 내저으며 네굽을 놓기 시작했다.

명우는 반드시 돌아올것이며 그들 부자의 상봉은 이루어질것이다. 그 순간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춘호는 그 순간을 위해 지금 명우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지만 임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다같이 함께 달린다고 생각했다.

말파리는 숲속길을 따라 쏜살같이 달렸다.

## 통일거리 전투장에서

### 신형길

끝없이 설레이는 가슴으로  
나는 서있다  
대건설의 웅대한 화폭  
통일거리 전망도앞에

여겨볼수록  
눈언저리 뜨거워지는구나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살림집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 기울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설계도면과 모형도를 보여주시며  
한량없는 은정과 사랑을 베풀어주셨다니

계절의 봄은 철따라 오건만  
낮에도  
밤에도 손꼽아 기다리며  
꿈에서도 안아보는 통일의 봄  
그 마음 헤아리시여  
거리 이름도 통일거리라 지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5만세대의 살림집건설에  
뜨거운 심장들을 위훈으로 부르셨다  
몸소 진두에서 이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담력  
저 화폭의 갈피마다 비꼰어라

진정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어버이심정 지니시고  
살림집거리들을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로 일떠세우자시며  
일군들에게 힘과 겨레의 날개를 펼쳐주신분

그이께선 이 시각에도  
당중앙 높은 창문가에서  
바라보고계시리—  
오색기발 날리는 통일거리 건설장  
하늘을 찌르며 일떠서는  
장엄한 건설의 위용을

환하게 뻗어간 저 넓은 거리로  
보고갈 통일의 사절들  
활기 띤 그네들의 모습도  
활짝 열린 창가마다에 피어날  
행복에 겨운 인민들의 그 눈빛도

그리고 듣고계시리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부르며  
들끓는 기계들의 저 동음소리  
건설자들의 높뛰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보고 다시 보아도  
이 전망도를 무심히 바라볼수 없구나  
너무도 웅장하고  
너무도 화려한 거리  
그 한복판에 키높이 솟아있는 통일회관...

전망도여  
너는 안고있구나  
통일의 그날을 마음속에 그리며  
일손 다그치는 인민의 그 마음을

일떠서라  
조선의 기상  
통일거리여!  
우대한 사랑의 서사시들 이 땅우에 수놓으며  
락원의 새 모습으로 자랑떨치라

## 우리의 명절

박준녀

우리의 생활에는 명절이 퍼그나 많다. 달력을 뒤지며 얼핏 훑어보아도 1월부터 12월까지 명절 없이 지나가는 달이 거의 없다. 《부문별 명절》이라고 해야 할지, 광부절, 건설자절, 체육절, 교육절 이러ру한 날들을 내놓고라도 거의 모든달에 명절이 적어도 한번씩은 있다.

그런데 우리 통일거리 건설장에는 명절이 한달에 한두번정도가 아니라 열번, 스무번, 때로는 그 이상 있을 때도 있다.

얼마전 10월의 어느날, 나는 통일거리 한끝에 치우쳐있는 우리 작업장으로 가다가 떠들썩한 환영곡소리에 멈춰섰다. 그곳은 통일거리 어데서나 볼수 있는 보통 살림집건설장이었는데 온통 사람과 꽃다발의 물결에 묻혀있었다. 야회라도 하는것 같았다. 방송차에서 노래소리가 물리고 사진기와 촬영기를 든 기자들이 들락날락하고명절때나 볼수 있는 광경이었다.

오늘이 무슨 날이던가. 나는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이리 훑고 저리 훑어도 10월 5일, 10월에 들어와 다섯번째 날이라는것밖에는 짚이는 것이 없었다. 물론 우리 나라 력사의 갈피를 판판히 뒤져보면. 수천번 맞이했을 10월 5일들가운데 언제 한두번쯤은 놀랄만한 사변이 있었을수도 있었지만...

나는 꽃다발을 들고 총총히 달려가는 한 처녀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가고 물었다.

《무슨날이라니요?》

그 처녀는 놀랍다는듯이 나를 보았다.

《골조조립을 방금 끝낸걸 몰라요? 두달이나 앞당겨서 말이예요!》

《그래요?!》 나는 그들의 기쁨이 나의 가슴속으로도 스며들기를 간겼다. 우리 통일자리에 또 하나의 살림집이 일어섰구나! 건설자들에게는 이날이 참으로 기쁜 명절이 아닐수 없다.

나의 작업장에서도 이런 명절을 맞았었다. 그것은 8월말의 어느날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여름의 보통날에 불과한 그날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명절이었다.

그날 우리는 맑은 살림집골조를 석달이나 앞당겨 끝냈던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축하해주려 찾아왔던가. 어느때엔 보기 힘들던, 수도건설지휘부, 려단지휘부의 간부들, 신문기자, 방송기자, 텔레비죤촬영가, 예술선전대만도 두편대나 왔었다.

그날 나의 기쁨이 오늘은 미 사람들의 기쁨으로 되고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기쁨이자 나의 기쁨이기도 했다. 그들도 나도 다같은 통일거리 건설자이기때문이었다.

《통일거리에서 또 하나의 살림집골조를 앞당겨 끝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기쁨을 드린 건설자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방송차에서 물리는 목소리였다. 8월의 그날 《우리의 명절》에도 방송원은 저렇게 말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기쁨을 드린 건설자들에게 이 하루의 의미가 있는것이 아닐가.

바로 이것으로 하여 여느 사람들에게는 보통날에 불과한 날이 우리 통일거리 건설자들에게는 명절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에 기쁨을 드리는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보람찬 일이 어데 있으랴.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살림집을 안겨주시려는 우리 당의 결심, 통일거리에 깃든 우리 당의 구상을 관철하는 길에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그러고보면 우리 통일거리 건설장에는 얼마나 많은 명절들이 날에 날마다 생겨나고있는것인가.

어제는 2호구획에서, 오늘은 5호구획에서, 래일은 7호구획에서, 때로는 단번에 여러 구획에서 골조조립을 앞당겨 끝냈다는 환성이 오르고있다.

드물게 찾아오는것이 명절이라지만 우리 통일거리에서는 오늘도 명절이며 래일도 명절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기쁨을 드리려는 건설자들의 충성심에 의하여 통일거리에서는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날마다 명절》로 되고있다. 이 명절들은 우리의 충성심으로 마련한 명절이기에 우리를 더 기쁘게 한다.

어느 일터에서나 펴럭이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저 구호속에 우리의 명절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저 구호속에 《우리의 명절》이 통일거리를 벗어나 온 나라의 명절로 될 그날도 깃들어있다.

완공된 통일거리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게 될 그날, 그날이야말로 온 나라의 명절일것이다.

그 가장 큰 명절이 어떻게 가까와오는지 우리는 안다. 매일, 매일, 하루하루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릴 기쁨을 마련한 명절로 될 때, 《날마다 명절》로 될 때 그 가장 큰 명절이 앞당겨지리라하는것을!...

# 우리의 통일거리

유국진

우리의 통일거리  
얼마나 부르기 좋은 이름이나  
조선사람모두가  
얼마나 부르고싶은 이름이나

북쪽에 살아도  
남쪽에 살아도  
해외에 살아도  
조선사람은 한피줄 한민족  
꿈결에도 그리운 혈육의 한마음

자나깨나 통일만을 부르는  
겨레의 그 마음 다 헤아리시여  
여기 략량의 언덕에  
친히 통일거리를 세우도록 하여주신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몸소 여기에 터전을 잡아주신  
그 사랑 고마워  
대동강 푸른 불도 노래하며 흐르는가  
몸소 여기에 새거리를 열어주신  
그 은정 뜨거워

저기 흥에 겨운 노래소리,  
맞들이를 들고 웃으며 달리는

치너병사들의 손끝에서 불이 일고  
파도치는 병사들의 어깨에 떠실려  
통일거리가 뻗어간다

긴팔을 저으며 하늘을 헤엄치는 기중기도  
땅을 밀어내는 미더운 불도젤도  
흙을 떠내는 부지런한 굴착기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줄을 신 자동차도  
흥이 나서 통일거리를 노래하는 전투장

통일거리 새 이름을 부르며 부르며  
온 나라가 달려오는 충성의 전투장  
흙 한삽을 떠도 하나의 생각  
집 한동을 세워도 하나의 생각  
45년 애태우면 민족의 숙원을 안고  
같이 살 통일의 열망이 불타는 거리여

아, 우리의 통일거리 우리의 통일거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 세상에 열어주신 위대한 사랑의 거리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가슴 시원히 남으로 남으로  
통일의 한길을 넓혀가는 거리여

# 그 마음이다

허주신

위훈높은  
건설자들의 집  
합숙마당에 들어서니  
참으로 가슴뜨겁구나

유치원시절처럼  
소년단시절처럼  
학교의 앞마당 화단에  
하얀 돌 골라 글자를 새기던 그날처럼

다 큰 사나이들이  
급게도 새기었구나  
대동강물에 씻기고 씻기운 하얀 자갈들로  
화단의 한복판에  
《증산과 절약》,

그들이 소년소녀시절로 돌아갔다고

우리 탓하지 말자  
건설장에선 역센 수리개여도  
생활에서는 이처럼  
다정다감한 사람들

그 마음들이  
흔하디 흔한 모래자갈도  
쌀알처럼 쓸어모은다  
비에 젖은 한줌의 세멘트를  
자신의 살점처럼 소중히 생각했다  
아, 대동강물에 씻기고 씻기운  
그 희디흰 자갈들처럼  
티없이 깨끗한 그 마음들이  
이 거리를 건설하고있으니  
이 거리의 기초는 억년 흔들리지 않으리!

## 평범한 나날에

한웅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이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충실성과 혁명성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통일거리 건설장 7호구획에 이르면 류달리 날씬하고 탄력있어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끄는 25층짜리 고층살림집이 있다. 그 집이 통일거리적으로 제일 먼저 골조조립을 끝낸 7-13호동이다. 그 집아래에는 집을 세운 건설자들의 《마을》인 나지막한 가설건물들이 몇채 서있고 입구에는 《평양종합방직공장대대》라는 간판이 얹전하게 서있다.

방직공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녀성들의 공장이라는것부터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틀리는 생각이 아니다. 이 방직공장대대 역시 근 80프로가 처녀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를테면 처녀들의 대대이다.

더우기 그들은 몇달전까지만해도 건설이라는 말과는 인연조차 없었던 방직공들이였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골조조립에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한것이다. 그 비결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야기를 찾기 어려운데문이다.

### 1. 없어도 해야 한다!

봄은 빠른것 같기도 했고 늦은것 같기도 했다. 3월이였다. 진흙땅위에 낡은 림시도로는 봄벌에 녹아 죽탕같은 진탕길로 변했다. 그러나 토피와 진흙으로 가설건물을 짓는 건설자들에게는 손이 시릴만큼 쌀쌀했다.

《자—물탈!》

한 청년이 미장관을 내밀며 소리치는데 삼을 든 처녀는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미게 뭐 물탈이예요? 진흙이지!》

주위의 처녀들은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원래 웃지 않고는 못견디는 처녀들이라보니 청년은 벌치 않은 말 한마디로 하여 웃음속에 들고말았다.

그러니 그는 이런데에는 습관된듯 얼굴도 붉히지 않고 그저 시무룩이 웃으며 허를 찔을뿐이였다.

《에—고놈의 입을 그저-》

수리공인것 같았다. 또 까르르 웃음이 터졌다.

터진 자루에서 알알이 쏟아져나오는 쟁쟁한 웃음소리들은 멎을줄 몰랐다.

그렇만도 했다. 어제까지는 자기들이 건설을 할수 있다는 생각도 할수 없었던 그들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집을 짓고있는것이다. 원래 작은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는것이 처녀들이다. 벌써 벽체와 지붕공사가 끝나가고있었다. 이제 온돌을 놓고 문짝만 달면 집이 된다. 사람이 살수 있는!

얼마나 재미있는가. 가설건물이기기는 하지만 어쩔든 집이다. 그들은 벌써 건설자가 다 된듯한 기분이였다.

그러나 지휘일군들은 그런 기분에 휩싸일수 없었다.

그들이 지어야 할 7-13호동은 높이가 근 70미터에 이르는 25층살림집이였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고층집을 지어본 기술도 경험도 없었고 게다가 필요한 설비조차 제대로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기중기가 있어야겠지?》

전승근참모장의 말에 김의균설계원은 듣고있다는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있어야지요.》

《앵무새처럼 받아외우기만 하는군!》

전승근참모장은 화를 냈다. 김의균은 못들은척했다. 벌써 몇번인지 모르게 오간 말이였다. 전승근은 계속 들으면 신통한 대답이 나올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는듯 하루에도 몇번씩 꼭 같은 말을 던져보군했다.

《기중기가 있어야겠지?》

물론이다. 기중기가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그림을 봐도 집을 짓는데는 기중기가 있기마련이다. 기중기는 건설장의 상징이다. 아니 골격이라고도 할수 있다. 수도의 곳곳에 일어서는 수많은 살림집들을 다 돌아보아도 기중기 없는 집은 단한채도 찾아볼수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중기가 없었다. 25층까지 올리려면 자승기중기가 있어야 했다. 가져올데도 빌려올데도 없었다.

그러면 만들어야 하는가. 만드는데는 간단하지는 않으나 특별히 어려울것도 없었다. 공장에 호소하면 모두 달라붙어 만들어줄것이다.

전승근은 혼합기를 비롯한 일련의 설비들을 만들기 위한 협의회배를 회상해보았다.

기계화직장, 공무직장, 원동직장들에 설비제작을 분담하였다. 그 직장들은 공장에서 제기되는

부속품생산을 비롯한 수리작업만으로도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

그것을 잘 아는 전승근이로서는 도와달라고 하기가 주저되었다. 그런데 협의회는 그의 예견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다.

《해야지요. 통일거리를 위한 일인데! ... 혼합기는 우리 직장에서 말아하겠습니다.》하고 공무직장장이 선뜻 나섰고 다른 직장장들도 뒤지지 않았다.

《어떻게든 해야지요. 통일거리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니 자승기중기가 있어야 한다면 역시 망설임없이 대답할 것이었다.

《통일거리 일인데 해야지!》

그렇다. 그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없었다.

문제는 강재와 시간에 있었다. 자승기중기를 만들려면 15~20톤에 달하는 강재가 필요했다. 또한 강재가 마련된다고 해도 시간이 문제였다. 기중기를 만들려면 적어도 다섯달내지 여섯달이 걸려야 했다. 그런데 여섯달후라는것은 그들이 골조조립이 끝난 25층살림집을 세상앞에 내놓아야 할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미룰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속에는 더 많은 훌륭한 살림집을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구상, 1990년대를 기어이 통일의 년대로 되게 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이 담겨있었다. 그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로 흐르는 시간이었다. 단 한초라도 멈춰세울수 없는 시간이었다!

이것을 알고있었기에 협의회때 모든 직장장들이 망설임없이 대답한것이 아니겠는가. 《해야지요 어떻게든 해야지요!》.

전승근참모장은 저도 모르게 그 말을 큰소리로 되뇌었다.

《해야지! 어떻게든!》

김의균은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예?》

전승근참모장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없어도 해야 한단말이요!》

《예?》

《다 있는걸로 한다면 우리 지휘관들이나 기술일군들이 뭇때문이 필요하오? 아무 사람이 해도 되는거지. 없어도 되고!》

옳은 말이었다. 지휘관이나 기술일군들이란 있는것을 가지고 할수 있는것만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없는것은 찾아내고 부족한것은 만들어내어 불가능한것도 가능하게 만드는것이 지휘일군들이며 기술일군이다. 때문에 당에서는 일군들에게 자력

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할것을 호소하고있는것이다.

없어도 해야 한다! 이 말은 모두의 마음엔 들었다. 없어도 해야한다. 있는것으로 할수 있는것

을 하는것은 절대성, 무조건성이 아니다.

《여보 김동무, 그詹장 기중기없이 집을 못짓소?》

속을 태우다못해 던지는듯한 전승근의 말에 모두들 웃었으나 김의균설계원은 웃지 않았다. 그 말이 그저 던져보는 무의미한 말로만 들리지 않았다.

군대복무를 마치고 방직공장에서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공장전문학교, 공장대학을 졸업한 그였다. 로동속에서 기사로 자라난 우리 시대의 기술자들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생활을 통하여 알고있었다.

하기에 그는 방직기계설계가 전문이었으나 건설기계설계를 맡게 되었을 때도 주저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해보는 건설, 더우기 말로만 들어온 미끄럼시공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가 찾아다닌 건설장이 얼마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기중기없이 집을 짓게 되리라고는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는 수없이 찾아다녔던 시내 곳곳의 산림집건설장들을 더듬어보았다. 기중기 없는곳이 있었던가...아니, 어느 건설장이나 기중기가 다 있었다.

없는곳이 없었다. 그런데... 가만... 가만있자... 머리속으로 어느 한 10층살림집건설장이 언뜻 비쳐들었다. 그곳에도 기중기는 있었다. 그런데 그 기중기는 움직이지 못하는 기중기였다. 정비하고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타입은 계속되고있었다. 물동운반능력을 보충하려고 설치한 스끼프가 한뫼하고 있었던것이다. 스끼프... 스끼프... 그는 마침내 자기 생각을 입밖에 냈다.

《스끼프를놓으면 얼마간...》

《스끼프?》

전승근의 눈이 번쩍하고 빛났다. 김의균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스끼프로도 물동은... 보장할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건 25층집이어서... 10층쯤이라면 몰라도》

《25층? 25층이 뭐 별거요?》

전승근참모장의 입에서 열오른 말마디들이 기관총사격처럼 쏟아져나왔다. 흥분하면 말이 무척 빨라지는 그였다.

《10층집우에 10층이 떠 있고 그우에 5층을 더 올려놓은게 25층이겠지? 안그렇소?》

《...》

너무도 단순한 산수계산이었다. 열에다 열을 더하고 또 다섯을 더하면 스물다섯이다. 여기에 무슨 의문이 있을수 있는가그러나 모두들 침묵을 지킨것은 그래서가 아니었다. 건설이 결코 산수가 아니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그들이었다. 매 한층이

산수적인 더하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십수백가지로 복잡해지는 기술공학적문제의 해결에 의해서 올라간다는것을 그들은 잘 알고있었다. 그것

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사람이 바로 전승근참모장이었다.

그가 그 론박할 여지없는 계산으로써 다른 길은 없다는것을 말하려 했음을 모두들 깨달았던것이다.

사실 다른 길은 없었다. 기중기가 생길 때를 기다린다면 통일거리건설 《시간표》에서 떨어져나오게 되리라는것이 명백했다. 《할수 있는가》가 아니라 《해야 한다》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결심하여야 했다.

하여 여러가지 다른 의견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기중기없이 25층살림집을 올리기로 결심을 채택했다.

처녀들은 자기들이 기중기없이 25층집을 짓는데 놀래기도 했고 감탄하기도 했으나 섭섭해하기도 했다. 그것은 누구나 할것없이 기중기운전칸에서 머리수건을 날리면서(그것이 빨간색일지 파란색일지는 명백치 않았지만) 건설장을 굽어보는 자신을 상상해보고있었던것이다. 그 량만적인 상상을 표기해야 하는것이 아쉬웠고 기중기가 없음으로 하여 자기네 건설장의 《맵시가 손상될수 있다》는것때문에 섭섭했다. 물론 위안도 있었다. 그의 가장 큰 위안은 통일거리적으로 기중기없이 살림집을 올리는것은 자기네 건설장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때는 그들밖에 없었다. 그후에는 여러곳에서 기중기없이 집을 짓기 시작했다. 미끄럼시공에서는 스끼프가 기중기보다 더 좋다는 견해들도 생겨났다.)

처녀들이 기중기없이 짓게 될 《자기들의 집》을 《7-13호동전경도》에서 보며 떠들고있을 때 지휘일군들은 공정계획을 세우고있었다.

...4월 11일 착공... 4월 27일까지 기초공사...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준비작업...5월 25일이 첫 미끄럼뜨기...

그들은 밖에서 올리는 처녀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공정계획을 다시 보았다. 과연 저 처녀들로써 이 계획대로 일을 진척시킬수 있을가...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 2. 류다른 꽃송이

그들의 목표는 요란스럽지 않았다. 동그라미가 몇개씩 붙은 큰 수자들도 없었고 전투과제를 한 시간에 한다는 높은 목표도 없었다. 다만 그날 계획을 그날로 수행하는것, 오늘 할 일을 래일로 미루지 않는것, 그것이 전부였다.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듣기 어렵다. 하루하루가 죄다 비슷비슷하기때문이다. 너무도 평범하다. 그러나 그 평범한, 어스비슷한 날들이 모여 골조조립을 제일 앞당겨 끝내는 기적을 이루었다. 과정은 평범했으나 결과는 비상한것이였다고 할가.

놀랄만큼 아름다운 꽃도 많이 모여있으면 평범한 꽃으로 된다. 한송이씩 들고 보아야 그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여기서도 서로 어스비슷한 평범한 나날중의 어느 하루만을 눈여겨보려고 한다.

이것은 첫 미끄럼을 뜨기로 계획하였던 5월 25일 첫날, 5월 24일 저녁에 있는 이야기이다.

...그날도 그 시각까지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치차처럼 빈틈없이 맞물려 진척되어가고있었다.

이제 몇분후 오후 다섯시면 용접정기가 시작될 것이고 그것이 열한시에 끝나면 휘틀을 조립할것이며 래일 오전에는 철근조립을 하고 오후에는 계획대로 첫 미끄럼을 뜨기 시작할것이다. 그러면 7-13호동은 자기의 모습을 통일거리에 나타내기 시작하게 된다.

용접정기에 참가할 용접공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용접봉도 용접기도 완비되어 있었다. 그래도 혹시 미흡한 일은 없는가.

정신갑대대정치지도원은 전승근참모장과 함께 다시 준비상태를 확인했다. 결과는 만족할만했다. 간간한 처녀들은 용접작업장을 룽상주로처럼 말끔히 청소까지 해놓았다.

마침내 구령을 내릴 시간이 되었다.

바로 그때 두 지휘관이 마주앉은 지휘부로 시공참모가 뛰어들어왔다.

《비, 비가 옵니다!》

《뭐요?》

열린 문으로 습기찬 바람과 함께 비발이 뿌려들어 얼굴을 선풍하게 했다.

비는 소리치며 내리고있었다. 컴컴한 하늘에서는 네가 오래동안 내릴듯싶었다.

금방까지 활기에 넘쳐있던 작업장은 무거운 침묵에 싸였다. 대대성원들은 두 지휘관만 지켜보고 있었다.

정신갑정치지도원은 참모장과 눈길을 마주쳤다. 대대가 지켜보는 앞이어서 눈길로만 말을 주고받았다.

(이런 비속에서 용접하기는 어렵겠지요?)

(곤란합니다.)

정치지도원은 물아치는 비발로 하여 용접공들이 감전될수 있다는것을 생각했고 참모장은 비를 많으면 용접이음줄의 질이 보장될수 없다는것을 생각했다. 두 지휘관의 생각하는 측면은 서로 달랐지만 얻어지는 결론은 하나였으니 그것은 《불가능》이었다.

그러나 어느 한쪽도 그것을 입밖에 내지 않았다. 통일거리 건설장에는 한결음도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것, 지금 물러서면 앞에 있는 모든 공정이 그만큼 밀리게 된다는것을 그들은 잘 알고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내밀어야 했다.

《참모장동무,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더 침착해지고 조용해지는 정신감정치지도원이었다.

조용하고 침착한 음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춰서거나 물러설수 없다는 확고한 결심을 똑똑히 말해주는듯했다. 그 결심은 대대성원들 모두의 가슴에 심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그것은 아직 알수 없었다. 근 500평방미터에 달하는 우산이 있어 작업장을 통채로 씌울수 있다면 리상적일것이었다.

《창고에 비닐박막이 얼마나 있소?》

정치지도원의 물음에 창고장은 머리를 흔들었다.

《얼마되지 않습니다.》

사실 비닐박막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지도원은 비닐박막을 펼쳤다.

불을 지피려면 첫 불꽃이 있어야 한다. 정치지도원은 작업장 복판에서 비닐박막을 쳐들었다.

《이것만이라도 치고 용접을 시작합시다!》

정각 다섯시, 정치지도원과 지휘일꾼들이 쳐들고 있는 비닐박막밑에서 첫 용접불꽃이 타올랐다. 그 불꽃은 온 대대를 들끓게 했다. 처녀들은 너도나도 작업장에 뛰어들었다. 비닐박막이 없는 그들은 입었던 비옷을 벗어서 쳐들었다 그것은 너무도 작았으나 그들은 온 세계를 가리울 우산이라든듯 부르짖었다.

《용접을 하십시오!》

《비는 우리가 막겠습니다!》

열명... 스무명... 백명... 이백명... 비옷에 비옷이 또 다른 비옷이 끝없이 이어지며 쳐들렸다.

식당근무성원들도, 직일근무성원들도, 지어는 환자로 인정되어 안정할 명령을 받은 처녀들까지 빠지려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말로도 그들을 돌려보낼수 없었다.

정신감지도원은 소리치다못해 손을 짓고말았다. 성을 낼수도 없었다. 성을 낸다면 자신에게 내야 할것이였다. 이것이 정치일군의 보람이라고 할지...

온 작업장이 수백의 비옷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처녀들은 근 500평방에터에 달하는 《우산》을 만들어낸것이였다! 그것은 그들만이 만들어낼수 있는 《우산》이였다. 자그마한것으로도 큰것을 대신할줄 아는 간진 생활력, 어설픈것으로도 탄탄한것을 만들줄 아는 천성적인 섬세성, 들우에라도 꽃을 피우는 이악성이 만들어낸것이였다.

《고맙소. 동무들, 고맙소!》

비속에서도 웃고 떠드는 처녀들을 돌아보며 정신감정치지도원은 뜨겁게 부르짖었다.

전승근참모장은 얼굴에 흐르는 비물을 주먹으로 훔치며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집을 짓게 되면 난 이 처녀들하고만 짓겠소!》

그 누가 하늘에서 내려다보았더라면 수백평방미터에 달하는 신비한 꽃송이를 보는듯하였을것이다. 처녀들의 취미대로 빨간것, 파란것, 노란것, 바둑무늬, 꽃무늬형형색색의 비옷으로 무어진 《꽃송이》...그것은 사실 꽃송이였다. 통일거리를 기어이 제기일에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기쁨을 드리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한시라도 앞당기려는 뜨거운 심장들이 하나로 뭉쳐 피워낸 충성의 꽃송이였다!...

이것이 그날저녁에 있는 이야기이다. 퍼붓는 비발속에서 비옷에 비옷을 이어들고 용접불꽃을 지켜서있기 여섯시간.

《그날 어떻게 견디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잠깐사이에 지나갔던것 같기도 하고 끝없이 길었던것 같기도 합니다. 그지 지금도 똑똑히 기억되는건 <기어이 해냈구나>하고 한없이 기뻐했던것뿐입니다.》하고 한 처녀는 그때의 일을 이야기했다.

용접경기는 밤 11시에 끝났다. 그리고 5월 25일에는 계획하였던대로 첫 미끄럼틀 쓰기 시작하였다.

《뭘, 그저 이러루한 이야기들입니다. 별로 흥미없을겁니다.》하고 정신감정치지도원은 말했다. 이러루한 일그의 말이 옳을수도 있었다. 사실 그들의 일에는 비상한 유혼이다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울만한 기적도 없다. 다만 그날 계획을 그날로 기어이 해냈다는 평범한 이야기가 있을뿐이다. 여기서 이야기한 5월 24일도 그런 날들중의 하루였다.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이야기할지 찾기 어렵게 어설퍼스런 나날들, 그러나 그 하루하루가 통일거리적으로 제일먼저 골조조립을 끝내는 기적을 마련했다. 모름지기 7-13호동을 이루는 스물다섯층, 매층마다에 충성의 꽃송이들이 피어있으리라.

한 처녀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세웠다는것이...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높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는 이것이 진정한 위훈이 아닐가. 자신도 모르는사이에 창조되는 위훈이...



# 지는 해야 아쉬워말아

리석

지는 해야 아쉬워말아  
마지막 벽체를 세우고  
만장을 덮는 이 순간의 환희  
너 보지 못하고 기운다고

어제는 키를 솟구며 오르더니  
이 하루 충충 하늘가에 닿을듯  
건설장의 놀라운 모습  
다 보지 못하고 기운다고  
다시 보고파  
아쉬워하는 저녁해 저녁해

흙물에 얼룩지며 기초를 파던  
그 마음 그대로 기둥이 되고  
그 마음 그대로 창문이 되어

락원의 새 모습으로 단장하는 날  
통일거리의 웅장함을 보여주려니

고마움에 목메여 들먹이는 가슴들  
꽃피는 창가에서 노래부를  
행복넘친 새집들이  
그날의 기쁨도 보게 되리

지는 해야 아쉬워말아  
아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할때 모시고  
완공의 테프 끊을 감격의 그날  
너를 하늘중천에 경축등처럼 매여달고  
한껏 보여주려나  
온 조국이 기쁨에 설레일 대경사를

# 해지는 저물녘에

홍성두

해지는 저물녘  
하루일 마친 사람들  
떠들썩 집으로 돌아오는 때  
조용하다  
5만세대살림집 건설장 가까이  
돌격대원들이 사는 집

침대밀엔  
메고온 배낭도 그대로  
산뜻한 벽엔  
쭈쭈 수염민 얼굴 웃음속에 비쳐보던  
소박한 거울도 그대로...

땅이 부르는곳  
언제한번 비운적 없던  
그 마음이런듯  
모든 비품 제 자리에 놓였건만  
주인들은 어이 보이지 않나  
해지는 저물녘  
집은 어이 그리 조용한가

고요히  
저녁노을 비껴내리는 마당가엔  
취사원처녀의 기다리는 마음인양  
가락맞게 물리는 칼도마소리  
칼도마소리만 잦을줄 모르고

어이 그리 조용한가  
하루일 마친 사람들  
반기여 집집의 문이 열릴 때  
돌격대원들은 그만 잊었는가  
5만세대살림집문 한시에 열릴  
새집들이 경사를 앞당기는 보람에  
해가 지는줄, 날이 벌써 저무는줄

오, 깊어지는 생각속에  
다시 또 다시 바라보게 되누나  
머지도 않게  
건설장 가까이 자리잡은 집  
하건만 밥그릇 이고지고  
취사원들 때없이 마당을 나서는 집

여기에 있구나  
집이란  
5만세대살림집 그 집밖에 모르는듯  
오로지 그 준공의 날에 마음두어  
해지는 저물녘도  
해쫄는 아침인양 불타오르는  
아 그 마음 그 숨결  
침대머리의 배낭과 함께  
벽에 걸린 소박한 거울과 함께  
이 집에 넘치누나!

## 처녀의 고백

김창근

### 1

쉬임없이 설레이는  
푸른 파도우에서  
끼르륵 날아에는  
갈매기들아

아느냐  
아직은 이른봄  
찬바람 물어보는 바다가에  
어이하어 이 저녁  
청춘남녀 나왔는지

무슨 사연 있길래  
유정한 눈길로  
아득히 저 멀리  
들끓는 간석지건설장을 바라보며  
점도록 청춘들은 이 바다가를  
어께나란히 걷고있는지

들어보자 갈매기들아  
가슴들먹이며 청춘들이 주고받는  
심장의 소리  
우리 조용히  
들어보자...

《명진동무, 축하해요!》  
아름다운 노래처럼  
랑랑히 울리는 처녀의 목소리—  
그러자 명진이  
가벼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 그러지 마오. 연미...》

그다음 병진이 걸음멈추고  
새로운 연구과제를 말아안고  
연포로 떠나간 철옥이  
초조한 나날이 퍼그나 흘러  
그 나날에 안타까와  
외지에서 혼자 울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간석지설계가들이  
철옥이의 연구성과를 애타게  
기다리고있는것은 사실이에요

철옥이가 말은 연구과제는  
새로운 물결요소의 계산법이였지요  
그래요  
서해안간석지는  
그 바닥의 높낮이가 심했어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잇는다  
《나는 여기에 내려와서  
철옥동무를 도와주었을뿐이요  
그거야 연미도 잘 알지 않소》

참말로 고운 노을빛처럼  
처녀의 얼굴 빨갱게 탄다  
다소곳이 고개숙이고  
한동안 말이 없더니  
왜서인지 호 한숨을 짓고  
입을 여는 연미—  
《저는 지금껏 명진동무의 마음을  
너무도 몰랐어요.》

불어오는 바람아 아느냐  
날아에는 갈매기들과 아느냐  
어이하어 연미  
연구사업이 성공한 이 기쁜 날에  
노을빛처럼 타는 얼굴  
다소곳이 숙이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날에 명진동무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랐어요

어이하어 그날에 명진동무는  
철옥이가 있는곳에 가겠다고 했는지  
자기의 연구과제를 미루어놓고  
철옥이가 나가있는 연포로 가겠다고  
동무가 자진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척도 놀랐답니다

아직 물밑에 잠겨있는 그 비밀은  
물길의 높이와  
물길의 주기같은  
물결요소들이 반영하고있었지요  
그 비밀이 밝혀져야  
애타게 기다리는 설계가들이  
설계를 시작할수 있었던거예요

그렇지만 갑자기 철옥이를 도와주려  
연포로 가겠다는 명진동무를  
저는 도무지 리해할수 없었어요  
리해할수 없었어요  
그때 동무는  
학제를 크게 흔들어놓을  
중요한 연구과제를 맡고있었어요

성공의 날은 눈앞에 있었어요  
동무한테 언제나 시간이 귀했지요  
그래서 밤마다 제가 스스로  
동무의 《조수》가 되곤했어요

성공의 시각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  
나한테는 아무런 귀찮도 없이  
연포로 떠난다는 명진동무가  
저는 야속했어요

함박눈이 내리면 어느날 저녁  
저는 동무를 만났어요  
눈에 묻힌 공원길을 걸으며  
진정답아 말했어요

—거기에 내려가면  
동무의 연구과제는  
그만큼 늦어지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그때 나의 마음은  
참말로 안타까웠어요...

생각나요? 명진동무  
어린시절 우리 함께 자랄 때부터  
동무는 언제나  
나를 즐겁게 해주었어요  
별써 소꿉놀이 그 시절부터  
내가 바라는것이면  
동무는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어요

생각나요? 그 언덕길  
학교에서 돌아올 때  
우리 함께 노래하며 넘던  
그 언덕길말이에요

—연미야

—안돼!  
금시에 나의 두눈에  
가랑가랑 눈물이 고이였어요  
그러나 동무는 모른체 돌파서서  
씨엉씨엉 걸었어요  
썰매메고 강가로—

나는 그때 물랐어요  
한반에서 공부하는 광철이  
남의 집 계집애와 함께 논다고  
또다시 큰 소리로 놀려줄것 같아서  
나를 때버리고 강가로 간줄

그런줄도 모르고 그 저녁  
야속해서 울었어요

너 이런 노래 아니?  
그 언덕을 넘으며  
동무는 나한테  
노래를 배워주곤했어요  
—참 좋은 노래란다  
내가 부를게 따라볼러!

그러면 진달래 곱게 핀 언덕길에  
밝아오는 조국땅에 노을빛으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  
랑랑히도 울리였어요  
그날에 나는  
벼랑가에 진달래가 참말 곱다며  
꺼어달라 졸랐어요  
그러면 동무는 책가방 벗어놓고  
고운 진달래를 꺾어주곤했어요

어느날 저녁엔...  
동근해 사라진 서쪽하늘에  
유난히도 노을이 타던 그 저녁  
나는 서럽게도 운적이 있었어요

—왜 우느냐?  
몇번이고 몇번이고 할머니가 물건만  
대답도 안하고  
저녁밥도 안먹고  
방안 구석에  
오도카니 앉아서—

나를 울린것은 명진동무였어요  
그날 썰매메고 동무들과 함께  
강가로 나가는 《명진오빠》  
따라서며 나는 말했어요  
—나도 갈래!

그런데 왜서인지 동무는  
성난듯이 말했어요

저녁밥도 안먹고  
오도카니 앉아서—

이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그날의 《명진오빠》 들어섰어요  
나는 새뚝해서 그대로 앉아있고  
영문을 모르는 우리 할머니에게  
동무는 말했어요  
—내가 연미를 울리였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다음 문을 열고 나가려 하더니  
나를 돌아보며 동무는 말했어요  
—연미야  
래일 썰매타러 함께 가자

한손으로 문손잡이를 잡고서  
우두리 서있는 《명진오빠》를  
결눈으로 살며시 바라보면서  
나는 속으로 종알거리었어요  
—홍! 누가 따라가겠대!  
이제부터 나혼자 갈테야!

그래요  
어린 시절 우리 함께 자랄 때부터  
동무는 언제나  
나를 즐겁게 해주었어요  
벌써 소꿉놀이 그 시절부터  
내가 바라는것이면  
동무는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믿었답니다  
이번에도 나의 말을 들을거라고  
그래서 눈내리는 공원길을 걸으며  
그날저녁 진정담아 말했었지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리는 눈발 저편에  
동무는 서있었어요  
한참만에  
하염없이 내리는 눈발속에서  
웅글은 목소리가 물리었어요  
—연미, 나는 연포에  
꼭 가야 하오!

나는  
그날  
야속했어요  
동무가...

## 2

파도우에 날아예던  
갈매기들이  
청춘들의 머리우에  
춤추듯 난다  
어이하여 바다가에  
청춘들이 나왔는지  
이제는 이제는 알았다는듯  
명진이와 연미  
머리우에서 끼룩—  
나란히 걷는 길  
저앞에서 끼르룩—

도리굽이 저바루에 앉아서  
걸어오는 청춘들을  
빠금히 본다  
고 껌찍한  
갈매기들이—

마음이 한껏 즐거워진 연미  
가벼이 명진이의 팔을 흔든다  
《저것봐요 저것봐요  
정말 고와요》  
갈매기들을 잡아보련듯  
몇발자국 달려가는 연미  
《고와요 갈매기들이  
정말 고와요》  
쟁쟁하니 울리는 목소리  
그다음 까르르 터지는 웃음소리

뒤에서 천천히 걸음 옮기는  
명진이 입가에 웃음이 핀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철부지 그 소녀를 보는것 같아

풍기듯 하늘가에  
다시 날아오르는  
갈매기들이 들어보자 우리 함께  
처녀의 마음의 소리—

처녀는 지금  
무척 마음이 즐거웁단다

...정말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동무의 그 마음을

대학시절 한반에서 철옥이와 나  
한책상에 앉아 공부했지요  
우리들이 고스란히 대학을 다닐 때  
동무는 저 멀리 초소에 있었어요

철옥이와 나  
대학을 졸업할 때  
동무는  
우리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때 나는 생각했어요  
명진동문 우리보다  
한발 늦었구나...

그랬어요 내 보기엔  
동무는 우리보다  
내내 한발 늦었어요  
우리들이 연구소에서  
그다지 큰것은 아니라 해도  
몇가지 성과를 올렸을 그때에야  
동무는 배치되었지요  
우리 연구소에

동무는 아마  
다는 모를거예요  
아무한테나 엿보이지 않고  
남모르게 간직해온

한 처녀의 고운 꿈을

나는 바랐어요  
하루 빨리 동무가  
온 세상을 깜짝 놀래우며  
부디 성공하기를

그랬는데  
연포로 떠나겠다니  
야속했어요  
저의 마음은

그래서 숨가빠 달려갔던거예요  
그날...  
동무가 연포로 떠나는 그날  
봄비는 역두에서 나도 모르게  
동무의 두말을 흔들었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탁이에요

그것은 정말  
부탁이었어요  
처녀의 간절한  
애원이었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또다시  
동무의 두팔을 흔들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었어요  
그러면 마음을 돌릴거라고...

그래요 동무는 나의 부탁을  
언제나 꼭꼭 들어주곤했어요

생각나요? 명진동무  
군복 입고 초소로 떠나던 그날  
손저어 바래주던 그 언덕길이  
어린 시절 벼랑과의 진달래 꺾어주던  
못잇을 그 언덕길말이에요

헤어질 때 서운해서  
나는 말했어요  
편지하라고  
부탁이라고

그래요 동무는 나의 부탁을  
잊지 않고있었어요  
저 멀리 초소에서 보내주는 편지를  
가슴 두근거리며 읽곤했어요  
남몰래 대학의 으스스진 복도에서

그래요 동무는 나의 부탁을

언제나 너그러이 받아주곤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이 말했던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동무는  
왜서인지 측은한 눈길로  
오래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나의 손을 꼭 쥐어주었어요  
—연미, 나는 가야 하오!

무척도 커보이는 그 손에서  
살그니 작은 손을 빼내렸어요  
그리고 말없이 돌아섰지요  
나는  
그날도  
야속했어요  
동무가...

### 3

인적없는 바다가에 나란히  
두사람이 남기는 발자욱  
파도가 밀려와 살며시 지워주고  
또다시 밀려간다

우리가 걷고있는 이 기슭에도  
머지 않아 새로운 마을이 생기리라  
벼바다 끝없이 흥치며 설레이는  
그날을 기쁘게 안아보는 명진이

밀려가는 파도따라 어린애처럼  
하나 둘 발자국 찍어도 보고  
파도가 밀려오면 발을 적시지 않으려고  
뒤걸음쳐 황황히 달아나오는 연미

처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명진이 느슨히 웃음짓는다  
《한다하는 연구사가 오늘은 웬일이요  
붉게 타는 넥타이 펄펄 날려라  
그 노래까지 불렀으면  
더 어울릴것 같구만...》

그러자 처녀는  
명진이를 한번 돌아보더니  
활짝 웃음짓고 달음질친다  
밀려오는 파도에 발을 적시며—

...알기나 해요? 명진동무  
내가 왜 연구소를 떠나서  
여기 연포로 오게 됐는지...

나도 미처 몰랐어요 처음엔—  
연구소창가에 달이 밝으면  
어이하여 저 멀리 굽이쳐간 길  
하염없이 그 한끝을 바라보게 되는지

달빛아래 뻗어간 저 길 한끝에  
어이하여 내 마음 못견디게 달리는지  
때없이 생각에 깊이 잠기고  
가만히 한숨을 쉬게 되는지

너자의 마음은 산골물같아  
외뿔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명진동무...  
어쩔수 없이  
내 마음속엔  
동무가 자리잡고있었답니다

마음속 그 순정은  
참말로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  
우리 함께 밤지낼 때 움튼걸가요  
들국화 피어난길 어깨 나란히  
우리 함께 길을 때 자란걸가요

걸으며 연미  
끝없이 속삭인다  
남모르게 가만히  
간직해온 이야기...

왜서인지 두볼이 빨갛게 타오르는  
연미를 이윽히 바라보는 명진이—  
《무슨 생각을 하고있소?  
연미...》  
그 물음에 소소리치는 연미  
혼자서 속삭인 마음의 소리  
명진이 다 들은것만 같아  
다시 놀라며 대답한다  
《아니! 아니예요!》

두어두자  
명진이와 연미  
어서 저만치 걸으며  
따뜻한 이야기 나누라고  
우리 잠시 두어두자  
그러면 그사이에  
시인이 한마디 하리—

그랬더라  
연미의 마음속엔  
어느새  
명진이가 있었더라  
소중히

불밝은 연구소창가에서  
명진이를 도와 밤지낼 때에  
힘들지 않느냐고 연미 물으면  
힘이 든다고...  
하지만 조국에  
보답을 못할것 같아

그게 더 겁이 난다고  
조용히 울리던 목소리

높지 않은 그 목소리  
처녀의 가슴 흔들었더라  
조국!  
조국이란 그 말은  
많이도 외웠건만  
그리도 뜨거이  
진정다해 안았던가  
그럴수록 돋보이는 명진이  
그랬더라 그랬더라  
어느새 연미의 마음속에는  
소중한 명진이가 있었더라

나무람말아다오  
잠시나마 우리의 주인공들 결을 떠나  
멋쩍게 시인이 한마디 하였으니  
애뜻한 처녀의 마음의 소리  
다시 조용히 들어보자...

그래요...  
명진동무  
내 마음속엔  
동무가 자리잡고있었답니다

그래서 오게 됐어요  
여기 연포로 말이에요  
처녀의 불같은 사랑의 그 힘으로  
기어이 동무를 데려가려고  
그래서 왔던거예요!

그날  
현장실험실에 나타난 나를  
동무는 기쁘게 맞아주었어오  
뜻밖인듯 처음엔 묵묵히 서있더니  
얼굴에 함뿔 웃음을 담고  
내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다음 내 손을 더듬어잡고  
동무는 말했지요  
않지는 않았는가고...

그 목소리에 가득  
정이 어려있었어오  
따뜻한 정이 담긴 그 목소리 들으며  
얼핏 바라보니  
두손에 두툼하니 감긴 침대가  
아프게 안겨왔어요

나는 왜서인지  
눈물이 날것만 같았어요  
그날밤도 우리는  
이 기슭을 걸었지요  
참으로 달도 밝은

밤이었어요

하늘에 달도 밝은 밤이었건만  
즐거운 산보길은 아니었어요  
몇마디 말이 오고갔을뿐  
우리의 이야기는 끊어지고 말았어요  
분명 나란히 함께 걷고있었던  
마음들은 서로 다른 곳으로  
줄달음쳐 흐르면 밤이었어요

아마도 물결요소의 계산법을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  
동무는 말이 없고  
몇번이고 외워본 그 말을 되뇌이며  
저는 마음 조이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 명진동무...  
따분한 산보길을 끝맺으려고  
저도 걸음을 멈추었어요  
마음속에 몇번이고 외워본  
그 말을 해야 할 시각이  
이제는 왔다고 생각했던거예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듯이  
동무는 나에게로 몸을 돌리었어요  
그다음 문득 손시계를 보더니  
서두르며 말했어요  
—아, 연미  
난 가봐야겠소  
오늘밤 감물에 현관관측을 하자고  
철옥동무와 약속한 시간이 됐소  
아마 지금 사돌선을 빌려놓고  
나를 기다리고있을거요

안됐다고...  
한마디를 남기고  
동무는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찬바람 불어오는 바다가에  
나홀로 오래동안 서있었어요  
서운해서 가만히 한숨을 지었지요  
—동무는 정말  
미세기밖에 모르는군요...

저는  
참말로  
야속했어요  
동무가...

## 4

물결은 소리없이  
밀리여오고  
또다시 소리없이

밀리여간다  
남몰래 간직해온  
마음속 이야기  
치녀는 끝없이  
속삭여본다

마음속 이야기 끝없이 속삭이며  
즐거웁게 걸음을 옮기는 연미  
그 어디 먼곳에서 울리는듯한  
명진이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래 언제쯤  
연구소로 돌아가겠소?》

그 말에 연미  
우뚱 걸음 멈춘다  
이윽도록 명진이를 바라보더니  
수평선멀리에 눈길돌리며  
가벼이 고개를 가로 짓는다  
《모르겠어요  
내가 왜 열흘나마  
여기에 남아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달리는 열차에 실었던 이몸인데  
어이하여 상기도 못떠나는지  
생각나오?명진동무  
그밤...  
제가 현장실험실에 나타났던  
그 깊은 밤 말이에요

그밤  
실험실에선  
동무의 열정어린 목소리가  
울리었어요  
—35에 27  
18에 43...  
그것을 받아적는 철옥이의 머리칼이  
바다물에 함뿍 젖어있었답니다

이때 사업소의 당비서동지와  
지배인동지가 들어섰지요  
불이 켜져있길래 지나가다 들렀다며  
당비서동지는 쭈그리고 앉아서  
가져온 땀감을 난로에 넣고  
동무가 벗어놓은 그 젖은 옷을  
지배인동지는 두손에 떠들고  
달아오는 난로에 말리었어요

그밤에 멀리에서  
농장원아주머니들이  
찰떡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나이 지숙한 한 아주머니는

걸걸한 목소리로 웨치듯 말했어요  
—자, 한개씩 맛보시우  
따끈한 국은 여기 있수다!

저는 그때  
판자로 둘러막은 그 실험실이  
아주 신성한곳으로 생각했어요  
신성한 이곳에서 할일 없는 사람은  
다만 저하나뿐이었어요

가자  
돌아가자  
무엇인가 나는  
잘못 생각했었다  
그네들의 성과를  
축복하며 돌아가자

그날아침 저는  
실험실문앞으로 다가갔어요  
가겠어요 명진동무  
어서 꼭 성공하길 바래요  
진심으로 그 말을 하고싶었던거예요

하지만 저는  
문고리를 쥐지 못했습니다  
그때 실험실안에서  
철옥이의 목소리가 울려왔던거예요

—명진동무, 한가지 부탁하고싶어요  
어서 연미와 함께  
돌아가주세요  
이제 남은것은  
참물때 최고떨기의 높이인데  
믿어주세요. 해내겠어요...

놀랐어요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저는 가슴조이며 서있었어요  
이제 명진동무  
무슨 말을 하려나?

웅글게 울리는 동무의 목소리는  
한참이 지나서야 흘러나왔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란말이요?

애원하듯 철옥이는  
말했어요  
—동무의 시간을 빼앗는것이  
미안해서 그래요

그때 갑자기  
찌릉—  
몹시도 격한 목소리가

실험실을 흔들었어요  
—뭐라구?!  
나의 시간이라구?!

동무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였어요  
—나의 시간이라구?!  
그리고 강박하듯 말했어요

—한가지만 묻겠소  
그래 동무는 뭇하러  
여기로 왔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대답이 없는 철옥이한테  
동무는 분명  
심장의 대답을 요구하고있었어요  
—그래 동무는 자신을 위해  
여기로 왔소?  
어디 대답해보오!

저는 그렇게도 격한 동무를  
처음 보았어요  
철부지 그 시절부터  
지금껏 말이에요

웬일인지 가슴이  
후두둑 뛰었어요  
그 격한 목소리는  
분명 나에게 묻는것만 같았어요  
그래 동무는 자신을 위해  
여기로 왔소?  
어디 대답해보오!

아마도 한번만 더  
격한 그 목소리 울렸더라면  
저는 끝내 참아내지 못하고  
그자리에 서있지 못했을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동무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잇고있었어요

나는 돌아갈수 없소  
저 바다밑의 비밀을  
간석지건설자들에게 밝혀주기전에는  
여기를 떠나갈수 없소

철옥동무  
나는 지금 후회하고있소  
내가 왜 좀더 일찌기  
여기로 달려오지 못했는가를

못박힌듯 굳어져서



저는 귀를 강구하고있었어요  
 아니예요 동무의 그 목소리를  
 저는 온몸으로 듣고있었답니다  
 —철옥동무  
 나는 얼마전야야 알게 되였소  
 간석지건설에 깃든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말ियो

그때 왜서인지 동무의 목소리는  
 갈린듯하였어요  
 그 갈린듯한 목소리가  
 조용조용 울리었어요  
 —어느날 일군들이  
 간석지건설계획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고드린적 있소  
 친애하는 그이께 보고드린 문건에는  
 처음 몇해동안  
 한두곳 해보면서 경험을 얻고  
 몇해가 지난 다음  
 본격적으로 다그칠 계획이  
 담겨져있었소

한동안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소  
 얼마후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며  
 혼자 하시는 말씀처럼  
 조용히 뇌이시였소  
 《몇해가 지난 다음에  
 다그치다...》

집무실을 거니시던 그이께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오  
 《아니요!》

동무의 목소리는  
 감격에 떨렸어요 .  
 조용조용 울리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졌어요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오  
 아니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정해주신 그날까지  
 30만정보를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는  
 우리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을 믿고  
 서해안 전역에서 동시에  
 간석지건설의 새 력사들 알리는  
 장엄한 포성을 울려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후회하고있는지요  
 좀더 일찌기  
 달려오지 못한것을 말ियो

철옥동무,  
 시간이란 무엇이겠소  
 그것은 물론 귀중한것이지  
 그것이 그리도 귀중한것이기에  
 뜻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천금같이 아끼라고 말한것 같소  
 그러나...

여기서 동무는  
 잠시 말을 끊었어요  
 한동안이 지난 다음에  
 동무의 말소리는 이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귀중타한들  
 어머니조국의 숨결속에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품속에  
 박동쳐 흐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갓  
 유치한 놀음의 랑비가 아니겠소  
 나는 그렇게 생각하오

동무는 이야기를 끝내였어요  
 아 그래서 저는  
 끝끝내 문고리를 쥐지 못했답니다  
 인사말을 남기고 떠나려 했었던만  
 차마도 차마도  
 발걸음을 옮길수가 없었답니다

## 5

불어오는 바다바람 아직 차건만  
 이 기슭을 걷는다 청춘들은  
 이제는 시간이 퍼그나 지났건만  
 잊은듯 모르는듯 어깨나란히—

불어오는 바람아  
 날아에는 갈매기들아  
 행복에 겨운 청춘들을 축복해주라  
 성공의 기쁨을 안고  
 여기로 달려온 그들이 아니냐

아름답더라  
 인생의 봄시절  
 꽃나이 처녀들은 아름답더라  
 산에 들에 들창가에  
 갓 피어난 꽃송이들  
 그대로 제나름대로 어여쁘듯이—

아름다워라

연미의 모습 아름다워라  
여기에 내려와서 벌써 여러날  
보풀이 인 입술에  
촉간듯한 얼굴에  
거칠어진 손등에  
돋보이는 아름다움을 치녀는 가꾸었구나  
비바람속에 피어웃는 꽃  
더 아름답듯이—

아마로 하얀 위생복 입고  
연구소 창가에 앉아있는 연미라면  
이다지 아름답지는 못하리라  
치녀를 바라보는 명진이의 생각—

《연미! 고맙소  
철옥동무가 뭐란줄 아오?  
아마 연미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을거라고  
몇번이나 말을 했소》

열띤 명진이의 목소리  
부드러운 음악처럼  
치녀의 마음 어루만진다

연미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아니예요》  
저 멀리 건설장  
어디인가를 바라보며  
연미 다시 한번  
고개를 젓는다  
《아니예요》

그 다음 연미  
생각에 잠긴듯 걸음만 옮기더니  
명진이를 돌아본다  
아름다운 입술에 고운 눈매에  
가득히 미소를 머금고  
《저는 지금에야  
너무나 귀중한것을 깨달았어오》

노래처럼 물리는 쟁쟁한 소리  
명랑한 대기를 흔든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껏  
나를 위한 상아탑을 쌓고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참뜻에서 성공은 아닐거예요》

참말로 노래처럼  
아름답게 물리는 연미의 목소리—  
《그래요 동무들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철옥이와 명진동무를  
저는 이 기쁜날  
진심으로 축하하고싶은거예요》

그 말에 짐짓 시무룩해지는 명진이  
통명스러운 어조로 말한다  
하지만 두눈에는  
느슨히 웃음을 담고—  
《그렇지만 난  
성공하지 못했소》

《뭐라고요?!》  
치녀의 놀란 소리  
그자리에 굳어져  
지켜보는 눈동자

호수처럼 그윽한 치녀의 눈동자  
오래도록 바라보며 서있는 명진이  
진정담아 말한다 조용한 목소리로—  
《난 아직  
한 치녀의 심장을 점령 못했소  
연미라는 치녀의 그 심장을 말이지요》

그제서야 호—  
가만히 숨을 내쉬는 연이  
그다음 천천히  
그리고 가벼이  
명진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음성으로 속삭인다  
《아니예요  
그 치녀의 심장은 오래전부터  
여기에 함께 입었답니다》

진정 행복에 겨워  
명진이의 가슴에 귀를 대이고  
치녀는 분명  
박동치는 심장의 소리를 듣는다

치녀야  
사랑하는 치녀야  
벼와 나 행복의 꽃배를 타고  
희망의 기슭으로 함께 노젓자  
언제나 따사로운 햇빛아래서

우리의 사랑은 꽃으로 피리

...그래요

그 처녀의 심장은 오래전부터  
여기에 함께 있었답니다

명진동무

아마도 저는

그날을 일생 잊지 못할거예요

번개치고 우뢰울고

비바람 사납게 몰아치면 그날...

우리가 참물때 최고멀기의 높이를  
기어이 관측해낸 그날을 말이에요

그날

거치른 바다로 사돌선이 떠가면 날

당비서동지와 지배인동지는

스스로 노군이 되어주었지요

힘겨웁게 노를 젓는 두사람을 바라보며

그날 동무는 미안한듯 말했어요

《조금만... 조금만 더 나갑시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다바람에

동무의 비웃자락이

기폭처럼 나뭇겼어요

배전에 거연히 서있는 그 모습을

철옥이와 나 가슴조이며

바라보고있었어요

사나운 파도는

방금 사돌선을 뒤엎을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때에

무서웠어요 그 파도가...

파도

노호하는 파도는

참말로 우리가 바라는 최고멀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도무지

관측기를 바다에 넣을수가 없었지요

파도가 너무 세차서...

한초... 한초...

참말로 가슴타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철옥이와 나

동무한테 가까이 다가섰어요

문득 왜서인지 그때에

순간을 놓치면 영원을 잃는다는

누군가의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러나 너무도 황포한 자연앞에

우린 어쩔줄 몰라

그저 안타까울뿐이었어요

오래도록 동무는 아무말없이

울부짖는 파도만 바라보고있었어요

하더니 두손으로 천천히

하나 둘 옷단추를 벗기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있었어요

발밑에서 울부짖는것은

아직도 차거운 바다였으니까요

하나 둘 옷단추를 벗기고있는

동무말에 제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그 다음 분명히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었으나

목이 잠기여 말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떨리는 두손으로

남아있는 동무의 옷단추를

저는 마저 벗기었지요

그때 동무는 언젠가처럼

나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다음엔 허리에 바줄을 매더니

관측기를 안고 돌아섰어요

그래요 그 바줄의 한끝은

나의 손에 쥐여주고...

당비서동지한테

지배인동지한테

웃음을 지어보이고

이 동무는 그날

차디찬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파도속에 사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는 간절히 빌었어요

별일 없을거예요

별일 없을거예요

연구과제도 성공하고

우리들도 별일이 없을거예요

뭐라할가

그때는 막

울부짖는 파도가 가증스러웠어요  
살아날치는 맹수같아...

그 사나운 물결속에  
동무는 사라져버리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어요  
참말로 오래오래...

어찌자고 그래요  
동무는 정말  
어찌자고 그래요  
동무가 남기고 간 바줄한끝을  
두손에 잡고서서  
저는 되뇌여 부르짖었습니다

이상해요 왜서인지 문득 그때에  
우리의 지난날이 생각났어요  
어린 시절 노래하며 넘던 언덕길  
대학의 복도에서 읽던 그 편지  
붐비며 기적소리 울리던 역두  
함박눈 내리던 그날의 공원

아 바로 그때  
동무가 물위에 솟구쳐올랐어요  
우리는 한꺼번에  
환성을 질렀지요  
힘이 진한듯 천천히  
가까이 다가오는 동무를 향해  
당비서동지랑  
조용히 눈굽을 훔치었어요  
철옥이의 두볼에도 맑은 이슬이  
방울방울 흘러내리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오고야 말았던거예요!...

—아! 용서해요 명진동무!  
나는 지금껏 동무의 마음을  
너무도 몰랐어요  
너무나도...  
속으로 부르짖으며 나는 끝끝내  
참말로 어린애처럼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야 말았답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속삭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처럼  
발을 구르며 나는 소리쳤어요  
—여기예요!  
여기예요!  
어서요!

우리들의 손에 이끌려  
동무는 배우에 올라섰어요  
숨빅찬 목소리가  
아니 기쁨겨운 목소리가  
허공중에 울렸어요  
—이젠 알았습니다!  
연포앞바다 최고멀기의 높이를  
이젠 알았습니다!

그 다음  
여름날 수영장에서 방금 나온듯  
젖은 옷을 쥐어짜며  
동무는 나와 철옥이한테 말했어요  
—89에 196  
92에 208이요...

동무의 그 목소리 들으며  
지배인동지랑

—불행할거예요  
동무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처녀는 정말  
불행할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 서로 소중히 간직하고있던것을  
그 처녀가 먼저 고백했었습니다  
벌써 그날에...  
맘속으로...

어느새 어둠이 깃든 기슭을  
명진이와 연미 걷는다

저 밤모르는 건설장을 향해  
다정한 청춘들이 간다...

걸어라 청춘들아  
밤은 고요히  
어둠의 나래로 그대들을 안아주고  
별들은 즐거웁게  
속삭이듯 그대들의 머리우에 반짝인다

밤이 보내는 축복을  
어서 받으며 걸어라  
기꺼이 자신을 바쳐온 시간속에  
소중히 맞이한 밤이니  
정다이 정다이  
이밤이 지새도록

걸어라 걸어라 청춘들아  
시대가 자라온 예쁜 꽃들아

## 이 기쁨, 이 웃음을 위해

리준

고기 한배 실고왔나  
웃음 한배 실고왔나  
만선의 자랑 안고 닻을 내리니  
반겨맞는 정든 포구여  
너는 온통 기쁨에 끓는구나

푸른 수건 날리며  
기다린듯 다가서는 계수원처녀  
오늘도 바다가 베푼 잔치  
한배 가득 그대로 큰상으로 받은듯  
고운 그 얼굴에 웃음가득 피었구나

콘베아 타고 쏟아지는 고기를 받는  
아낙네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  
해빛밝은 창가를 흔들며 울리는  
가공반은 그대로 명절  
온 나라의 주부된 기쁨이 있어  
저마다 그리도 흥에 겨운가

높아가는 웃음소리  
떠들썩한 환호소리  
기쁨의 그 메아리가 불렀는가  
구내길에 드바빠 들어서는 랭동렬차  
기적소리조차 노래처럼 정겹구나

오, 푸른 하늘 아득히 메아리치는 기적소리따라  
내 눈엔 보여와라  
바다 먼 산촌 그 어데나  
흥성이는 생선매대들

더운 생선국 훌—훌 불어마시는  
한가정의 즐거운 끼니때가

이 기쁨 이 웃음을 위해서 아니었던가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내주자고  
그리도 간곡히 말씀하신 수령님  
높으신 그 뜻 가슴에 새기고  
내 오늘도 세찬 파도를 헤친것은

진정 이 기쁨 이 웃음을 위해서였다  
여기서 내 집은 잠깐이면 다녀오련만  
충성의 어로전 한초가 새로와  
불밝은 정든 집 뒤에 남기고  
출항의 고동 바빠 울린것은

아, 이 가슴에 넘치는 보람이며!  
날마다 온 나라에  
이런 기쁨 이런 웃음 안겨주는 자랑을  
아버이수령님  
어로공 우리에게 주셨나니

고기 한배 실고 왔나  
웃음 한배 실고 왔나  
경사로 들끓는 나의 포구여!  
이제 다시 닻을 올려 떠나갈 내 마음속에  
인민의 행복 꽃피가는 그 자랑이 있어  
열백길 파도도 두렵없으리라  
언제나 만선의 노래만 안고오리라!

## 벗에 대한 이야기

리광식

지금 농업과학원 작물재배연구소 00분소에서 연구사로 일하고있는 조일석은 나의 가까운 친구들중의 한 사람이다.

우리는 전공분야는 서로 달랐지만 함께 대학을 졸업하고 분소에서 한날한시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대학을 마치고 연구소에 배치된 우리들의 꿈은 실로 대단했다.

우리 나라 농업과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우리들의 머리속엔 이 하나의 목적과 지향밖에 없었다.

나는 합숙생활을 하고있었지만 조일석이란데는 대학을 졸업하자 인츰 맞이한 안해가 있었고 집이 있었다. 집에 별식이 있을 때는 말할것도 없고 빛다른 맥주 한병만 생겨도 일석은 나를 끌고 집으로 가군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무던한 일석의 안해가 쟁겨주는 식사를 마주하고앉아 밤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곤 했다.

생물학을 비롯한 세계과학발전의 추세에 대하여, 이름난 과학자, 연구사들의 한생애에 대하여, 때로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사랑과 행복에 대하여...

그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는 대체로 견해를 같이 했다.

그랬던 우리들이 갑자기 당의 신임에 의하여 내가 중앙작물재배연구소 실장으로 소환되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를 기회로 우리 둘사이엔 처음으로 되는 심각한 언쟁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분소에 인을 때 상당한 정도로 깊이 교제했던 최진숙이라고 하는 한 처녀와의 관계를 칼로 베듯이 잘라던진 일때문이었다.

최진숙이로 말하면 타고난 미모로 하여 어디에서나 두드러져보이는 녀자였다. 게다가 또 성품과 몸가짐은 얼마나 유하고 부드러웠던지 분소에 온 첫날부터 그는 소내 한다하는 젊은이들의 인기를 완전히 독차지해버렸다.

나 역시 진숙의 미모에 반하여 한동안 자기를 잊었었다.

《자네 요즘 웬일인가? 일은 안하구 노상 서성거리기만 하니말일세.》

하루는 우리 실험실을 찾아온 일석이가 짐짓 얇은 표정을 짓고 물었다.

《좀 내다보게나, 지금 밖에선 한창 신록이 무르녹구있네.》

그날도 창밖에 정신이 팔려있던 나는 속이 뜨끔했으나 아닌보살을 하려들었다. 사실 밖에서는 아

직 실패치를 받지 못한 진숙이가 몇몇 직원들과 함께 화단의 풀을 뽑고있었던것이다.

《허허 신록이 무르녹는다? 자네 가슴속에서 뭐 다른건 무르녹지 않나?》

나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그가 내 마음속을 손금처럼 환히 들여다보고있다는게 뻔했던것이다.

나는 고백하지 않을수 없었다. 일석이가 죄다 알고있기때문만이 아니었다. 이 며칠사이에 나는 벌써 진숙이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든지 내가 어디 멀리로 떠나버리든지 량단간에 결말이 나지 않으면 도저히 일에 전념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고있었던것이다.

《음, 그렇됐군.》

어깨를 치며 한바탕 놀려대리라고만 여겼던 조일석이가 신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그런데 며칠후 진숙은 뜻밖에도 나의 연구조수로 배치되어왔다. 그리고 조수로 일하는 며칠어간에 나에게 바람직도 않던 호의를 베풀었다.

나보다는 몇배나 더 깨끗하고 훌륭하게 생긴 청년들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들을 결눈으로도 거들떠보지 않고 어찌하여 유독 나에게만 그런 호의를 베풀었던지 나는 미처 그런것을 따져볼 겨황이 없었다. 다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의 류다른 친절앞에 눈앞이 핑 돌았을뿐이다.

썩후에야 나는 진숙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에게 박정규 (나) 야말로 분소에서 제일 기대가 촉망되는 연구사라는것을 확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논것이 조일석이라는것을 깨닫고 은근히 놀랐었다.

진숙은 나의 연구사업을 힘자라는것 받들려고 애를 썼고 그저 시키면 시키는대로 내 의사에 진심으로 복종했다.

나도 한때 조수로 일해본 경험이 되는바이지만 보통 탐구의 야심으로 불타는 청년들은 연구조수사업을 일시적관념을 가지고 대하기가 일쑤이다.

그는 연구사의 지시와 분공에 따라 필요한 실험작업도 진행하고 수치도 분석하지만 그런속에서도 자기의 제마를 설정하고 자기의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모르게 애를 쓰는것이다. 그때문에 간혹 연구사의 의도대로 실험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 연구사와 조수사이에 좋지 않은 말이 오가기도 한다.

그러나 진숙은 이런 면에서 전혀 빼외었다. 그는 나의 가장 충실한 연구조수였던것이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진숙을 다시없이 고마운 인간으로

대하게 하였고 그 감정이 결국 열렬한 애정으로 발전하게 되었던것 같다.

다만 한가지 처음에는 열심히 책도 읽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사람 저사람 불들고 묻기도 하던 진숙이에게서 점점 학구적인 태도가 사라져가는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과외시간의 태반을 세탁장에서 보내거나 저자구력을 들고 상점을 나드는 일이 잦아지더니 어느덧 그의 출근가방속에 코바늘이 아니면 참대바늘이 꽂힌 실토리가 나타났다.

밤새워 일하다가 책상서랍에서 진숙이가 넣어준 간식을 발견하게 될 때에도, 한겨울날 양털내의의 포근한 감촉을 등어리에 느낄 때에도 나는 웬 일인지 고맙기전에 먼저 서운하였다.

나는 그때 농작물재배에 미치는 초미량원소들의 긍정적영향에 착안하고 여러 방면에 걸치는 효파시험을 진행하고있었는데 진숙은 시험계획서에 반영된 나의 의도와 요구 그리고 이 사업이 가지는 일련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있지 못하였으며 가끔 설명을 해주자고 해도 과학의 세계를 파고들려는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나는 몹시 안타까웠으나 내색하지 않고 인제 차츰 나아지겠거니 자신을 달래곤하였다.

그러나 날과 달이 흘러가도 우리들의 대화는 다정은 할지언정 사색깊은 탐구자들의 대화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연구사동지 인젠 무슨 일을 할가요?》

이태가 지난후에도 진숙은 매번 이렇게 물곤하였다.

《별책 다 끝냈소? 잠간 기다리지. 내 인제 일감을 주겠소.》

내가 이러면 그는 방긋 웃어보이고는 휴계실로 내려간다. 그리고는 열심히 뜨개질을 시작하곤하였다. 새끼손가락과 무명치에 실오리를 감아걸고 연신 손때에 절은 바늘끝을 엿바꾸어가며 실코를 꿰나가군할때면 그는 누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못한다. 한코를 꿰 다음엔 또 다음코를 꿰고...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계와 같은 동작에 싫증을 느끼지 않고 것처럼 진지할수 있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네가 하도 안타까운 나머지 조일석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비칠라면 그는 그저 찰쩍 웃으면서 《세상에 크구 단 참외란 없는 법이야.》하거나 《그래서 애인이라질 았나. 자네가 잘 도와주게나.》하곤 하였다.

《진숙동무, 요즘 무슨 책을 읽소?》

어느날밤 산보끝에 내가 물었다.

《책말입니까? <유전의 비밀>을 읽습니다. 한테...》

《아니 아직두 그걸...?》

그것은 내가 진숙을 위하여 한달전에 빌려준 흥미있는 참고서적이었다.

《아이, 어디 시간이 있어야 말이지요?》

진숙은 게으름뱅이들의 장타령을 외우고있었다. 그들은 잠자는데와 놀음을 노는데 시간을 푼푼히 제공하고나면 독서시간을 짜낼수 없는것이 안타까운것이다.

《진숙동무, 독서는 결코 여가에 하는 심심풀이가 아니요. 사색과 탐구와 독서야말로 우리 생활의 전부가 아니겠소. 이왕 이 길에 들어선 우리들로 써야 무엇으로 당에 보답을 드리겠소? 오직...》

나는 진숙을 타이르려 하였다. 그러자 그는 뒤로 돌아가 내 등에 얼굴을 묻으며 수줍게 웃었다.

《아이참... 호호호.》

《왜 그러우?》

《저야 뭐...정규동지가 곁에 계시는걸요.》

《?!》

나는 은근히 놀랐다. 그것은 분명 처녀의 수줍은 고백이었다. 그러나 나는 고백 그자체에 놀란 것이 아니라 처녀의 불같이 뜨거운 사랑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뻔뻔한 자신의 가슴에 놀랐다. 내가 진숙이에게서 그런 고백을 얼마나 바라왔으랴. 아니, 내 자신이 진숙이에게 얼마나 그런 고백을 하고싶었으랴. 하지만 나는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이 이처럼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이 두사람사이에 울리게 되리라고는 한번도 예상치 못했었다. 왜 그랬을까? 지내 로골적이였기때문일까? 아니면 너무도 뜻밖이었기때문일까?

아니,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었다. 나는 그 고백속에서 이미 과학을 포기하고 배우기를 단념한 녀자, 일생을 남의 등에 업히워서 살기로 작정한 한 녀성의 모습을 보았던것이다.

그날밤 나는 실망의 상념으로 오래동안 잠을 이룰수 없었다.

반달같은 눈썹과 호수처럼 그윽한 눈매,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칠혹같은 머리와 가름한 얼굴은 얼마나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있는것이라.

그러나 나는 진숙의 미모에서 이전과 같은 매력을 더는 느낄수 없었다. 날이 갈수록 진부하고 공허한 그의 세계가 허무하고 혐오스럽게만 생각되기 시작하였다.

《여보게 우린 연구사가 아닌가?》

어느날 나는 일석을 만나 실토정을 하였다.

《과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피어린 탐구의 길에서 우정두 사랑두 꽃피야 할 우리란 말일세.》

그렇다구 난 꼭 훌륭한 과학자, 연구사만이 내 사랑으로 될수 있다고 주장하는것은 아닐세. 자네의 안해처럼 중학교를 나오고 농사를 짓던 녀자라두 난 반대하지 았아 다만 나는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자기 일에 정통하구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사회와 혁명에 이바지할줄 아는 그런 사랑을 바랄뿐이네.

그런데 진숙은 어떤 사람인가? 연구소에서 당신의 자리가 어디냐고 물으면 그는 남편의 등을 두드릴걸세. 그렇다고 걷어붙이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너잔가? 천만에, 그땐 아마 대학졸업증을 내흔들지도 모르지.

이런 사람앞에서 내가 어떻게 식어버리지 않을수 있겠나? 그가 가진 아름다움, 알고보니 그것이 야말로 진정 빈껍데기뿐일세. 난 그런 아름다움을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인정할수조차 없네.

자, 이게 내 진심일세. 인젠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제는 일석이기도 몹시 난처해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자네의 고충이 그렇게 큰줄은 미처 몰랐네 그러.

하지만 이보게, 진숙의 그 약점이야말루 자네를 믿구 의지하려는데서 나온것이 아니겠나. 그가 자기의 약점을 깨닫구 극복할수 있도록 자네가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게나.》

《그러니 자네 날더러 진숙일 교양하라는건가? 여보게, 미안하지만 난 지금 교양사업을 하구있는게 아니라 사랑을 하구있네. 사랑에 대해서 말하구있단 말야!》

《글쎄, 사랑두 하구 교양두 하면 더욱 좋지 않나?》

《뭐? 사람두 하구 교양두 해? 허허허... 여보게 거 제발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소리 좀 그만하게. 사랑이란 그런게 아닐세.》

나는 그만 기가 막혀 돌아앉아버리고 말았다.

조일석이가 이때처럼 촌스럽고 딱딱하고 실무적인 사람으로 느껴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나의 소환문제가 제기된것은 바로 이무렵이었다. 내가 소환되여온 뒤에도 진숙이에게서는 련련한 장문의 편지가 열흘이 멀다하게 꼬리를 물고 날아올라왔다.

그러나 벌써부터 환멸을 느끼고 피해버릴 구명만 노리던 나에게 있어서 소환은 더할나위없이 좋은 기회였다.

나는 편지를 읽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진숙이 스스로가 모든것을 깨닫고 소리없이 물러서주기만을 바랄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연구소엔 뜻밖에도 조일석이가 나타났다.

《자네 나 좀 보세.》

불일이 있어 올라왔겠지만 그는 모든것을 뒤로 미룬듯 나를 이끌고 정원으로 나갔다. 마가울 찬 바람에 락엽이 덩구는 정원은 환산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마치 못해 일석을 따라 걸었다. 그의 심상치 않은 거동에서 나는 벌써 불길한 자리를 예감하였던것이다.

아니나다를가 가까운 한 정원의자앞에 이르렀을

때 일석은 내앞에 두툼한 편지 한통을 불쑥 내밀었다.

《박정규동지 앞》

결봉의 필적만으로도 나는 그것이 진숙의 편지임을 대뜸 짐작할수 있었다. 진숙이가 생각다못하여 이번에는 조일석을 통해 나의 본심을 타진해보기로 마음먹었던것 같았다.

이런 사랑을 체험해본 사람은 물론 짐작하겠지만 사실 사랑이란 구하기보다는 거절하기가 더 배찬 일이 아닌가 한다, 인제와서 완전히 식어버린 진숙이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숨길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나는 눈앞이 아찔해지기까지 했다.

《자네 도대체 어찌된 셈인가?》

내가 찌뿌둥한 얼굴로 편지를 받아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쑤셔넣자 진작 그러리라고 믿었던듯 조일석이 물었다.

《일석이, 좌우간 예 좀 앉게.》

나는 애써 마음을 농치며 의자우에 걸터앉았다. 그러나 그는 내가 원하는 자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담배만 한대 꺼내물었다.

《어서 말하게, 난 서서도 들을수있으니까. 우선 내가 알아야할것은 자네가 무슨 권리루 순진한 녀성의 마음을 그처럼 간단히 유린해버릴수 있는가 하는걸세.》

《유린이라구?》

《그래, 그건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너절하구 비겁한짓일세.》

조일석의 말은 처음부터 비수처럼 날카롭고 뾰뚱했다. 그러나 나는 인차 그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내가 왜 그를 사랑할수 없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노상 모르지 않는 일석이이지만 진숙이에 대한 나의 결단이 금번 소환을 계기로 로골화되었던것이다.

당의 신임에 의하여 실장으로 소환되자 당장 교만해져가지고 사랑하던 처녀마저 헌신짝 버리듯 했다고 단정할수 있었다. 그런데 이 대쪽같이 결곡한 사나이가 얼마나 격노했을것인가. 진숙의 눈물겨운 하소를 듣고는 친구고 뭐고 당장 일을 내자고 달려왔을 사람이였다.

나는 어차피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석이 나두 사람일세. 내가 어째서 돌아서게 되었는지 그야 자네두 짐작하지 않나. 심장이 식어버렸는데 난들 어떻게 한단말인가.》

《뭐 심장? 그래 자네한테두 심장이 있기는 있었나?》

일석은 랭소를 지었다. 당초에 어떻게 동해올랐는지 오히려 제편에서 얼굴빛이 새까맣게 죽었다.

《너무 그러지 말게. 사랑의 자유야 내게두 있지 않나. 내가 꼭 그 너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그래 어느 법규에라도 밝혀져있단말인가?  
난 무엇을 약속한 일두 없구 지어는 그의 손목  
한번 건드려본 일두 없네.

하지만 설사 그이상 관계를 깊이했다 한들 어쨌  
단 말인가?결혼을 해서 아들딸 낳구 살다가두 뜻  
이 안맞으면 헤어지는 리혼범이란것두 있지 않나?

내가 그리 싸늘하게 식어버린 심장을 가지구 일  
생을 그와 함께 살아야만 그것이 도덕이구 룰리  
인가?어디 대답 좀 해보게.》

속을 터놓고보니 나도 감정이 격해올라서 부르  
졌었다.

《사랑의 자유?》

조일석은 쓰겁게 웃었다.

《자네 사람의 자유란게 달면 삼키구 쓰면 뱉는  
그런식의 자유인줄 아나?

천만에! 우리의 심장속엔 그따위 변태적어구 리  
기적인 자유란 없네. 다만 회색적이구 헌신적인  
창조의 자유가 있을뿐이야!

자네두 눈만 뜨면 탐구와 창조로써 사회와 혁명  
에 이바지한다고 입버릇처럼 외우지?

난 모르겠네, 순진한 처녀의 어린 심장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자네와 같은 정신적허약자, 뺨혈  
의 인간이 과학의 무궁한 세계를 어떻게 정복해?  
응?그것두 항차 자기에 대한 애정으루 끓는 심  
장인데...》

나는 자제력을 잃고 벌떡 일어날번하였다. 그러  
나 이 순간 나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돌아서는

일석의 얼굴에서 불편 살이 푸들푸들 떨리고있  
는것을 보았다. 대뜸 가슴이 찌르르해왔다. 버림  
받은 처녀의 정상이 오죽 가슴아팠으면 저러랴.

《일석이 날 용서하게. 자네 말이 다 옳네. 하지  
만 이 식어버린 가슴만은 나로써두 어찌할수가  
없네그려.》

내가 사과겸 이렇게 말했으나 일석은 대답이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헤어졌다. 진숙이에게서도 더는  
편지가 없었다. 일석이만은 그후에도 가끔 만나곤

하였으나 우리는 피차 끔찍한 상처를 헤치는것  
만 같아서 진숙의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다.

나는 다만 풍편에 진숙이가 분소를 떠나 어느  
협동농장으로 나가버렸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을뿐  
이다. 진숙이와 같은 녀자가 연구소에서 배겨낼수

없으리란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가 협  
동농장에서는 제구실을 꽤 해낼가? 작업반기술지  
도일쯤...?그럴바치고는 분소에서 결혼을 하고 가  
정을 이루는편이 낫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도 들  
었다. 하자고만 했다면 그는 분소의 어떤 청년과  
도 어렵지 않게 교제를 이룰수 있었을것이었다.

아마 첫 사랑이란 이런것인가보았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는 내가 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  
던 첫 이성이었다.

나는 순진하고 섬약한 한 녀성을 모질게도 불  
행한 운명에 밀어넣은것만 같은 피로운 심정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왜 그럴가? 우리가 결합되었더라면 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역시 진실한 사랑은 얻지 못했  
을것이 아닌가?

그러나 매개 인간들에게는 제나름의 기쁨과 행  
복이 있는 법이다. 내가 그들 외면하지 않았던들  
그만은 그래도 지금처럼 불행하게 되지 않았을것  
이 아닌가. 그리고보면 나는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진숙이를 운명의 저쪽 대안으로 사정없이  
밀어

던진셈인가?

아니, 아니다! 절대로 그런것이 아니다!

피로운 상념이 때없이 불쑥불쑥 찾아와 아프게  
가슴을 허비군할 때면 나는 실성한 사람처럼 설  
레설레 머리를 젖군하였다.

홀어머니의 조바심과 이웃들의 극성스러운 주  
선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래동안 때를 놓친 로총  
각으로 남아있게 된데는 분명 이런 감정의 작용  
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내가 진숙  
이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가지고있었다든가, 그에  
대한 자신

이 처사를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던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녀성일반이 모  
두 시들하게 여겨졌다. 누가 제아무리 훌륭한 녀  
성을 소개한데도 그 모든 장점과 우점들이 현실  
적인것으로 감수되지 않고 마음이 끌리지도 동하  
지도 않는것은 스스로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마음에 병이  
생겼다고 걱정이더니 나중에는 그저 모든것을 에  
미한테 맡겨달라고 애원하였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려무나.》

하루는 아침 출근을 하는데 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나오며 은근한 목소리로 부탁하는것이였다.

알고보니 아주 좋은 혼처가 한곳 나섰는데 오  
늘 저녁엔 함께 가서보고 아예 결정을 짓고말자  
는것이였다. 나는 주름많은 어머니의 얼굴을 이윽  
히 내려다보았다. 이밤만은 제발 아들이 반대하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원이 담긴 눈빛을  
발견한 나는 마침내 닥쳐올것이 오고야말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요. 어머니,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아들이 이 한마디 대답에 어머니가 어떻게나  
만족해하시는지 나는 내가 도대체 무엇때문에 여  
적 이런 문제를 가지고 늙은이의 속을 태웠나싶  
어지면서 오늘저녁엔 어떻게나 매듭을 짓고말리  
라는 결심이 절로 섰다.

한데 이날 뜻밖에도 조일석이가 몹시 락망한  
얼굴을 해가지고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조일석은  
그간 고심어린 탐구끝에 올감자의 두벌제배방법  
을 완성하였는데 요즘은 논문변론차로 평양에 올

라와있었던것이다.

《심중한 의견인가?》

나는 논문료해심의과정에 어떤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짐작하였다. 그러나 일석은 심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뿐이었다.

《그럼 더디 편찮은 모양인가?》

《아니.》

《그럼 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거듭 물으며 안달아하자 그제야 그는 불안이 자욱한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여보게, 난 오늘 좀 이상한 소문을. 들었네. 자네가 어떤 처녀와 정혼을 하려 한다는...》

나는 그가 너무나도 뜻밖의 말을 꺼내는 바람에 잠시 어안이 병병해졌다가 마침내 껄껄 웃음을 터치었다.

《허허. 인제보니 자네 귀두 어지간히 밝군 그래. 그건 또 어디서 탐문을 해냈나?》

《그럼... 그게 사실이란 말인가?》

《사실이네. 어찌겠나, 속담엔 중이 제 머리를 제 손으로 깎으라 했지만 난 내 손으로 깎을수밖에.》 내 말은 저도 모르게 비양조로 흘렸다. 사실 그동안 조일석은 내 일신상의 문제를 놓고 단 한마디의 걱정도 할줄 모르는 친구로 변했던것이다.

하긴 진숙을 두고 벌여졌던 언쟁이 우리들 두 사람사이를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흔연히 웃으며 룡담도 주고받았지만 내심 서먹한 감정을 어찌할수 없었다. 어찌다 조용히 회포를 나눌 기회가 생기여도 우리는 서로

구실을 찾았고 그러지 못할 경우라면 얼른저녁이나 한술 나누고는 황황히 자리를 일군하였다. 그래서 나는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벗들간의 우정도 한번 태를 먹으면 그만인가보다하는 서글픈 생각까지 해본 일이 있다.

《그래, 그 너자는 어떤 너잔가? 언제부터 교제를 했다?》

《교제?허허...교제는 인제부터 하게 될걸세.

한데 자넨 내가 정혼을 한다는게 마음에 안드는 모양인가?》

나는 일석의 따지는듯한 태도가 저우기 언짢았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은 들은듯만둔 깍지깁 두손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고개를 들었다.

《여보게 내 친구로서 간절히 부탁한데만 그 결심을 취소하게. 자네한테야 진숙이가 있지 않나.》

《진숙이라니?》

《최진숙이 말일세. 자네가 설마 그를 잊어야 할겠지?》

나는 놀랐다. 내가 최진숙이를 잊을리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 마당에 와서 진숙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조일석이가 더욱 놀라웠다.

《그래 진숙이가 아직 그냥 있단말인가?》

내가 이러자 조일석의 얼굴이 금시 환하게 밝아졌다.

《그냥 있네. 있구말구.》

언제나 고지식하고 눈치에 무딘 그는 이번에도 내 물음을 제나름으로 해석한것이 분명하였다.

《진숙인 많이 달라졌네. 농장에 나갈때까지만해두 그렇지 못했는데》

《달라졌겠지, 세상만물이 다 변화발전하는데 진숙이라고 그대의 그 진숙이로 남아있을수는 없지 않나.》

조일석이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어디로 유도하고 싶어한다는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더욱 가슴이 차가워졌다.

《아니, 난 그런 의미가 아닐세, 그는 그야말로 인생의 새 출발을 시작했어.》

《인생의 새 출발?그것참 반가운 일이군그래. 한데 그게 어땠단말인가?자네 혹시 날더러 그가 훌륭한 녀성으로 되기를 기다리라고 말하자는건 아닌가?》

《기다릴게 있니. 지금이라두 내려가 한번 만나보게나. 그에게 고무가 될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우선 자네 마음이 달라질걸세.》

《아니, 난 달라지지 않네.》

내가 통명스럽게 말허리를 자르자 조일석은 그제야 내 기분에 눈치가 미쳤던지 일순 덩돌한 표정이였다.

《자네 왜 그러나?자네가 뭐 그에게서 굉장한 연구성과를 바랐나?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사회와 혁명에 이바지할줄 알면 그만이라구 했지?그는 벌써 그렇게 살구있네. 진숙이에게 그것만 있으면 다지 뭐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조일석은 거의 애원조였다.

《허허, 그건 그렇네. 하지만 인젠 때가 늦었네. 용서하게만 난 이미 이쪽에다 약속을 했으니까.

자넨 내가 언약을 저버리는 사내가 되기를 바라는건 아니겠지.》

《좋네, 그건 내가 책임을 지지. 그 너자에게선 내가 충분한 리해를 얻겠네.》

《그만두게! 이게 무슨 아이들 장난이란 말인가?》

나는 그만 화증머리가 터져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조일석은 잠시 서늘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다가 조용히 말하였다.

《장난은 바루 자네가 하구있네. 언약은 그래두 취소할수 있지만 유린한 심장은 취소가 안되는 법이야!》

《뭐?》

《내 한마디만 더 하네만 자네가 이번에도 진숙을 그리한다면 정녕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될걸

세.》

《원 천만에! 자네야 말로 지금 나에게 죄될 일을 권고하구 있네.》

나는 굽히지 않고 마주 소리를 질렀다.

한데 더욱 놀라운 일은 뒤에 벌어졌다. 내가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하여 말씀하시었다.

《이 주책없는 에미를 용서해라. 난 네가 그런 맘인줄은 모르구. 옛날부터 장부일언은 중천금이 라 했느니라. 좀 부실한 구석이 있을지언정 한번 정을 붙였던 사람을 아주 버릴수야 없지...》

조일석이가 어머니에게 나와 진숙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는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아연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그가 과연 나의 친구였단말인가?

(일석이, 네가 친구앞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이제 그걸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올것이다.)

나는 맘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나는 일석이가 내앞에 용서를 빌러올 그때까지 어디에도 정혼을 앓기로 독한 마음을 먹었었다 이때로부터 우리를 두사람사이 는 아주 뽕뽕해지고말았다. 잠시후에는 서로의 가슴속에 존재하는 서먹한 감정을 깨닫고 허가 굳어져 덤덤해졌지언정 인사를 나누고 말을 주고받던 때는 벌써 옛날이었다. 가끔 맞부딪치군하는 눈길에는 거의 적의에 가까운 빛이 어리군하였다.

나는 보란듯이 연구사업에만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그동안 초미량원소들이 작물에 미치는 긍정적영향에 대한 연구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나는 논벼농사의 과학화라는 아름다운 과제를 받아안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것은 일석이와의 두번째 언쟁이 있는 그때로부터 근 이태가 되어오는 지난 겨울 어느날이었다.

나는 농업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국농업생산부품기술인물들의 경험발표회에 참가하였다가 아주 뜻밖의 일을 당하였다.

집행부에서 《다음은 <노소와 화석을 섞어쓸 때 물기를 없애고 시비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

이런 제목으로 신평협동농장 기사장 최진숙동무가 발표에 참가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나는 내앞에 어떤 일이 닥쳐왔는지 전혀 예기치 못하였다.

지어는 필기장에 제목을 쓰고 최진숙이라는 발표자의 이름을 적으면서도 그리고 어느새 나섰는지 모를 한 녀성의 다소곳한 모습을 연타너머로 바라보고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저 여기 어디엔가 낮익고 귀에 익은 무엇인가가 있는듯한 막연한 느낌만을 어렴풋이 감촉했을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한찰나, 여기에 진숙이가 참가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식의 무방비에서 비롯된 한순간이었고 오직 발표자들의 참신한 기술적제안과 착상들에만 관심한 도취의 일각이었을뿐, 내가 그를 오래 몰라볼 수는 없었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복채로 갑자기 대고를 때리는듯한 그 벅차고도 놀라운 충격이 무엇에 의해서 어디로부터 환기되었던지 지금도 전혀 기억할수 없다. 아마 내가 깜짝 놀란 나머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던것 같았다. 책상이 기울어지면서 필기장과 원주필이 굴러떨어지고 주면 사람들의 의아쩍은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되는 바람에 그제서야 얼이 빠져버린 자신을 깨닫고 정신을 수습하던 일이 생각난다.

《...저는 이로부터 노소와 화석을 혼합할 때 생기는 물기를 없앴으로써 시비의 기계화를 위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함과 아울러 농장의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나 그때는 벌써 제안의 착상동기에 대한 설명은 끝나고 과학적방법과 원리해명에로 넘어가고있었다.

진숙이는 두가지 비료의 혼합당시에 생기게 되는 물기가 원소들의 화학반응결과에 의한 화합물임을 밝히고 자신은 그 지방에 혼한 사문석을 분쇄하여 첨가함으로써 물기가 없는 전혀 다른 화합물형성으로 반응과정을 유도할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방법의 의의는 그 전혀 다른 화합물이 그저 물기를 없애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비료의 활성을 강화하여 작물흡수능력을 훨씬 높여 준다는데 있습니다...》

진숙은 계속하여 생산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종합한 시험자료들을 제시하는것이였으나 내 귀에는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벌써 그것이 한갓 평범한 현장경험정도가 아니라 기발하고 예리한 착상능력과 대담한 탐구정신을 느끼게 하는 참신한 과학적발명임을 깨닫고있었던것이다. 게다가 또 침착한 거동과 자신만만한 어조에서 흘러넘치는 자기의 주장에 대한 확신은 얼마나 강렬한것인가!

(저게 과연 그 최진숙이란 말인가?)

발표회가 끝나자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작정도 없이 서둘러 밖으로 나온 나는 먼발치에서 진숙이를 기다렸다. 진숙은 다른 사람들이 다 빠져나온 다음에도 한참이나 더 있다가 이번 회의를 주관하는 농업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무슨 말인가를 주고받으면서 걸어 나왔다.

부위원장은 현관에 차가 대기하고있었다. 그가 진숙이더러 함께 타자고 권하는것 같았으나 진숙은 종시 사양하였다. 마침내 부위원장은 차에 올라 떠나가고 진숙이만이 혼자서 현관층계를 걸어 내려왔다.

《진숙동무!》

내가 부르자 진숙은 소스라치듯 어깨를 떨며  
벗어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가서는  
나를 두려움에 찬 시선으로 바라본다. 붉게 상기  
되었던 얼굴에서 점차 피기가 가셔지더니 마침내  
는 백지장처럼 하얗졌다.

《안녕하세요?》

억양이 없는 진숙의 그 허아래소리를 나는 들  
었다기보다 파랗게 질린 입술의 움직임으로 겨우  
짐작할수 있었다.

《이번에 참 큰 일을 했더구만, 축하하우.》

나는 악수를 청하려고 손을 내밀려다가 그만두  
었다. 진숙은 이미 눈을 내리깔고 석상처럼 굳어  
져있었던것이다.

《좀... 걷지 않겠소? 오래간만인데...》

그러나 진숙은 나의 이 제기를 쌀쌀히 물리쳤  
다.

《미안해요. 전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는 이려고나서 돌아서더니 또각또각 인디아  
의 표석을 울리며 걸어갔다.

가슴이 싸늘해나며 등줄기로 얼음물을 끼얹는  
듯한 오한이 출달음쳐 지나간것은 그 순간이었다.

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감하였다. 나는 옹당  
진숙의 심정을 헤아렸어야 했을것이다. 그동안  
무슨 생각인들 안했으랴. 배반당한 그의 가슴엔  
피멍이 들어있을것이 아닌가! 애당초 나는 그의  
면전에 나설수도 없고 어떤 자비를 바랄수도 없  
는 위인인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눈앞에는 방금전  
에 본 진숙의 모습이 사진처럼 진하게 그려지였  
다.

세월은 이미 그에게서도 예전의 그 발랄한 생  
기와 부드럽고 우아한 모습은 앓아갔었다. 하지만  
오늘의 진숙이—별에 타서 가무스름해진 살결과  
어디라 없이 깎인듯한 몸매, 자기자신에 대한 확  
신으로 해서인듯 침착한 눈길을 가진 지금의 진  
숙은 몇배나 더 아름답고 고상해보였다.

허나 그가 제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해보인다면  
들 무슨 소용이랴. 나는 이미 그에게서 저주와 원  
한의 대상으로 되어버린것이다.

고통스러운 번민의 나날은 이때부터 시작되었  
다. 며칠후 진숙이가 보내준 장문의 편지가 아니  
였던들 나는 한뼘 그 번민속에서 헤어나지 못하  
였을것이다.

진숙의 편지를 받는 순간에 느꼈던 기쁨과 환  
희, 초조와 불안의 감정을 여기에 다 적는다는것  
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누군가가 한순간에 웅  
근 한세기를 체험하는것 같았다고 했지만 나 역  
시 편지를 개봉하기까지의 몇순간에 아예 백발의  
늙은이가 되어버리는듯하였다.

《정규동지, 저도 사람입니다. 피가 있구 살이  
있구 정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들 어떻게 첫 사

랑을 잇을수 있구 동지를 잇을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엔 스스로도 자신을 어찌할수  
없었습니다. 사무친 원한과 저주가 너무도 커서,  
절망과 비애의 눈물에 트고 갈라진 가슴이 너무  
나도 쓰리고 아파서...

용서하십시오. 타서 숯이 아니라 재가 되어버린  
이 가슴에 대고 너무 많은 욕은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날의 일이 가슴에 걸리어 사과 겸 이 편  
지를 씁니다.》

진숙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철이 들기도전부터 진숙은 그가 누구이든 자  
기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데만 습관되어있었다.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것이든 무어든 성취되지  
않는것이란 없었으니 그에게 있어서 자기를 위해  
주고 환심을 사보려는 사람들의 성의와 노력이  
어떤때 시끄러울지경이었다. 그러니 그자신이 그  
토록 애정을 기울여 사랑하고 송두리채 일생을  
맡기려고 했던 사람이 설마한들 자기를 배반할줄  
이야 그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그러나 바로 그 《설마》란것이 현실로 되었다.

박정규를 만나러 평양에 올라갔던 조일석은 이  
미 올라가던 그날 저녁에 내려와 있었건만 그를  
찾지 않았었다. 사흘동안이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  
다가 함께 합숙생활을 하고있는 조일석의 시험조  
수에게서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숙은 자기  
의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져버렸다는것을 문득 깨  
달았다.

조일석이가 말 못할 사연을 안고왔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뻔했던것이다.

조일석은 다음날에야 그를 찾아왔다. 노상 아무  
말도 없이 지낼수는 없었던 모양이었다. 가뜰이나  
말주변 없는 그가 땀을 철철 흘리면서 공공 감  
자르는데 무슨 말을 하자는것인지 종잡을수 없는  
것은 둘째치고 진숙이편에서 우선 땀이 나서 못  
견딜지경이었다.

사람이란 얼굴이 고운제 아니라 일이 고운 법  
이다. 당과 수령께 바치는 충성은 설사 그가 둘도  
없는 애인이거나 혈육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이 대신해줄수 없다...빙빙 에둘러 하는 조일석의  
이야기란 대체로 이러한 내용이였다. 요컨데 박  
정규만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뜻인것 같았다.  
진숙이는 하늘이 무너지고 딛고섰던 발밑이 꺼져  
내리는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히였다.

그럴즈음에 분소에서는 또 상반년도사업총화가  
있었는데 여기서 진숙은 동무들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연구사(박정규)가 소환되어간 뒤 그에게  
배속되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할 일을 찾  
아 올리뛰고 내리뛰고 했는데 최진숙이만이 마음  
이 등 떠가지고 어물어물 하는 일없이 세월을 보  
내였으며 얼마전에 있는 연구사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에서도 유독 그만이 합격하지 못하였다는것  
이었다.

그러자 가뜰이나 구석구석에 쓰라린 추억이 남아있는것으로 하여 피로왔던 분소가 더욱 참을수 없는곳으로 되고말았다.

진숙은 마침내 분소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조일석이가 찾아왔다. 절대로 분소를 떠나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죽으나 사나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높여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것이 그의 주장이였다.

《내 인제 출장을 갔다와서는 조직에 제기해서 진숙동무를 우리 실로 데려오도록 할테니 그리 알고 조금만 더 참소.》

조일석은 이렇게 당부하였다.

그러나 진숙이예젠 모든것이 꿈만하였다. 아니 오히려 그런 동정이나 관심이 불쾌했고 그럴수록 더욱 벗어나고싶기만한 심정이였다.

마침 분소에서 근 100리나마 상거해이는 신평리라고 하는 농장엔 아들딸 남매를 다 날려보내고 고향을 뜨기 싫다는 한가지 리유로 혼자 사는 칠순 가까운 고모가 있었다. 전부터 고모는 진숙이를 만나기만하면 자기한테 와서 함께 있자고 했다.

《너자란거야 옛날부터 나이 차면 시집을 가서 아들딸 낳구 세간살이를 하게 마련인데 연구소면 어떻게 농장이면 어떻게단 말이다. 향차 너는 공부도 농사짓는 공부를 했더니 좀 좋으냐?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맞춤형 총각을 골라서 시집을 가면 그만이지.》

전에는 어이가 없이 웃어넘기였던 고모의 말이 생각나자 진숙은 곧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집으로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친척친우들도 있으며 그들에게 의거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지어질수 있었지만 그는 그따위 생각은 하려고 하지부터 않았다.

그는 이미 빛을 잃은 사람이였고 생의 의욕을 잃은 사람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앞날이요 희망이요 하는것들은 아무런 의의도 없는 한갓 객적은 낱말들에 불과했다. 가는곳이 어디이건,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건 그것이 무슨 상관이었으랴.

오히려 그는 이 세상에서 제일 험하고 무서운 가시밭속에 처박혀 덩굴고싶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가혹한 학대의 욕망을 느끼고있었다. 조일석이가 출장을 떠나있는 사이에 해당한 수속을 마친 진숙은 훌쩍 신평농장으로 나와버리였다.

처음 몇달동안은 농장생활이 힘겹기도 하고 여성버성하기도 했지만 진숙은 자금 익숙되어갔다. 여기서는 저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두고 무슨 말들을 하고있을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기나긴 하루해를 가슴을 어이는듯한 실련의 고민으로 채우지 않아도 되였다. 수격수격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한없이 근면하고도 소박한 사람들이 주교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면 천만가지 시름도 다 잊어버리게 되였다. 게다가

작업반장, 분조장을 비롯한 동네사람들이 기울여준 후더운 인정은 그로 하여금 빙하와도 같은 제념의 세계에서 벗어나 차츰 생의 희열과 기쁨을 맛볼수 있게 해주었다.

그들은 진숙이가 힘들어할세라 쉬운 일을 골라 맡겼고 김을 매나가노라면 저마다 제 이량을 먼저 해치우고는 진숙의 이량을 맞잡아 매여들어오곤했다. 풀베기를 가면 제일 좋은 풀판은 진숙이에게 양보했고 그러고도 나중엔 제가 맨 풀단을 그의 풀더미위에 얹어주곤했다.

어찌 그뿐이었으랴, 사람들은 뜰안의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익어도, 떡을 빚거나 다른 지짐을 부쳐도 그를 데리러 아이들을 보내곤했다.

가끔 들리곤하는 조일석이란 아니였던들 진숙은 마을사람들의 이런 사랑과 떠날들림속에서 훨씬 빨리 마음의 상처도 털어버리고 전과 같은 자족과 만족의 세계에 빠져버렸을는지 모른다. 그는 퇴근에 간석지에서의 당해농사방법을 새롭게 탐구해볼 목표를 세우고 신평리에서 멀지 않은 바다가농장에 나와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었는데 진숙은 별로 긴한 일도 없이 오다가다 들리곤하는것 같은 조일석이가 그닥 달갑지 않았다. 그자신은 전날의 친분관계를 잊지 않고 의리를 지키느라고 그러는 모양이지만 진숙이로서는 그때마다 묵은 상처를 헤집는듯한 아픔을 느껴야 했던것이다. 그래서 한번은 제발 잊어주었으면 그편이 훨씬 고맙겠노라는 가시돋친 말을 해서 돌려보내기까지 했다.

한데 조일석이가 마지막으로 다녀간지 며칠 안되는 어느날 작업반에 올라왔던 리당비서가 진숙이를 찾았다.

건강은 어떤가, 불편한 점은 없는가 이것저것 묻고난 리당비서의 말인즉 인체부터는 작업반 기술지도원사업을 맡아주어야겠다는것이였다.

그동안 기술지도원으로 있던 사람이 딴 사업에 조동되면서 결원이 났다는것은 모르는바 아니였으나 그것을 자기가 메꾸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적 없는 진숙이였다.

《비서동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그런 일을 할바에야 제가 뭇때문에 농장으로 나왔겠습니까?》

전 그런 사업을 감당할만한 능력도 없거니와 하고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전 그저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진숙은 불에 덴 사람처럼 펄쩍 뛰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아직 40도 채 안된 젊은 리당비서는 진숙이 말을 별로 타내는 빛도 없이 빙그레 웃었다. 《그야 물론 그렇겠지요.》

그는 서슴없이 진숙의 말을 긍정하였다.

《그지 시키는 일이나 수격수격 했으면 상심할일두 없고 오죽이나 편안하겠습니까?그전 나도 압니다.》

난 그래서 진숙동무 편안히 해주자고 해서 하

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생을 해주었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마다 험하구 편안하기만을 바란다면 어렵고 힘든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누구나 다 내가 어렵구 힘든 일을 맡겠다고 나선다면 그때 실상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하는 일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숙동무?》

전숙은 그만 말문이 막히었다. 답답하고도 침착한 어조때문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사리가 정연한 론리때문인지 진숙은 그이상 더 이의를 표시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진숙은 이렇게 되어 작업반기술지도원사업을 맡아안게 되었다. 리당비서의 제의를 거절할 수없게 된 그는 그저 하는대까지 해보자고, 작업반장도 있고 분조장들도 있는데 내가 걱정할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반장은 반장일이 따로 있었고 분조장들에게는 또 그들대로 자기 일이 따로 있었다. 게다가 또 전에는 그렇게도 다정하고 무렵없던 사람들이 일단 그가 기술지도원으로 임명이 되자 어떻게나 깍듯이 존대를 하고 간격을 두는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지고 다음에는 당황해지더니 나중에는 눈물이 날만큼 안타까워졌다.

반장이고 분조장이고 모두들 진숙의 얼굴만을 쳐다보는 판이었다. 침중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라는가 모판선정은 어디에 하며 어느 모판에 어떤 품종의 벼모를 얼마나 부으라는가...어서어서 지령을 떨어라는것이였다. 농사자체가 완전히 과학농사, 기술농사이다보니 어느 일이고 기술지도원이 관계하지 않고 결론하지 않을 일이란 없었다. 기술지도원이 주장을 세우고 지시를 떨어구어야 그 집행을 위한 작업반장, 분조장들의 조직사업이 벌어지게 되는것이였다.

진숙은 어런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싶은 심정이였다. 당장 발등에 불은 떨어졌는데 물려설데라곤 없었던것이다.

밤새워 책을 읽지 않을수 없었다.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에 못이겨 억지로 읽던 책을 인제는 남의 눈을 기이며 게걸스럽게 읽었다.

앞으로 진행될 영농공정에서 중점은 무엇이며 놓치지 말아야 할 기술적특성은 어떤것인가를 파악해야 했고 지어는 작업반장과 분조장들 그리고 작업과정에 농장원들속에서는 어떤 질문이 제기될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리라는것까지 연구를 해두어야 했었다. 어쨌든 첫날부터 달아오른 머리는 어느 하루도 식을 날이 없었고 긴장감은 자나깨나 늘 꼴을 짝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다나니 자연 평농장원으로서 동네사람들의 사랑과 떠받들림속에서 근심걱정을 모르고 일하던 때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면서 이 무겁고 시끄

러운 직무를 벗어던지고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백번돌군하였다.

첫해농사를 짓고난 다음에야 차츰 그런 마음이 가라앉았다. 당장 벗어던질만한 적당한 기회가 없기도 했지만 그때는 벌써 작업반 기술지도사업에 한결 미련이 트고 경험도 생기면서 처음처럼 허둥지둥하지 않아도 되었던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좀 안정될만하니 리당비서가 또 그를 불렀다. 이번에는 그가 작업반에 찾아온것이 아니라 리당위원회 사무실에서 진숙이 자기를 기다린다고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해서 내려가보니 리당비서가 자기 책상우에 사문석(일명 비누돌이라고도 한다) 한개를 놓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생각에 잠겨있었다.

《진숙동무, 지금 농장이 규소비료 원천때문에 얼 먹구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까?》

리당비서는 그에게 자리를 권하고나서 이렇게 물었다. 전과는 달리 무척 흥분한 표정이였다.

《네, 알고있습니다. 주변에 큰 공장 기업소들이 많지 못하다나니.》

《그래, 동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생각해본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뭐 특별히 생각해본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젊은 리당비서는 속이 타는듯 가늘게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각해본것이 없다니? 그럼 대체 무엇을 생각합니까?당의 품에서 자라나구 당의 배려루 공부를 한 동무들이 당에서 아파하며 풀자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진숙이는 은근히 기가 질려 대답을 못했다. 리당비서의 목소리가 하도 절절하고보니 앉은자리가 웅색할 지경이였다. 그러나 리당비서는 이내 마음을 진정한듯 자기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내가 너무 안타까운 김에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한것 같은데 리해하시오. 내가 진숙동무 좀 와달라고 한건 다름이 아니라 이 사문석을 어떻게 규소비료로 만들어 쓸수 없겠는가 해서입니다. 우연히 팜물도감을 뒤져보는데 이 사문석에 규소성분이 제일 많이 함유되어있다고 적혔더군요. 이걸 그냥 뺄아서 논밭에 내도 되겠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그 규소성분이 작물에 흡수될수 있도록 할수 있겠는지...?》

진숙은 또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내화벽돌과 같은 건설자재의 생산원료로 알려져있는 사문석에 규소성분이 많이 포함되어있다는 소리도 처음이거니와 그보다는 리당비서자신이 직접 규소비료의 원천탐구에 머리를 쓰고있다는것이 더욱 놀라왔다.

《팜물도감》은 그에게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과연 언제한번 규소란 어떤 물질이며 그것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생각이나 해보았

던가?

진숙은 한마디의 변명도 해보지 못하고 리당비서가 주는 과업을 받아안을 수밖에 없었다.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 마을길을 걸어 작업반으로 올라올 때에야 진숙은 사문석의 비료화에 대한 리당비서의 착상이 공상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더우기 자기에게는 어떻게 해보겠다는 초보적인 안조차 없는것이다.

그런데 나는 대체 무슨 담보로 해보겠노라는 대답을 했던말인가?

진숙은 기가 막혀 한숨을 토했다. 그런데 이날 작업반실에 올라와보니 뜻밖에도 조일석이가 와 앉아있었다. 본소에서 떠나서 현지로 나가던 길인데 필요할것 같아서 책을 한배낭 지고 왔다는 것이었다.

《대학교재들두 있구 기술문헌이 실린 잡지들두 있소. 참 여기엔 사문석에 대한 자료들두 있습니다.》 배낭에서 책을 꺼내놓으며 하는 조일석의 말에 진숙은 얼른 고개를 들고 그를 건너다보았다. 사문석이란 소리가 가슴에 푹 미쳐왔던것이다. 불현듯 리당비서가 오늘 나에게 그런 과업을 준것이 이 사람과 무슨 관련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격으로 그러지 않고서야 그가 어떻게 사문석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올수 있었으랴 하는 예감이었다.

아니나다를가 진숙의 예감은 들어맞았다. 그가 아닌보살을 하고 앉아서 사문석자료가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고 하면서 부진을 두드리자 그는 한참이나 의아한 표정을 풀지 못하고있다가 마침내는 《리당위원회에서 무슨 말이 없습니까?》 하고 되물었던것이다.

차츰 말하는것을 보니 진숙이 자기에게 기술지도원사업을 맡기도록 한데도, 이번에 사문석의 비료화를 위한 과업을 주게 된데도 다 그가 관여한것이 분명하였다. 진숙이는 대번에 얼굴빛이 굳어졌다. 꼭 심한 모욕이라도 당한듯 불쾌한 심정이었다.

그는 방금 꺼내들은 책을 다시금 와락와락 배낭에 담았다.

《일석동지, 감사합니다. 동지두 언젠가 말씀하셨지요. 사람이란 얼굴이 고운게 아니라 일이 굵다구...전 얼굴도 별반 굵지 못하지만 일은 더욱 굵지 못한 여자랍니다.》

조일석은 방안이 울리도록 크게 웃었다.

《허허허아직 잊지 못하고있는걸보니 무던히도 가슴에 맺혔던모양이로군요.》

《아니요. 저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라싶어서 기억해뒀을뿐입니다.》

진숙의 혼연한 대답이었다. 그런 표독스러운 말을 어떻게 것처럼 혼연히 뱉을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놀라울 지경이었다. 그제는 조일석이도 웃음을 거두고 진심이 어린 목소리로 사과하는것이였

다.

《진숙동무, 용서하우. 난 그때 다르게는 말할수가 없었소.》

《아이참, 제가 뭐랍니까? 자, 딴 생각일랑 마시구 더 어둡기전에 떠나십시오. 이결 또 지구 가시자면 얼마나 고단하실가?》

진숙이는 자못 걱정스러운 태를 지어보이기까지 했다.

《그러지 말구 두구 참고하우. 지금 구소비료원천 탐구가 농장에서 얼마나 절박한 문제요?》

《네, 그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석동지를 비롯한 연구소의 여러 훌륭한신분들께 기대를 걸고 있답니다.》

조일석은 어이가 없었던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허파가 빈 소리로 꺾꺾 웃으며 일어섰다.

조일석을 바래우고 돌아온 진숙은 방한가운데 놓인 책배낭을 붙들고 소리없이 울었다. 이러나 저러나간에 조일석은 자신을 위해 책배낭을 지고 100리길을 온 사람이였다.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그릇은 고사하고 듣기 좋은 말 한마디 못해 보내는 자신은 대체 어떤 인간인가?

진숙은 차츰 독버섯모양으로 변해가는 자신이 너무나도 무섭고 놀랍고 부끄러워서 물었다.

이튿날 작업반에서 잠시 말미를 얻은 진숙은 조일석이가 나가있는 바다가농장을 향해 떠났다. 두고 간 책배낭도 돌려주는점 잊지녀의 무례한 언동을 사과하고 그것으로써 그와의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릴 작정이였다.

그런데 이날 진숙은 동구밖을 채 벗어나기도전에 관리위원회쪽에서 올라오는 조일석이와 마주쳤다. 잊지녀에 곧장 현지로 나가지 못하고 농장합숙에서 류한 모양이였다.

《아이 마침이로군요. 책배낭입니다. 전 현지로 나가신줄만 알구...》

진숙은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책배낭을 발견한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참담하게 이그러지고 있었던것이다.

그는 서둘러 담배를 찾느라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그것이 참을성을 발휘해야 할 때 그가 하는 버릇이라는것을 진숙은 이미 알고있었다. 담배를 붙여무는 그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였다.

《진숙동무, 왜 자꾸 이러우?》

《네?》

《왜 자꾸 이러는가 말이요?》

《그건 언제부터 제가 좀 묻자던 말이군요. 일석동지야말루 정말 왜 이럽니까?》

제가 가슴에 어떤 상처를 안구 나왔다는거야 누구보다두 동지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제발 건드리지 말아달라구 제가 몇번이나 당부했습니까? 그런데...》

진숙이가 먼저 설분을 시작했다.

《건드리지 말아달라구?》

조일석은 진숙의 말끝을 따라 외우더니 별안간 단호한 어조로 언명했다

《아니, 난 동무를 가만둘수 없소!》

《...?》

《동무는 그저 시키는 일이나 수직수직 하면서 편안히 살아보자고 농장에 나온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루 그렇게는 안됩니다.

대체 누가 동무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소?누가 현실을 외면하구 돌아앉아서 편안하게 살 권리를 동무에게 주었는가 말지요?》

진숙은 무슨 말이든 해야 할것 같았으나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다. 왜 그런지 자꾸 가슴이 얼어 드는것만 같다.

《동무의 그 안일한 생활태도가 어떤 결과를 빚어냈소?동무는 마치 자기의 가슴에만 아픈 상처가 난것처럼 말하는데 딴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리라구 생각하우?정규의 가슴에두 내 가슴에두 일생토록 지워지지 않을 피멍이 들었던말이요. 누구때문에?바로 동무때문에, 동무의 그 안일하구 비겁한 생활자세때문에!

동문 그런 자신이 억울하기전에 먼저 죄스러워야 하구 부끄러워야 하우. 나라가 먹여주구 입혀주구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킨 동무가 아니요?

그런데 수직수직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맘편히 살겠다구?동무에게 의리가 있소? 초보적인 인간적량심이 털끝만치라도 남아있는가!》

채적인들 어찌 이보다야 더 아프랴. 마치 가슴에다 광광 대못을 박는것만 같았다.

진숙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흙을 쥐어뿌리며 울었다.

《가라요, 가라요, 못되두 내가 못되구, 망쳐두 내가 망쳐요,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권리루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무슨 권리루 이렇게 남의 가슴을 허벼요?》

《권리가 있소! 동무와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의 권리요!》

조일석이가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마주 소리를 질렀다...

집에 돌아온 진숙은 아예 자리에 드러누워버리고 말았다. 온밤 정신이 흐리멍텅했다. 무슨 큰일이 생긴것 같기도 하고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것 같기도 했다.

《그 망할녀석, 인제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라. 아예 혼쨌를 내놓을테다.》

이튿날 아침 겨우 머리를 들고 일어나 앉으니 영문을 모르는 고모가 진숙이를 이런 소리로 달랬다. 한순간에 전날에 있었던 모든 일이 되살아나면서 무엇인가 날카로운것이 명치끝을 쿡 찌르는듯하였다. 막막한 가슴에는 몸부림치고싶도록 안타까운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막연한 울분과 분노와 절망과 비애의 감정과 함께 가득히 차오르는 것이었다.

초보적인 인간적량심이 있는가고, 동무와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의 권리라고 하던 조일석의 웨침소리가 귀전에 쟁쟁히 울려오는데 가슴속에서는 무엇인가 사나운것이 미친 말처럼 네굽을 안고 날뛰면서 모든것을 부정하고있었다.

진숙은 그만 고모의 무릎에 어푸러지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렇게도 많고많은 눈물이 사람의 몸 그 어디에 간직되어있었던지 모를 일이었다.

이날 조금 늦어서야 출근을 했던 진숙은 작업반장에게서 한장의 편지를 전해받았다.

《연구사동무가 어제밤 눈한번 못붙이고 앉아서 담배만 피우더니 아침에 이 편지 한장만 써놓구 떠나갑디다.》

반장이 편지를 내주며 하는 말이였다. 진숙은 어쩐지 가슴이 쫄 했다. 조일석이가 어제밤 이 작업반실에 와 앉아있었다는것이 우선 심상치 않은 일이였다. 그가 장밤 담배를 피우며 무슨 생각을 했던말인가?

진숙이가 얼른 속지를 뽑아 펼치니 낮익든 조일석의 필체가 눈앞에 나타났다.

《진숙동무, 아무리 생각해봐야 어제는 내가 지나쳤던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아프게 생각지 말아주시요.

나는 확실히 동무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칠만한 자격도 없었고 동무를 위해서 한 일도 없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동무의 참된 동지이고 벗이었다면 어떻게 동무들의 사랑이 오늘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동무들의 문제를 개인적인 사생활문제로 여기면서 깊이 개입하려하지 않았으며 일이 벌어진 다음에도 제때에 당조직에 반영할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무의 극히 중요한 개인생활에 대한 파악이 없었던 본소의 당조직은 동무의 농장진출을 방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한 당원의 실책이자 그것이 곧 신성한 우리 당조직의 과오로 번진다는 사실을 나는 여기서 깨달을수 있었습니다.

진숙동무, 본소에서 범한 과오를 씻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어찌 되풀이할수야 있겠습니까. 나는 이곳 당조직에 동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되어 농장에 나오게 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동무가 분발할수 있도록 도와줄것을 호소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리당비서동무도 작업반기술지도원자리에 결원이 생기자 거기에 진숙동무를 세웠을것이고 규소비료때문에 안타까와하다가도 먼저 동무를 생각하게 되였을것입니다. 한 인간의 새 출발을 바라는 당조직의 이

뜨거운 기대와 관심을 어떤 개인의 <조작>으로 여기면서 일종의 모욕으로 감수한다면 그에 더한 배은망덕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 졸렬한 자



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모욕이 아니라 한없이 큰 사랑이구 희망이구 행  
복입니다!...》

진숙은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가슴이 뭉  
클해지며 목너머로 뜨거운것이 자꾸 치솟아올랐  
다...

《...저의 가슴에 서리고 영켰던 얼음장같은 원  
한과 울분과 저주의 덩어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마음이 가슴밑바닥  
까지 폭 쳐져내리자 거기로부터 빠져런 회오의  
감정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인간인가? 나의 사회적 및 인  
간적 가치가 대체 몇푼어치나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귀중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저는 분발하였습니다. 어떻게 분발하지 않을수  
있었겠습니까?

리당비서동지와 조일석동지의 적극적인 뒤받침  
과 방조속에서 다음해에는 소성법에 의한 사문석  
의 비료학에 성공하였고 바로 지난해에는 파악있  
는 사문석을 리용하여 노소와 파석을 섞어쓸때  
생기는 물기를 없애는 방법도 탐구할수 있었습니  
다.

정규동지, 요즘에 와서 전 자주 자신이 걸어온  
순란치 않은 지난 몇해를 돌이켜보곤하는데 그  
때마다 정규동지에 대한 생각을 하곤합니다. 만  
일 그때 정규동지가 나를 버리지 않고 그냥 사랑  
하고 어루만져주기만 했던들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가 하고 말입니다 저야말로 아무것도 하는

일없이 훌륭한 남편의 등에 업혀 일생을 기생충  
처럼 살자고 한 인간이 아니었습니까?

정규동지, 비록 때가 늦어 첫사랑은 잃어버렸  
습니다만 전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 고마운  
제도와 당을 위하여 무엇인가 자기로서의 기여  
를 할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만이 누릴수 있는  
가장 값진 행복을 저는 지금 체험하고있습니다.  
첫사랑이 아무리 귀중하다 한들 어찌 이 행복,  
이 기쁨, 이 보람에 비기겠습니까...》

나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와서 글줄을 가려볼수  
없었다. 미처 손수건을 꺼낼 사이도 없이 텅병  
텀병 편지지우에 눈물이 쏟아져내린다.

진숙이에 대한 나의 사랑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었던가? 그렇다. 언젠가 조일  
석이가 말한바와 같이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너울  
을 쓴 일종의 리기이며 기만이며 변태였다.

조일석이와 같은 사랑이 아니었던들, 바로 그  
와 같은 참사람들로 이루어진 우리 당과 제도의  
품이 아니었던들 진숙은 나의 이 리기적인 《사  
랑》의 희생물로 되었을것이며 나 역시 우리 동시  
대인들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을것이다.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내 이 좋은곳에 태어나 이렇듯 훌  
륭한 사람들속에 살게 될줄을 낳아준 부모인들  
어이 알았으랴...

이튿날 나는 려장을 꾸렸다. 진숙이가 일하고  
있는 신평리를 찾아갈 결심이었다.

## 독자편지

# 앓아서 소리없이 읽지 못할 시를 두고

시를 사랑함은 인간의 감정적요구라고 하지만  
저는 《조선문학》 1990년 4호에 실린 시초 《통  
일열원》을 읽고 시를 삶의 원소라고 하고싶습니  
다.

만약 나의 손에 세계가 다 들을수 있는 마이크  
가 들려져있다면, 나에게 민족의 념원을 읊으라  
면 이 시를 목청껏 읊고싶습니다.

...

만일 이 세기를 넘어 분열을 끈다면

더는 시계들에 태엽을 감지 말라

—시 《통일열원》—

...

력사는 그어떤 랑해를 기록하지 않더라

후손들은 선대의 결과만을 인정하거니

우리 세대가 통일을 못한다면

피와 눈물과 모지름을 그토록 바치고도

후세앞에 머리 들수 없을게 아닌가

—시 《분열》—

《조선문학》잡지를 빠짐없이 읽어오지만 나는  
오늘처럼 울며 공감하며 시를 읊어보기는 처음입  
니다.

누구나 바라는것이겠지만 우리는 시도 통일주  
체의 바로 이런 시들 노래도 바로 이런 피끓는  
선물을 바랍니다.

저는 90년대를 맞은 이 땅의 한 젊은이로서 이  
시를 읽고 다시한번 우리 세대의 어깨우에 놓인  
무거운 짐을 자각했습니다.

나는 농업전선에 선 농장원으로서 논밭의 돌피  
한대를 뽑아도 분계선 콩크리트장벽을 허무는  
심정으로, 한포기의 곡식을 가꿔도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는 마음으로 알뜰히 살뜰히 가꿔가겠습  
니다.

지강도 위원군 화창협동농장 농장원 이성일

## 전망과 현실

김도환

나는 늘 전망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아마도 그것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전망설계원이라는 나의 직업상특성때문인지도 모른다.

전망을 설계한다는것은 결코 미래를 추상적으로 그리는것이 아니다. 래일에 대한 전망을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그것을 설계도면우에 직접 재현하는것이라고 봐야 할것이다. 매우 보람찬 일이다. 하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임무를 겸머지고있는가. 우리의 설계에 따라 미래가 가까와지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지 않는가.

무거운 책임감이 없이는 이 신성한 의무를 결코 다할수 없다.

그래서 나는 늘 환상속에서 살다싶이한다. 미래를 그려보는 환상이란 참으로 매력적인것이였다. 나는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오묘한 환상의 세계를 자주 그려보군한다. 그때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무척 세찬 심장의 박동을 느끼군한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시대를 앞당기는 수다한 과학적인 실체들을 척척 얻어내는것이란 사실상 얼마나 기꺼운 일인가?

친우들은 이러한 나를 정열적으로 사색할줄 아는 사람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았고있으며 안해는 그러다가 몸을 상하겠다고 눈빛을 흐리군했다.

어쨌든 나는 자신의 환상력에 대해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또 그 풍부한 환상력때문에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이란 매양 랭정한것이다. 현실은 나로 하여금 자신의 환상력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았고있었다. 오히려 현실은 나의 환상이야말로 빈곤한것이라고 무자비하게 단죄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90년대의 진군길에 힘차게 들어선 철산봉의 현실은 전망설계원인 나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는것 같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력, 석탄, 철강재 생산을 늘이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고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90년대라는 새로운 년대가 시작되자 철산봉에서는 사람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각도로 설명할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이채를 띠는 변화는 철산봉의 기술장비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한것이다.

철산봉에서 일어난 장엄한 진군나팔소리를 들은듯 대형굴착기와 대형자동차를 비롯한 새로운 채굴설비들이 수십대씩 편대를 지며 련이어 무산의 철산봉에 들어서고있었다. 모두다 80년대의 설비들에는 대비도 될수 없는 고도로 현대화되고 대형화된 굉장한 기계들이였다. 대형차만 해도 80년대엔 적재정량이 27톤짜리들이 대부분이였다면 지금은 45톤이나 된다. 굴착기 역시 4.5립방짜리였다면 지금은 8립방짜리들이다.

내가 잘 알고있는 광산의 어느 한 지도원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한적이 입었다.

《여보게, 내 이번에 출장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굉장한걸 봤네. 글쎄 무산으로 향하는 설비들이 지금 온통 철길우에 쭉 늘어서있질 않겠나. 당장 무슨 변혁이 일어날것만 같더군. 여기 철산봉에서 말이네.》

그는 몹시도 떠듬거리며 말했다. 흥분할 때마다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입었던것이다. 남보다 특별히 흥분도가 높기때문에 그의 말이 좀 과장되는듯한감을 주긴 했으나 사실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였다.

그 지도원의 말을 들어보면 아마도 현대화되고 대형화된 새로운 설비들이 철산봉을 뒤덮을 모양이였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지난 년대와 90년대를 구획짓는 하나의 변혁을 의미하는것이다. 수많은 년대들을 걸쳐 진행된 방대한 량적축적이 드디어 질적변화를 일으키는 격동적인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할수밖에 없다.

나는 이러한 현실앞에서 놀라지 았을수 았었다.

적어도 90년대말에 가서야 이러한 변혁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멀리 보이

면 그 휘황한 전망을 확신성있게 앞당기고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알수 없는 안해는 아마도 우리의 전망설계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했는지 요즘 나를 매우 밝은 얼굴로 대해주고있다.

《당신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더니 정말 보람이 있구만요. 아까 옥이네 아버지도 말하더군요. 전망설계원들이란 사실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어느날 내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겨있을 때 안해는 이렇게 말하며 눈을 습벅거렸다.

나는 이러한 말을 한두번만 듣지 않았다. 현장에서나 마을에서나 거리에서나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량심적인 가책과 함께 전망설계원으로서의 자신의 무능을 얼마나 가슴아프게 통탄했던가.

우리 설계집단은 사실 80년대초에 벌써 90년대 철산봉의 전망을 설계도면위에 반영해놓았었다.

그런데 우리는 1984년과 1988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무산광산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실무지도해주시는 뜻깊은 순간을 맞이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무산광산의 정광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대담하게 투자를 하여 현존 채굴설비들을 전반적으로 현대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얼마나 현명한 가르치심인가!

절벽에 부딪치는 파도처럼 거대한 충격파가 온 무산땅을 뒤흔들었다.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가 훨씬 더 가까운곳에서 손저어 부르고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 우리 설계집단은 철산봉의 전반적인 설비들을 현대화, 대형화하는 방향에서 80년대초에 이미 만들어놓았던 전망설계를 다시 수정보충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새롭게 보충갱신된 그 전망설계에 의하면 90년대말에 가서 무산광산의 정광생산능력은 80년대에 비해 무려 3배나 늘어나게 되어있었다.

그야말로 통이 큰 설계였다.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당의 요구를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전망설계로 되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철산봉의 현실은 우리들의 그러한 생각을 부정해버렸다. 90년대말에 가서야 이룩되리라.

고 확신했던 그러한 변혁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박두해오지 않았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벌써 일찌기 이러한 변혁을 앞당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채굴설비들을 현대화, 대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하지만 우리는 전망설계를 몇번씩이나 수정보충하면서도 당에서 바라는 그러한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 그래도 내판에는 환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친다고 생각했던만 내가 뛰어오른 도약대란 결국 얼마나 보잘것 없는것인가.

현실의 이러한 비약을 어찌 환상의 빈곤, 자신의 무능으로써만 비교해볼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진 비약이 아니기때문이다. 당에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오고 준비해오던 그것이 드디어 현실로 되었음을 다는 자랑하지 않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번에 또다시 함경북도 내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제철 제강소들에 필요한 방대한 량의 철정광을 원만히 대주자면 채굴설비들을 만가동시켜 당면한 생산을 보장하면서 생산능력을 더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제 우리 눈앞에는 또 어떤 비약과 어떠한 놀라운 현실이 펼쳐질것인가. 나는 더 높이 비약할 광산의 래일의 모습을 그리며 벅찬 흥분을 받아 안는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후마다 현실은 매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지나간 세월이 증명해주고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간고한 50년대의 불길속에서 60년대의 기적이 태어났고 또 60년대의 기적속에서 70년대와 80년대의 비약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렇다! 당의 령도를 받는 위대한 현실이 휘황한 전망을 낳고 또 그러한 전망이 더욱 위대한 현실을 꽃피우는것이다.

내 비록 비약되는 현실앞에서 자신의 환상력에 대한 불만을 느끼곤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 고민으로 되는가!

부단히 비약되는 현실, 비상한 속도로 앞당겨지는 미래!

이러한 현실속에서 살고있다는것은 정녕 세상에서 더없이 행복한 일이다.

# 인간학의 높은 경지를 특색있게 개척한 빛나는 화폭

—장편실화소설 《탐구자의 한생》에 대하여—

김성해

## 1. 높은 문학세계를 담보해주는 철학적인 인간문제의 깊이있는 탐구

두툽한 장편실화소설과 함께 다난한 탐구자의 한생을 더듬어온 독자는 마지막페이지를 덮으며 깊은 상념에 잠긴다.

사색의 심연속에서 우렁이 떠오르는 계응상박사가 독자에게 속삭이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자그마한 누에를 다루는 학자에게도 우주와 말은 무한대한 자유의 공간과 인력권과 같은 거대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누에에서 진리를 찾기전에 수백수천을 헤아리는 은하계에서 새로운 별을 찾는 천체물리학자와 같이 인간세상에서 먼저 진리를 탐색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나도 마침내 비상한 자력권을 가지고있는 신비한 별천지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과학탐구의 세계,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살기때문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70췌 생일상을 받아안은 영광의 자리에서 계응상이 하는 의미심장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볼수 있는것처럼 계응상박사가 일생을 통하여 도달한 진리의 세계는 그가 평생을 바쳐 탐구해온 자연의 신비로운 비밀이기전에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별천지—가장 영광스러운 과학탐구의 세계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철리이다.

인간의 존엄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아껴두시며 세상에 다시 없는 뜨거운 인간애와 믿음으로 무한대의 창조력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 그 품이 있기에 제 나라 땅에서 제 나라 인민들을 위한 과학을 연구하려는 계응상의 필생의 념원도 비로소 실천될수 있었으며 그의 재능도 값높은 영광속에 빛날수 있었던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야말로 전체 조선인민모두가 자기의 존재를 송두리채 말기고 사는 은혜로운 품이며 가장 값높은 삶을 빛내여주는 무궁한 힘의 원천이다.

이처럼 장편실화소설 《탐구자의 한생》(리화)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한 과학자의 일생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기초를 둔 심원

한 철학세계를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이고 있다.

소설은 과학자개인에게 한정된 지엽적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원리가 담겨진 철학적진리를 작품의 사상적핵으로 하고 있으며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는데 도움이 될 심오한 인간문제를 제기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이 내세운 인간문제의 철학적깊이가 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소설은 개인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으로 그치는 실화의 경지를 벗어나 철두철미 공산주의인간학의 참다운 세계를 개척하고있다.

소설은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쫓아올수 있는 참다운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철학적인 인간문제를 깊이있게 해명하기 위하여 이야기줄거리를 한 과학자의 탐구과정으로 설정한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의 혁명적수령관형성과정으로 전환시켰으며 그 어떤 생물학적진리가 아니라 인간세계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기까지의 생활적과정으로 조직해나가고있다.

소설의 전편 《집없는 나그네》에서는 일제놈들에 의해 조국을 빼앗겼던 수난의 시기 계응상이 걸어 온 고심참담한 배움의 길과 탐구과정이 설정되고 있다.

신동이라 불리우며 서당을 졸업한 계응상이였으나 누구도 그에게 배움의 길을 더는 열어주지 못하였다. 뜨거운 애국심을 안고 불굴의 의지와 지칠줄 모르는 정열로 지식의 소중한 탑은 쌓았으나 그의 깨끗한 마음을 받아줄 제 나라가 없어 응상은 피눈물을 삼키며 또다시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의 광둥지방으로 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구사일생으로 세계각지에서 모은 귀중한 누에종자를 안고 조국에 돌아 온 과학자를 맞이한것은 차디찬 감방의 싸늘한 담벽이였고 일본놈들의 비렬한 책동으로 뿔마저 제대로 먹일수 없던 그는 자기 생의 전부라고도 말할수 있는 귀중한 누에들을 굶겨 죽이였다.

허영계 죽어너부러진 누에를 보며 울분을 터뜨리는 계응상의 목소리는 참으로 눈물겹게 독자들의 마음에 파고든다.

《아, 분통하구나. 너희들을 이렇게 몰살시키게 되다니!》

이 집없는 불쌍한 나그네가 깃들이고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볼수 있는 품은 과연 없단말인가?

이와 같이 전면에서는 해방전 계몽상의 생활과정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면서 그가 지닌 남다른 애국심과 함께 인간의 재능과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에서 체험하는 민족적 슬픔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데 형상의 초점을 집중시키고있다.

이것을 형상적전제로 하여 후편 《보석은 빛을 받다》에서는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 안겨 비로소 자기의 평생소원을 마음껏 실현해나가는 주인공의 성장과정이 그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건국사업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계몽상을 불러주시고 한달 누에학자에 불과한 그를, 누에를 부둥켜안고 모대기며 살아온 그를 애국자로 내세워주시였으며 그와 흥금을 터놓으시면서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잠업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릴 방도를 의논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계몽상을 만나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계몽상선생! 우린 백두산에서 일본놈들과 싸울 때 이런 생각을 하군했습니다.

<나라를 광복하고 조국에 개선하면 삼천리금수강산에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리라> 그런데 마침내 우리가 피흘려 싸운 보람이 있어 조국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우리의 조상들이 바라마지 않던대로 이 땅위에 기와집을 쓰고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사는 그런 인민의 나라를 꼭 건설하여야 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이런 성스러운 사업에서 우리와 손잡고 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계몽상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는 수령님의 모습에서 자기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이 나라의 밝은 미래와 인민의 행복을 보았으며 조선의 잠업은 선생에게 맡긴다는 말씀에서 자신에 대한 수령님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느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한없이 열렬한 애국적감정과 인간애에 진심으로 매혹된 계몽상은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조선의 잠업발전에 자기의 모든 재능을 다 바칠 결심을 다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에 떠받들려 계몽상은 마음껏 과학의 나래를 펼치고 우리 나라의 조건에 맞는 수많은 누에품종들을 육종해낼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비단옷을 입히려면 자기의 평생소원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되었고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릴수 있었다.

계몽상은 일제시기에도 미제의 군정하에서도 권력앞에 아부와 굴종을 몰랐으며 정치와 담을 쌓고 도고하게 살아온 신념과 지조가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수령님의 품에 안긴후 그는 비로소 그

어떤 뛰어난 애국심도, 불타는 애국심도 그것을 꽃피워줄 품이 있을 때 빛을 뿌릴수 있으며 과학탐구의 넓은 길도 열린다는 진리를 심장으로 깨닫게 된다.

하여 그는 66살의 로년에 이르러 비로소 자기 손으로 입당청원서를 쓴다.

《본인은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이즈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 나라 과학에 더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영명하신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조직의 일원이 되여야 한다는것을 깨달았으며 조국의 통성변영에 한몫 바치려는 나

의 리상도 조선로동당의 지도하에서만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년로한 이 몸을 당에 받아준다면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겠습니다.》

이 입당청원서의 구절구절은 남달리 꼭절 많고 다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가장 값높은 생을 받아안게 된 계몽상의 심장의 뜨거운 웨침이며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신념의 웨침이다.

이와 같이 소설은 과학탐구로 일관된 일생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정신세계의 성장과정으로, 인간생활의 절대적진리의 탐구과정으로 줄거리를 끌고나가고있다.

계몽상박사가 인생말년에 찾은 이 값비싼 진리, 가장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창조하는 참된 길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만 열릴수 있으며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길에 값높은 삶의 행복을 누릴수 있다는 심오한 사상은 이 나라 전체 인민이 생활을 통해서 체득한 참으로 고귀한 진리이며 사랑과 믿음의 철학에 그 시원을 둔 우리 사회,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결합되어 인류리상사회를 이 땅위에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우리 사회의 원동력에 관한 문제가 담겨진 보편적진리이다.

시대적으로 절박한 의의를 가지는 심오한 인간문제의 설정과 해명으로 하여 소설의 문학세계는 참으로 철학적이며 소설이 주는 여운도 심각하고 사색적이다.

## 2. 참된 과학자의 전형적성격탐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심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으며 시대앞에 지닌 과학자들의 임무는 갈수록 더욱 무거워지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옹계 반영하여 우리 문학에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수령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바치는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협상을 훌륭히 창조하고있다.

독자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는 이러한 문학적 주인공들의 대오속에서 장권실화소설 《탐구자의 한생》의 주인공 계응상박사의 형상은 단연 이채롭다.

작가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계응상의 생활을 여러 각도에서 깊이 탐구하고 그것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전형화함으로써 우리 시대 과학자의 성격적면모를 새롭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인간과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야 가치 있는 인간문제를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다.》**

작품에서는 무엇보다도 계응상의 가슴속에 간직된 순결한 애국심과 민족적량심에 력점을 강하게 찍음으로써 남달리 어려운 길을 걸어왔으며 조국의 생물학분야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웠던 재능있는 한 과학자의 한생이 의지하여온 정신적기초문제를 정당하고도 의의있게 해명하고있다.

계응상이 지녔던 자기 민족, 자기 겨레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그가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과학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할수 있게 한 무한한 정신력의 원천이었다.

그가 19살에 서당훈장의 자리를 뿌리치고 서울로 배움의 길에 나선것은 현대문명에서 멀리 떨어진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있는 조국의 정상이 너무도 가슴에 사무쳤기때문이었고 잡업부문에 일생을 바치게 된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뜨겁고도 순결한 마음이 작용했기때문이었다. 이런 뜨거운 애국심이 있었기에 그는 돈 한푼 보태주는이 없는 말그대로의 악조건에서 자기의 뼈와 살을 고학을 하면서 대학을 마치고 생물학계의 권위자로 될수 있었으며 거액의 재산과 안락한 생활에 대한 그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조국으로 끝끝내 돌아오는것이다. 바다길 수만리를 헤치고 간난신고하여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에게는 제 나라 인민들을 위한 과학을 연구해보려는 뜨거운 념원을 안고 하나하나 모아든 세계각국의 우수한 누에뽕종들이 고이 간직되어있었다.

소설에서는 계응상이 지닌 애국적감정을 혁명적수령관과 결합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승화시키고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은 그 순간부터 수령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과 숭고한 정신에 접하면서 우리 조국의 양양한 미래를 보았고 진정한 애국의 길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데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느꼈기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가슴속에 간직된 애국주의적감정에 대한 깊이있는 추구를 통하여 그가 세기적인 과학자로 성장하게 된 사상정신적기초를 생활론리에 맞게 진실하고 의의있게 해명해나가고있다. 참으로 계응상의 형상은 과학자가 되기전에 애국자가 된 사람만이 자기 민족과 인민을 위하는 참다운 과학자로 성공할수 있으며 과학탐구의 출발점과 최종목적이 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가를 힘있게 가르쳐주고있다.

계응상의 형상에서 작가가 힘을 기울인 측면은 또한 그의 초인간적인 의지와 불굴의 노력이다.

과학탐구의 길은 강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없이는 결코 끝까지 가낼수 없는 어렵고 멀고 먼 초행길이다.

이 험난한 길을 오직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계응상의 생활은 참으로 피눈물나는 자체투쟁과정으로 일관되어있다. 그는 과학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할 모든것을 깡그리 희생시켜온 강하고 독한 인간이었다. 그는 자신뿐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순간의 안일이나 해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요구성을 높였다.

이런 형상을 통하여 소설은 과학계에 찬연한 계응상의 이름은 그 어떤 뛰어난 재능보다도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불굴의 의지와 초인간적노력의 고귀한 열매임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주인공의 형상이 가지는 거대한 감화력이 있으며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는것이다.

계응상은 일단 자기가 옳다고 확신한 과학적진리를 두고는 그 누구와도 타협을 물렸고 양보를 원치 않는다. 이 인간성으로 하여 그는 따로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지만 결코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우리는 고전문헌학과를 공격해나서는 신유전학의 공세로 반동이라는 억울한 루명을 쓰면서도 결코 물러서거나 동요할줄 모르는 계응상의 형상을 통하여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칼끝에라도 올라서는 참된 과학자의 자세와 지조를 생각하게 되며 그의 개성적면모의 일단을 충분히 엿보게 된다.

계응상이 지닌 과학자적인 재능과 신념은 권위이고 공적이 특출한 과학자로서의 그의 성적을 품위있고 진실하게 뒤받침해주고있으며 실화소설의 형태상특성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산

인간으로서의 그의 구체적인 사상과 감정을 감수케 해주는 인간적인 측면을 무시한다면 작품에 그 터지는 성격은 결코 개성적인 형상으로 될수 없다. 더우기 주인공의 생애가 과학탐구로 일관되어있고 원형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건에서 그의 인간적인 측면을 깊이있게 파고들지 않는다

면 성격은 다분히 추상화, 실무화될것이고 인간학의 본성을 규정짓는 산 인간성격이 창조될수 없다.

소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바없는 섬세한 감정과 인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생활세부들에 대한 생동한 묘사와 그의 내면세계에 대한 집요한 추구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계층상의 성격을 감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길가에서 씹어진 복숭아를 주어먹는 아이를 보고 고향에 두고온 아들을 생각하며 하숙비를 측내어 복숭아를 사주는 세부나 그의 생일이라고 어찌다 한번 모여온 자식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썰분을 터뜨리는 딸앞에서 용서를 비는 세부, 장군님께서 선물로 주신 안해의 옷감을 보면서 느끼는 다감한 심리세계가 바로 그러하다.

계층상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특이한것은 그의 순진성과 소박성이다.

그는 과학분야에서는 명망있는 학자였지만 인간생활의 측면에서는 유년시기의 순진성을 놀라울 정도로 보유하고있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의 이러한 성격은 약점으로 되는 동시에 과학외에는 모든것을 관심밖에 두고 살아온 청렴결백한 풍모를 더 부각시켜주며 뚜렷한 개성을 특징짓는 효과적인 공간으로 리용되고있다.

이처럼 소설은 열렬한 애국적감정과 뛰어난 재능, 확고한 과학적신념과 의지로 특징지어지는 계층상의 성격을 진지하게 탐구함으로써 한 과학자개인이 아니라 우리 시대 인간들, 과학자들을 대표할수 있는 리상적인 성격을 탄생시키고있다. 이로 하여 소설의 주인공은 우리 인민들이 잘 알고있는 계층상박사이면서도 동시에 높은 전형성을 체현한 문학적인 인간으로 독자들의 가슴에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긴다.

소설은 우리 시대 과학자들의 성격을 그리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성격적면모를 여러 측면에서 새롭고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시대적성격창조를 지향하는 창작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될것이며 주인공을 문학적전형의 력사적화랑속에 길이 남겨 놓을것이다.

### 3. 독창적인 문학형태의 개척을 위한 창작가의 사색과 노력

작품이 달성한 사상예술적성공의 하나는 우리 나라 문학에서 장편실화소설이라는 독창적인 문학형태를 새롭게 개척함으로써 생활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할수 있는 또하나의 중요한 돌파구를 열어놓은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원형의 실지 생활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작품들이 적지 않았으나 실화소설의 이름을 달고 나온것은 그 레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실화문학이라는 양식이 존재하여왔지만 소설로서의 특성을 뚜렷이 갖추면서도 실화적인 성격을 가진 형태 역시 창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기소설과도 다른 실화소설이라는 양식을 새롭게 개척하는 창작가는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미지의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었을것이다.

그러나 창작가는 부단한 사색과 독창적인 탐구로써 실화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형태의 작품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훌륭하게 창조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보다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는 생활을 폭넓게 반영할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바로 여기에 장편실화소설 《탐구자의 한생》이 가지는 문학사적의의가 있으며 소설가의 작가적공적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실화소설의 형태상특성을 살리는데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실화성과 문학성의 유기적통일을 옹계 보장하는것이다.

실화소설로서의 형태상특성을 살리자면 우선 원형의 생활을 사실 그대로 펼쳐보이는 실화적인 성격을 고수해야 한다. 동시에 예술적으로 전형화된 형상세계를 통하여 보다 의의있고 심오한 인간문제를 철학적으로 해명해나가는 문학과 묘사정신을 생명으로 하는 소설의 고유한 특성이 배제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이 량자중 어느 한 측면이라도 무시한다면 그것은 실무적인 사실자료의 전달에 그치는 실화나 혹은 작가의 예술적허구와 창조적환상의 도수에 많이 의거하는 보통소설로 되어버리고말것이다.

작가는 실재한 원형의 생활에 튼튼히 립각하여 실화성을 견지하면서도 그것을 철저히 전형화하고 생동한 묘사를 폭넓게 전개함으로써 실화소설이 갖추어야 할 문학적품격을 훌륭히 체현시키고 있다.

문학과 실화성의 밀접한 결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가는 무엇보다도 실화자료에 철저히 의거하면서도 거기에 포로된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동적으로 틀어쥐고 문학적으로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해나가고있으며 미를 통하여 독특한 작품의 형태가 요구하는 고유한 특성을 훌륭히 살려나가고 있다. 그의 어린시절 이야기, 배움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 동기, 듣기조차 처절한 고향의 나날과 생물학자로 성장하는 이야기, 해방후 그의 생활로정들이며 그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들은 독자들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알고있는 원형의 생활과 류사하다. 지어 그의 개인적취미에 대한것까지도...

소설은 이와 같이 사실자료의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그를 확고히 전형화하여 예

술적으로 재창조함으로써 개인의 일대기가 아니라 품위있는 문학작품으로 만들고있다.

이 소설에서는 계몽상의 운명발전과정을 세계관발전과정으로 전환시키고 운명적인 사변들을 사상의식의 발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형상의 계기로 리용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생활로정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세계관발전에서 하나의 뚜렷한 계기점을 이루는 사건들을 종적인 깊이가 있게 전개하고있으며 그 과정에 전생애가 말려들어가도록 그리는 원칙을 끝까지 견지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소설에서는 그의 생애에 있었던 수많은 생활사실들을 대담하게 생략함축하고 그의 정신세계를 부각시키며 사상적핵을 밝혀내는 데 필요한 본질적세부들에 힘을 집중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과고들었으며 그외의 생활들은 배경적으로 처리하였다. 바로 이러한 생활세부들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녔으며 과학적재능이 뛰어나고 신념이 투철한 과학자의 전형적성격이 빛나게 해명되고있으며 이것들로 하여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은 참으로 주옥같은 문학적세부들로 되고있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배움을 위한 고심참담한 나날과 과학연구의 다난한 로정이 그가 세계적인 학자로 되도록 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간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고있다.

실학적특성이 강한 소설의 형태상요구를 옹계 살리기 위한 작가의 사색과 노력은 객관적서술과 설명을 위주로 하면서도 주인공의 내면심리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묘사를 적절히 배합해나가고있는 독특한 묘사방법과 문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작가는 묘사를 기본으로 하는 종래의 일반적인 소설작품들에서처럼 분석적이고 폭넓은 여러가지 묘사를 기본서술형식으로 위한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생명과 서술로서 작품을 용의주도하게 끌고나가고있다.

작가는 극적인 사건이나 정황을 펼쳐놓은 뒤에도 좀처럼 자기의 얼굴을 내밀지 않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가하지 않으면서 다음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간다. 특히 주인공의 일생을 서술하고 있는 조건에서 간결하고 박력있게 전진하는 서술은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용이하게 담을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주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소설에서는 객관적설명만이 위주로 되는것은 아니다.

소설은 평소에 내성적이던 계몽상의 성격과 과

학에 대한 헌신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생애의 특성을 옹계 고려하여 가까운 사람들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던 그의 내면세계를 진실하고 적절하게 개방함으로써 성격의 실무화를 철저히 극복하고 문학적성격을 창조하였으며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특성을 원만히 살리고있다. 소설에서는 특히 계몽상의 심중에 차넘치는 애국의 념과 뜨거운 인정세계를 사색적인 심리묘사로 섬세하게 그려냄으로써 주인공에 대한 뜨거운 애착과 사랑의 감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품에서는 심리묘사를 많은 부분에 걸쳐 주면서 계몽상의 정신세계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드러내고있으며 이 강한 묘사정신이 서술문들과 조화로운 융합을 이루면서 소설의 특성을 잘 살려내고있다.

실화소설의 형태상특성을 살리는데서 자서전의 구절을 대목대목 인용한것은 아주 효과적이고 특색있는 방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에서는 그의 운명발전과정에서 하나의 단계를 매듭지어줄 때마다 자서전의 구절들을 적중하게 인용하고있다. 이 구절들은 성격발전단계들을 뚜렷이 구획지어주면서도 작가의 말을 대신한 주인공자신의 이야기로서 소설이 사실자료에 철저히 의거하였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있다. 따라서 이 자서전의 구절은 소설의 실화적성격을 살리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는 효과적인 형상수단이라고 말할수 있다.

×

높은 철학성과 진지한 탐구정신, 해박한 지식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참으로 많은것을 깨우쳐주는 장편실화소설 《탐구자의 한생》을 보면서, 우리 문학사에 새롭게 출현한 장편실화소설이라는 이름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이 소설의 구절구절에 깃들어 있는 창작가의 고심어린 사색과 인간정신의 기사로서의 뜨거운 열정을 무엇보다 강렬하게 감수한다.

당의 작가, 인민의 작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려는 높은 자각을 간직하고 불철주야 자기의 온갖 심혈을 깡그리 바칠줄 아는 사람만이 참된 삶을 위한 투쟁으로 독자들을 힘있게 부르는 이러한 성과작들을 창작할수 있다.

장편실화소설 《탐구자의 한생》은 높은 사상에 술적특성으로 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며 현대문학사에서 뚜렷한 자리를 찾을것이다.



# 금은화피는 땅

동희

남순은 방금 받은 전보문을 읽었다.

《16일 오후차로 도착 영석》

(아니?! ) 남순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외마디 탄성이 터져었다.

울렁거리는 마음속에 그리운 사람의 얼굴이 얼씬거리었다.

남순은 가슴에 전보장을 꼭 대인채 백양나무에 기댔다. 성근 잎새사이로 스며든 해살이 금빛살처럼 눈을 부시게 했다.

(이젠 우리의 소원이 풀리게 됐어요!)

마음속 속삭임은 그대로 눈가에 생글생글 어리었다.

남순이의 이 류다른 기쁨은 단순히 기다리던 남편이 온다는데만 있는게 아니다.

남편이 고향에 온다는건 그가 오래동안 연구하던 새 품종을 완성했다는것을 의미했다.

육종사업이 끝나면 그 재배시험을 바로 고향땅에서 하기로 약속하였던것이다.

무던히도 마음을 흥뜨게만 하던 아이세기와 인연을 끊고 어른스레 결심을 다지였던 10여년전 그들은 바로 이 백양나무가 서있는 둔덕에서 처음으로 그 결심을 간직했었다.

...

고등중학교 졸업을 한해 앞둔 9월.

지망대학을 쓸 용지를 앞에 놓고 앉은 남순은 생각이 많았다.

재간이 있는대로 미술가도 되고싶었고 교원이 되는 희망도 그려보았다.

(어느것을 택할가?) 잘근잘근 입술만 깨물며 망설이는데 옆에서 영석이 물었다.

《남순인 어데 가려구 그래?》

《글쎄...》

남순은 해맑은 얼굴에 그늘을 지으며 대답을 못했다.

《동문 미술가가 되는데 좋을것 같애. 그림재간이 보통이야?》

《난 무엇이든지 다 하고싶어. 교원도 미술가도 다 했으면, 동문 어느 대학에 가?》

《아직 생각중이야, 난 전자공학을 하고싶는데 선생님은 핵물리가 맞는다나, 오늘중으로 결심해야겠는데.》

영석은 씩녕지도 못하고 버르기만 하였다.

그런 일이 있어서인지 그날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봉 떠서 발이 쉼이는 것 같지 않았다.

고개길을 넘어서니 백양나무가 있는 둔덕이 바라보였다.

그들은 마을에 들어설 때면 언제나 이 둔덕에 앉았다 가는것이 습관이 되어있었다.

그곳엔 무성한 가지를 펼친 백양나무가 있어서도 좋았지만 그보다 둔덕우에 한벌 깔린 금은화가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반겨주었기때문에 더 끌리었다. 버릇대로 그쪽으로 발길이 돌려지는데 둔덕에 누군가가 앉아있는게 보이였다.

누런 농립모를 쓰고 휘여든 등에는 회색빛갈의 후렁한 옷을 걸치였다.

낮익은 차림새에 그 앓음새가 리당비서였다. 리당비서아저씨는 키가 무척도 컸다. 론리에 맞게 얼굴도 기름했는데 눈만은 등실했다.

담배를 펍 즐기는 비서아저씨의 입에서는 지금도 연기가 실실 날릴게다. 얼마나 담배를 피우는지 엄지손가락과 장손가락이 다 시누렇다.

아저씨에게 어느 대학을 쓸것인가고 물어머보면 뭐라고 하실가? 난 비서아저씨가 찍는곳에 갈테야. 남순은 자기의 속생각에 점을 찍으며 달려갔다.

《너희들이냐?》리당비서아저씨는 구부정한 어깨를 펴며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순간 남순은 가슴속이 써늘해지며 주춤했다.

언제나 휘여지게 웃던 리당비서아저씨의 눈엔 시름이 한가득 어리고 어깨가 폭 처져있었다.

어찌보면 등실한 눈가엔 그렇게 물기가 어린것 같았다. 기름한 얼굴은 흙빛처럼 컴컴하게 죽어있었다. 여느때처럼 량팔을 벌리며 환히 웃던 그 얼굴이 아니였다.

《아저씨, 어디 아파요?》남순은 눈이 울롱해지며 물었다.

남순은 영석이보다 한발 앞서며 리당비서아저씨의 손을 조심히 잡았다. 꺼명게 한 손잔등이나무등걸처럼 꺾꺾했다.

《글쎄 어제밤에 서리가 왔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듯했다.

남순은 놀란 가슴을 안고 논란을 눈여겨 돌아보았다.

그려고보니 누렇게 익어가던 논벼들이 거명게 죽어있는게 첫눈에도 알리였다.

숨죽은듯한 별관우로는 침침하게 흐린 하늘이

무표정하게 드리워있었다. 꼭 심술궂은 상통처럼 보기도 싫었다.

남순은 조심스레 벼포기를 헤치며 논판에 들어섰다. 도글도글 익어가던 벼알들이 논판에 한벌 깔려있었다.

《어마나 이걸 어떡하면 좋아요?》

《...》

리당비서아저씨는 아무 말을 못했다. 타다남은 나무등걸처럼 거뭇게 질린 얼굴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하얗게 조갈이 핀 입술은 열려질 줄 몰랐다.

남순은 떨어진 벼알들을 주울념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나서자란 고향마을은 물맛도 좋았고 경치도 이룰데 없어 살기도 좋았다. 단지 마을앞으로 흐르는 강북쪽지구가 찬전선의 영향을 받아 그것이 그대로 서리골이 되어 해마다 이렇게 피로움을 당하는게 한가지 흠이다.

들판에 피어난 갖가지 꽃들이 향기를 풍기여도 그 흠은 가리워지지 않았다.

서리골과 잇닿은 이 둔덕만 해도 마치 소가 누운것처럼 밋밋한데 그 등성이에 온통 금은화가 덮여 있다. 이름도 꽃속에 묻히었다고 화담골이건만 어느때부터인지 서리골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말밥에 더 자주 올랐다.

남순은 파들거리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애써 지어놓은 농사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리당비서아저씨의 마음이야 오죽하랴.

먼하늘가에 시선을 주던 리당비서의 입이 열리더니 한숨쉬던 소리가 나왔다.

《이고장 하늘에 실구름만 끼여도 서리피해를 볼가봐 우리 수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데.》

《어마나? 그럼 수령님께서 우리 농장을 알고 계신단 말이예요?》

남순은 치마폭에 담았던 벼알들을 좌르르 쏟치며 일어섰다. 가슴이 후두둑 뛰놀며 얼굴에서 피기가 말끔히 가셔지는듯했다.

영석이도 어지간히 놀래 눈이 둥그래지었다.

《수령님의 수첩장엔 농사를 잘 짓는 농장도 구실을 못하는 농장도 다 적혀있다는나. 지금도 우리 서리골을 생각하시며 가슴아파하실게다. 나라의 술한 일감이 나서겠는데 우리 짐까지 덧실렸구나.

언제면 근심을 끼치는 농장이 아니라 농사를 잘 짓는곳으로 불리우겠는지.》

리당비서는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서아저씨!》

이때까지 꼼짝 않고 서있던 영석이가 바투 다 가섰다.

《난 농업대학에 가겠어요. 서리를 이겨내는 벼종자를 만드는 공부를 하겠어요.》

영석은 가슴을 짝 피고 어른스레 말하였다.

《네가?》 물기가 그렇해보이던 비서아저씨의 눈

가에 한껏 놀라움이 가득찼다.

남순은 후둑거리는 가슴을 조심히 싸쥐고 영석을 바라보았다.

절반쯤 가리운 이마, 그밑에서 녹녹치 않은 작은 두눈이 올라다보고있었다.

리당비서아저씨는 영석이의 잔등을 쓸어내리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비서아저씨는 이윽도록 영석이의 잔등을 쓸기만 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는데 그 마음이면 서리골 난알을 익힐게다.》

그렇게 말하는 리당비서아저씨의 목소리는 한결 열린듯했다.

그때부터 서리골농사문제는 남순이의 가슴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이튿날 영석은 정말 자기의 결심대로 일지망대학란에 농업대학을 써놓았다.

《남순인 어느 대학을 쓰겠어?》

남순은 영석을 바라보았다.

늘 조용하면 눈가가 별로 포릿해지었다. 그의 눈가엔 이미 망설이는 기색이란 찾아볼수가 없었다. 목소리도 류달리 또랑또랑했다.

《난 아무데도 안가고 고향에서 일을 배울래, 고향마을을 내 손으로 가꾸고싶어.》

《?!》

영석은 눈을 홑뜬채 남순이를 바라보기만했다.

마치 처음 보는듯.

남순이도 찬찬히 영석을 바라보았다.

어제밤에 잠못들 때 갈에선 답답하던 가슴이 풀릴것 같지 않았는데 일단 결심을 하고나니 그 지없이 마음이 평온하였다.

남순은 맑은 얼굴에 방긋이 미소를 지으며 혼연히 말했다.

《먼저 대학에 가서 나를 배워줘, 난 일하면서 공부를 할래.》

《그래 얼마든지 배워줄테다. 약속하자.》

다음해 영석은 대학으로 떠났다.

이렇게 헤어져 10여년의 세월속에서 대학을 졸업한 영석은 박사원을 거쳐 연구사가 되고 남순은 관리위원장으로 성장하였다.

남순은 머리를 들었다.

봄벌에 가무잡잡하게 그슬린 동글납작한 얼굴이 드러났다. 해사한 그 얼굴에 자리잡은 눈매며 몸매도 파들이 얇은게 갓 돋은 봄싹처럼 어리여 보였다.

어깨도 넓지 않아 어딘가 연약해보이는 호리한 몸매다. 그러나 수박색 덧저고리를 입은 남순의 모습은 푸른빛이 우러나는 들판과 어울리어 얼마나 싱싱한지 몰랐다. 아래도리를 감싼 같은색의 바지단까지 하늘색 사출장화에 날씬하게 감춰

지어 삼십나이의 젊음이 팽팽해 흘렀다.

그는 늘 이 옷차림이다. 지어는 군에 회의갈 때에도 머리칼을 감췄던 수건만 벗을따름이다.

몸에 배인 그 옷차림에선 들을 안고사는 관리위원장의 체취가 그대로 내풍기였다.

《각각각》

백양나무 가지우에서 공지를 들까불며 까치가 울었다. 기쁜소색을 날아온 당사자라도 되는듯 그 까치가 어간만 귀엽지 않았다.

정말 맞춤형 때에 남편이 온다.

어제도 뿔발확장문제를 두고 오래동안 토의가 있었다. 말썽많은 서리풀이 또 론의감이 되었다.

폐경시킬 때가 되지 않았는가고.

그러나 남순은 완강히 우기였다. 서리풀을 다 치지 않고도 뿔발면적을 보장할수 있다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희소식이 날아왔다.

그래서 비서동지도 흰쌀밥에 흰떡, 차떡이 곁쳐진 날이라고 기뻐한게지.

남순은 눈가에 미소를 띠며 속삭이였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구나. )

×

영석은 정말 낮차로 고향마을에 도착하였다.

온 마을이 들썩하게 맞아들인 그대로 아래문방이 터지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바람에 그들 부부는 눈길 한번 맞추기도 힘들었다. 남순이가 목수건을 찾아들고 일어서는데 남편이 애들틈을 비집고 따라나왔다. 그의 눈길엔 (오늘은 좀 늦게 나가면 안되오?) 하는 숙대사가 울리고있었다. 남순은 허리를 낮추며 속삭이듯 말했다.

《저녁에 인차 들어올게요.》 그리고는 얼른 빠져 나왔다. 정말 모판준비를 하고있는 작업반들을 한번 돌아보고 인차 들어와 그가 좋아하는 녹두지짐을 부쳐주리라 속으로 별렀다.

방풍장준비가 미진된 3작업반의 모판대책을 세우고 두렁길에 나섰을 때였다.

뜻밖에 수로쪽에 우뚝 서있는 남편이 보이였다.

남순의 눈빛은 반짝 빛났다. 아까 목직한 배낭을 받아들일 때의 환희가 되살아오르며 가슴이 들먹거리기 시작했다.

결에 물려든 사람들이 없었으면, 단둘이 마주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끝없이 나누었으면 하고 바라던 자기 속마음을 들여다본것처럼 귀밀이 빨갭게 달아올랐다.

《좀 휴지 않고 왜 나왔어요?》

《왜 나왔는가구?》 남편이 되물더니 《고향산천도 보고 님도 볼겸...》 하며 눈이 감기게 웃었다.

웃을 때면 향용 그러하듯 커다란 대문이가 드러났다.

남순은 상큼 발길을 뻗었다. 그랬던 남순은 부풀

었던 가슴이 쑥 잦아드는감을 느끼였다.

수면부족으로 피말이 진 남편의 눈때문이었다.

오죽 피로했으랴, 기차를 타고 밤새껏 보고 뺄스를 타고 40리, 그다음 나루배로 왔으니, 그것도 빈몸이 아니라 무거운 책보따리를 지고 들고,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얼굴이 핼썩해보였고 굶던 목도 가늘어져 양복이 다 헐렁헐렁해진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느라니 마치 자기 몸속으로 바람이 스며드는것처럼 느껴지며 목이 움츠러졌다.

《이거라도 목에 감아요.》

남순은 남편앞으로 다가가며 목수건을 끌렀다.

《나 말ियो?》

남편은 질겁하듯 뒤로 물러서더니 《봄바람이 참 좋구만.》 하며 오히려 옷단추를 벗기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감기 들겠네.》

《내 걱정은 말고 당신 몸이나 잘 건사하오.》 하고 은근한 목소리로 다정히 이른다.

하긴 남편은 여간만 단단한 체격이 아니다.

단단한 몸집에 고집스러워보이는 입귀도 여전했다. 단지 새 종자때문에 얼마나 고심했는지 두드러진 이마밀의 작은 두눈이 굵게 쌍까풀지어 커다랗게 떠뽐해지고 코날만 우뚝 살아보였다.

《그새 고향이 많이 달라졌구만, 작년설에 왔었으니가 일년이 좀 남짓했을뿐인데.》

남편은 불어오는 맞바람에도 개의치 않고 두렁에 걸터앉아 감탄을 터치였다.

정말 그새 농장에서는 많은 일을 했다.

눈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새하얀 양수장이 바로 울봄까지 발판개를 끝내고 지은것이고 번번하던 산잔등으로는 과수원이 늘어났다. 이제 3년만 있으면 과일이 주렁주렁 달릴게다. 그밑으로는 새로 논을 풀었지. 2층짜리 덩실한 상점도 바로 작년 가을걷이를 끝내고 지은 집이다.

《이제 보니 여간만 이악쟁이가 아니구만.》

남편이 햇빛에 한쪽 눈을 실그리며 남순이를 바라보았다. 늘 아련하기만 한 당신이 뭘 하느냐고 놀려대던 그 얼굴에 놀라움이 한껏 어리였다.

남순은 방시시 웃기만 했다. 원래 이럴 때는 적당한 대답을 찾지 못하는 남순이지만 남편이 붙여준 《이악쟁이》가 결코 싫지 않아서였다.

시금치가 과랴게 자라난 남새밭너머로 봄아가 씨인양 아지랑이가 사물거리는게 더없이 마음이 흥명거려웠다.

《남순이, 이렇게 나왔던김에 재배시험할 땅을 보는게 어떻소?》

불쑥 남편이 눈빛을 빛내며 훌쩍 일어섰다.

《시험할 땅? 정말 나왔던김에 시험포를 정하자

요.》

남순은 즐거운 마음으로 앞장에 섰다.

문득 눈앞에서 포르륵 종달새가 곧추 날아오르며 끊임없이 울어댔다.

개울가엔 금시 피어날듯 부풀어오른 개나리가 엉켜볼듯 우거지였다.

들판과 잇닿은 앞산에선 삐죽새가 부지런히 울어댄다. 저절로 발걸음이 사뿐거려지었다.

그들의 마음을 무엇보다 기쁘게 한건 푸른 주단인양 풀잎들이 고르르한 등성이에서 금은화임을 본 다음부터였다.

《아니 금은화가 벌써 이렇게 피었네!》

반색하는 남순이옆에서 남편은 어느새 금은화 가지를 꺾어들었다.

《남순이야 금은화를 제일 좋아하지?》

병긋 웃으며 남순의 손에 들려주었다.

《아이참.》

소리없이 웃는 남순이의 눈앞에서 금은화는 싱싱한 잎새를 흔들며 휘날거리었다.

정다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금은화는 남순이의 가슴에 찌릿한 금선을 울려주었다.

...

중학교시절 식물시간이었다. 이날은 식물채집이 기본이었는데 부차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을 발표할데 대한 분공들이 모두에게 차례지었다.

고향마을엔 별의별 꽃들이 다 있었다.

점심때가 기울자 마을뒤산과 들에 헤쳐졌던 학급동무들이 아카시아 꽃향기 흐르는 산골짜기에 모여앉았다.

그들의 손엔 저마다 고운 꽃송이들이 들려있었다. 보기에도 탐스러운 작약, 매력적인 산당화, 아름다운 장미, 이름도 셀수 없는 가지각색 꽃들이 모여드니 한적하던 골짜기가 화려한 화초원 부럽지 않았다.

울긋불긋한 꽃들속에서 동무들은 모두 제꽃자랑을 하느라 열을 올렸다.

뒤편이해도 꽃은 고와야 한다는 남학생들의 주장에 녀학생들도 지지 않았다.

향기가 첫째라는등 색이 첫째라는등 모양이 첫째라는등 모두들 승벽이 나서 떠들었다.

남순은 한켠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섬약해보이는 호리한 몸을 버릇처럼 웅크리고 호하고 가는숨을 내쉬었다.

원래 소곳한 성미지만 오늘은 별로 더했다.

어쩐지 자기가 들고있는 덩굴꽃이 제일 초라해보여 자꾸 주눅이 들었다.

어느덧 자랑어런 동무들의 발표가 이어지며 차례가 다가왔다.

남순은 금은화를 손에 싸안은채 조용히 일어섰다.

《전 이 금은화가 제일 좋습니다!》

그는 서슴지 않고 첫말을 뱉다.

동무들의 시선이 모두 그가 들고선 자란한 흰꽃에 모아지는가싶더니 그것도 꽃인가고 묻는듯한 눈초리들이 그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대번에 얼굴이 빨개지며 마른침이 꼴깍 넘어갔다. 눈앞에선 여전히 하얀 꽃잎이 하늘거리었다.

《이 꽃은 인동덩굴과에 속하는 금은화입니다.

다른 동무들 꽃처럼 화려하지도 못하고 그저 소박합니다. 하지만 그 향기가 얼마나 독특한지 모릅니다. 보기엔 이렇게 휘날휘날하여 무척 연약해 보이지만 생활력이 여간만 강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또 좋은건 잎도 꽃도 그 열매도 모두 귀중한 약재로 된다는겁니다. 꽃은 비록 보잘것 없지만 생활력이 강하고 그 향기가 질을뿐만아니라 사람들에게 리로운 이 금은화가 저는 제일 좋습니다.》

한없는 긍지를 안고 남순은 나뭇이 그자리에 앉았다. 여전히 얼굴은 화끈화끈했지만 가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랐다.

고개를 숙인 남순의 귀전으로 식물선생의 목소리가 찼찼이 들려왔다.

《남순학생은 선생님보다 금은화에 대하여 더 잘 알고있어요. 금은화는 옛날부터 영특하다고 영초라고 불리워왔어요, 우리는 하나를 보아도 단순히 색, 모양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을 보고 평가할줄 아는 습성을 키워야 합니다. 남순학생은 참으로 좋은 꽃을 사랑하고있습니다!》

갑자기 짹짹그르 박수소리가 터지었다.

빙 둘러싼 동무들이 저마다 무엇을 물었는지, 언제 모여섰던 동무들이 금은화를 꺾으려 헤쳐졌는지 분간할수가 없었다.

그저 눈에 띄우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금은화가 이렇게 제일 인기있는 꽃으로 된것이 여간만 기쁘지 않아 눈물이 펄 돌았다.

남순은 금은화 향기를 맡고 또 맡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올 때 슬며시 뒤따라온 영식은 싱글싱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난 남순이가 금은화 자랑을 할줄 알았어.》

《어떻게?》

《금은화가 꼭 남순이를 닮았거든.》

《나를?》

남순이는 까풀이 얇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영식을 바라보았다.

《작은꽃이 하얗구 호리한 남순이처럼 쾌친쾌친한게 신통하단 말이야.》

《그래?》

남순이의 가슴은 느닷없이 설레이었다.

(정말 금은화가 나를 닮았을가? 아니 나도 금은화처럼 그렇게 향기롭고 생활력이 강하다면 얼마나 좋을가? 자기것을 다 바치는 금은화처럼 나에게도 바칠게 있다면...)

문득 쉼날하게 이마전을 마쳐오는 강바람에 남  
순은 주춤했다.

남순은 어리둥절해지었다. 언제 두령길이 끝나  
고 푸른 물결이 흐느적이는 강가에까지 왔을가.

시험포전으로 정할 땅과는 정 반대쪽이다.

그런데도 남편은 벌써 강물우에 떠있는 쪽배안  
에 들어가 노대부터 잡고있었다.

남순은 금은화일을 깨물며 망설이었다. 눈앞에  
서 금은화일이 부추기듯 뱅글뱅글 돌아갔다. 이  
제와서 되돌아가자면 한껏 부푼 남편의 흥을 깨  
뜨리겠지? 하긴 배를 타고가서 강저쪽 들판까지  
두루 밟아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것이다.

마음을 돌린 남순은 기우뚱거리는 쪽배에 얼른  
올라탔다.

새파란 수면이 눈앞에서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  
고있었다.

남순은 배전에서 찰랑거리는 물속에 금은화를  
잠그었다.

강물은 찌릿하도록 찼다.

찌그덩 찌그덩 들려오는 노대소리가 별로 구성  
진 노래소리처럼 귀맛 좋게 들려왔다.

그새 시주근해지였던 일사귀에 금시 생기가 돌  
았다.

남순은 노대소리에 맞추어 금은화 천 손을 물  
속에서 천천히 휘저었다. 그는 이 꽃을 이제 정  
할 시험포전에 심을 생각을 했다.

모내기를 한 논판에서 벼포기들이 새파랗게 모  
살이를 할 때면 금은화 푸른잎도 싱싱 자랄게다.

또 흰꽃들이 활짝 피어나 시험사업을 하는 남  
편에게 그윽한 향기를 풍기겠지? 까만 물열매가  
알알이 여물어가는 금은화 덩굴옆에서 누렇게 익  
어가는 벼포기를 바라본다면,

남순의 가슴은 빠근하게 차오는 행복감으로 숨  
이 다 막힐 지경이었다.

《자 이제 내립시다. 관리위원장님.》

남순은 남편의 톱조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공  
상에서 깨어났다.

어느새 나루배가 강건너쪽에 와닿았다. 자갈이  
박힌 기슭과 배전사이엔 푸른물이 남실거리었다.

건너편 폭 치고는 꽤 넓었다. 그래도 자신이  
있었다.

남순이가 하나 둘 속으로 좀자르며 버르는데  
어느결에 훌쩍 몸이 들리었다.

《어마나!》

남순은 자기를 돌쳐안은 남편의 목덜미를 싸쥐  
며 비명소리를 냈다.

금시 얼굴이 타는듯했고 숨이 팍 막혀왔다.

저절로 꼭 감기였던 눈을 뜨고나니 아직도 남  
편의 가슴에 안긴채였다.

남순은 떠박지르듯 힘을 쓰며 남편의 든든한  
팔에서 풀려났다.

팔딱거리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흠어진 머  
리칼을 매만지었다.

《아이 누가 보면 어쩔려구.》

《좀 보라는거요.》

《아이참.》

남순은 종주먹으로 남편의 넘적한 잔등판을 마  
구 두드리었다.

남편은 들판을 향해 꺾꺾 웃기만 했다. 그러더  
니 제먼저 격석격석 앞서걸었다.

남편의 웃음에 말려들어 상큼 발길을 떼던 남  
순은 어리무춤해지었다.

시험포전으로 가는 남편의 발걸음이 점점 예상  
을 뒤집는게 아닌가?

《아이 어디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야지 않아요?》 남순은 앞산밑으로 돌아간 외통길을 가리키  
였다.

《시험포야 저기 보이는게 적당하지, 그래두 관  
리위원장이 하는건데 시험포야 닭알 노란자위를  
떼주겠지?》

남편은 눈앞에 보이는 논배미를 가리키며 히죽  
이 웃었다.

《예?! 아니 그럼?》

남순은 허아래소리를 내며 숨을 모두었다.

(이제 저이가 뭐라고 했나? 분명 노란자위라고  
한것 같은데 그럼 서리골은? 아니 내가 잘못 들  
었어.)

남순은 마지막까지 기운을 잃지 않고 내달렸다.

퍼그나 앞선 남편을 따라앞섰다.

《저 이것보세요, 그럼 이번에 가져온 종자가  
서리골에 맞는 종자가 아닌가요?》

《서리골? 참 당신은 아직도 그 생각이구만. 남  
순이야 고향땅에서 관리위원장을 하니까 그렇지  
만 나야 어디 고향땅만 생각할수 있소? 이번 종자  
는 다수확종인데 저런 상등포전에서 재배하면 서  
리골같은건 봉창하고도 남는단 말이요. 그러면  
됐지?》

《?!...》

남순은 입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온다기에 애오라지 서리골에 맞는 그  
종자를 기다리었던만...

어쩐지 속히우고 배반당한듯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자기는 왜 남편앞에서 한마디의 말도  
못하는지 그제 더 안타까웠다.

그새 고향을 잊었는가고, 서리골을 잊었는가고  
왜 묻지 못한담.

문득 뒤에서 프락프르 소리가 들려왔다.

남순은 황급히 눈을 슴벅이며 머리에 쓴 수건  
을 다시 고쳐썼다.

《위원장동지!》 하는 소리에 돌아보니 37호를  
몰고다니는 길남이다.

그는 어떻게나 일욕심이 많은지 종달새처럼 언

제나 들에서 살았다. 차머리엔 어느때 보나 삼각 기발이 팔락이었다.

길남은 굵적 인사를 하더니 《위원장동지, 저기 보이는 사람이 영석형님이 아닙니까?》 하고 물었다.

남순은 여드름이 돋은 길남이의 얼굴을 보며 어쭙게 웃기만 했다.

《야 끝내 왔구만요!》 하고 환성을 올리더니 남순에게 프락프락을 물고 떠나갔다.

남순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었다.

이제 소문이 나래를 치며 퍼지겠구나. 관리위원장네 남편이 대단한 종자를 가져왔다고, 그 시험포를 일등포전에 정해줬드라고, 리당비서에게도 그 소문은 곧추 날아갈것이다.

남순은 눈앞이 다 아득해지었다.

비서동지가 얼마나 실망할까, 침통하게 흐려져 담배연기만 날릴 길쭉한 얼굴을 그려보니 숨이 다 막혀왔다.

뭐라고 해야 할까, 입이 열려지지도 않을것 같고 말을 이어나갈것 같지도 못했다.

남순은 이때처럼 관리위원장의 짐을 무겁게 느낀적이 없었다. 만일 농장의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어긋난 일이 생기었다라면 진지하게 타이르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것으로 다 풀리었을것이다.

다른 한편 관리위원장이 아닌 평범한 안해라면 야 얼마나 좋으랴.

어쨌든 남편은 새 종자를 연구하지 않았는가?

이마를 마주하고 종자를 함께 고르고 자기가 담당하여 싹트기를 하고 모판관리공이 되어 일하면 늘 웃음이 방실거릴게다.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두 경우중 어느 하나도 누릴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그것은 자기의것 이 못되었다.

남순은 황황히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마을 뒤산을 붉게 물들이던 저녁노을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있었다.

그 붉은노을빛과 경쟁이나 할듯 청청한 기운을 뿜어대던 소나무밭이 거무스레한 형체속에 묻혀 들고있었다.

잠간사이에 우중충 키를 솟군 앞산이 시꺼멓게 다가왔다. 어두워오는 들판에 그대로 서있자니 혼자 남은 기러기마냥 외로웠다.

남순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새 종자를 도입하는 연구사들에게 땅을 보장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남순은 천천히 걸음을 땀다.

이젠 어차피 시험포를 정할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말대로 그 종자도 역시 귀중한것은 사실일게다.

그렇게 생각하니 눈앞이 좀 트이는것 같았다.

×

어석버석한 첫날이 지나가자 남순은 애써 마음을 돌리었다.

하긴 잊지않고 만났던 리당비서의 말이 효력을 낸탓인지도 몰랐다.

《너무 섭섭해 말라구, 영석인 영석이대로의 세계가 있소, 창공을 날으는 지향이라고 할가?난 이미 영석이가 대학으로 떠날 때 그것을 예감했드랬지, 그의 가슴속에 이 서리골 하나만 있다면 야 대학을 졸업한 연구사 영석이가 아니지. 단지 내가 우려하는건 어디서 무엇을 하던 기본을 놓치지 않는건데...》

리당비서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여기서 말끝을 흐리었다.

남순은 소꿉꿉한 이마를 쳐들었다. 별에 그슬린 리당비서의 미간에 새겨진 굵은 주름살이 눈에 띄이였다. 어쨌서인지 리당비서는 더 말할 생각을 잇은듯 스적스적 담배불만 붙인다.

남순은 슬며시 눈길을 내리깔았다.

(그 기본이라는데 무엇을 의미하는걸가?기본? 기본?)

침묵이 흐르는속에서 남순이의 생각은 외곽으로 파들어갔다.

한참만에 리당비서는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위로했다.

《위원장동무, 마음을 놓읍시다. 아무럼 화담골 땅의 물을 마시고 자란 그 사람이 이 땅을 잇겠소?》

이번에도 그 사람이 자기의 첫종자를 고향에 가져오지 않았소.》

어루쓰는듯한 리당비서의 목소리였건만 남순의 가슴은 내려가지 않았다.

그날밤 먼저 단잠속에 빠진 남편의 숨소리가 차츰 커지자 뜨거운것이 소리없이 흘러나와 베개 잇을 적시였다.

남순은 언제 한번 남편과의 동떨어진 세계를 생각지 못했다. 남편이야말로 그의 생활의 전부였으며 자기자신과도 같았다.

더우기 그들은 손목잡고 뛰놀던 우정으로 결합된 사이다.

남편인 영석의 세계가 따로 있고 안해인 자기의 세계가 따로 있게 된다면 그자체에 벌써 틈이 있는게 아닌가?

남순은 몸부림치도록 안타까웠다.

만일 다음날 우연히 생긴 자그마한 사건이 없었드라면 남순이의 가슴에 자리잡은 서운했던 감정은 사라지기 힘들었을것이다.

이튿날아침 남순은 마음을 다잡았다.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남편이 이왕 서리골에 맞는 종자를 가져오지 않은 이상 아무리 속상해하면 뭘하는가?

그렇다고 남편의 지향을 탓할것도 못되었다.

가슴아픈건 자기대로 왜 밀고나가지 못했는가 하는 자책이었다.

원래 남순은 관리위원장직을 맡기 전전해에 농업대학을 통신으로 졸업하였다.

그때 그는 어떻게든 울버를 만들자고 먼 고산 지대까지 우정 가서 거기에 익숙한 벼과야생물을 떠왔다. 내한성이며 울종인 벼짚종을 만들가 위해선 웅당 이렇게 단련된 야생물과의 교잡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다.

시험사업은 3년간이나 계속되었다. 시험끝에 탄탄하고 여물진 벼대가 얻어지었다. 그런데 재배단계에 들어가니 웬 분리현상이 그리 많은지도무지 수습할수가 없었다. 그 원인부터 알아야 방도가 서련만 도무지 짐작도 할수 없었다.

그해 고향에 왔던 영식은 남순이 사무실에 버젓이 자리잡은 시험포트를 보고 물었다.

《이것도 꽃나무요?》

남순이에게서 사연을 들은 영식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

《참 놀랄만한 노력이군, 이젠 박사논문까지 쓰려구?》

영식은 미소를 띄운채 남순이를 내려다보았다.

《저를 놀리는군요.》

얼굴까지 붉히는 남순이를 보자 영식은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다.

《아니 놀리는게 아니요, 그 정력이 아까와서이지, 남순이, 조금만 기다리라구. 내가 연구하는 새 품종이 거의 완성되어가니까.》

《그래요? 그 재배시험을 우리 고향에서 하지요.》 남순은 바짝 다가앉았다.

《그러찮구, 이때까지 밀진 봉창을 해야지.》

영식은 눈빛을 번쩍이며 방담했다.

그것으로 남순이의 《연구사업》은 끝을 맺었다. 그때 몇해를 두고 기록했던 시험자료도 어느 구석에 있을것이다.

남순은 나직이 한숨을 쉬며 마당에 들어섰다.

오늘은 품을 놓고서라도 그 시험자료를 찾을 생각이었다.

방에는 한가득 펼쳐놓은 책들만 있을뿐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요즘 남편은 낮이면 늘 들판에 나가 시험포정리를 도왔고 들어와서는 책이 쌓인 책상에서 밤을 꽤우군했다.

책상밑에도 그렇게 책이 포개져있었다. 아직 배낭속엔 꺼내지 않은 책도 있다.

남순은 흐트러진 책들을 간추리기 시작하였다. 배낭속의 책들을 꺼내 하나하나 정돈하는데 맨 밑바닥에서 한몽태기의 편지묶음이 쏟아지었다.

(아니 무슨 편지가 이렇게?)

남순은 눈이 둥그래지었다.

무심히 펼치고 읽어나가던 남순은 하던 방안정돈을 잠깐 잊고 편지읽기에 빠져버리었다.

어느 농장 농장원이 보낸 편지는 시험포에서 한창 자라나고있는 논벼 생육실태에 대하여 전했다.

이미 심고있는 품종들보다 비료흡수력이 좋고 충실하다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시험포를 지날때면 온 농장에 퍼질 이 종자를 생각하며 희망을 가진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어떤 농장에서는 시험자료까지 덧붙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어떤것은 농장에서 어떤 평을 받고있다는것까지 그대로 적은것도 있었다. 한마디로 하나같은 찬사들이다.

남순은 편지를 천채 망연히 굳어지었다.

리당비서가 하던 말이 새삼스럽게 상기되며 가슴속이 무뎠해지었다.

잠시 할일을 잊고있는데 방문이 활짝 열리며 벗은 작업복을 한쪽 어깨에 걸멘채로 남편이 들어섰다.

불빛을 받은 그의 온몸이 환하게 돋보이였다.

《일찍 들어왔구만. 오늘은 내가 좀 특식을 할가해서 서둘렀더니 놓쳤는데.》 남편은 대문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남순은 웃고있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티없는 웃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자기의 마음이 한없이 깨끗하고 즐거울 때, 자기가 한일에 그들이 없을 때만 저렇게 웃을수 있다.

《난 이제야 이 편지들을 읽었어요.》

남순은 서운한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 말속에는 이미전에 이것들을 읽었더라면 아마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을거예요 하는 속대사가 그대로 내비치였다.

그러나 그것도 못알아차린듯 《오 그 편지?》하고 남편은 빙싯 웃기만 한다.

아이참 남자들이란 저렇게 덜렁할가?

그러거나말거나 남편은 《이젠 수확고 자료들이 올 때가 됐는데》 하며 혼자소리처럼 뇌이며 문턱에 그냥 걸터앉았다.

주머니에서 수첩만한 계산기를 꺼내더니 편지속에 있던 조사자료를 계산하기 시작하였다.

어깨에 걸치였던 작업복이 문턱에 툭 떨어지었다.

남순은 방바닥에 떨어진 작업복을 집어들었다.

짜릿한 런민의 정이 가슴복판을 훑으며 지나갔다. 언제 생기였는지 입술 귀퉁이에 자그마한 불집이 불룩하게 두드러져있었다. 여전히 쌍까풀이 풀리지 않은 두눈으로 해서 눈확은 푹 꺼져보이였다.

남순은 가슴속에서부터 눈물이 끓어올랐다.

이런 남편을 고깝게 생각한 미안스러움에 온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남편앞에서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이 웅송거려

지는 일은 벌써 두번째다.

그것은 남순이가 백두산이 보이는 농민휴양소에서 휴양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의 일이다.

2월말, 이제 며칠 있으면 3월이런만 고산지대는 아직도 깊은 겨울이었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눈보라속을 뚫고 렬차는 어느 중간역에 멎어섰다.

남순은 혼 혼한 렬차안에서 하얗게 쌓인 눈을 밟으며 개찰구로 나가는 손님들을 바라보고있었다.

손님들은 뽕얗게 쏟아지는 눈발속을 총총히 빠져나갔다. 한무리 내리었던 손님들이 어느새 개찰구 주변에 오구구 모여있었다.

오직 한사람만 철길 건늌길을 건느지 못한채 힘겹게 걷고있었다. 큼직한 들가방, 어깨를 조이는 배낭,

(아유 크기도 해라. )

엄청난 배낭을 보고 놀라던 남순은 눈이 둥그레졌다. 배낭이 낮익어서였다.

언젠가 남편이 종자배낭이 필요하다고곤 곤색새천을 꿰어 만든적이 있다.

좀 크게 고치였으면 하는 눈치에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밑단을 접이식으로 덧대서 만들었더니 남편이 이제야 맞춘하다고 무릎을 지었다.

남순은 굳어 저 《곤색배낭》을 뜯어보았다.

틀림없이 자기가 만든 자루처럼 긴 배낭이다.

곤색천이 모자라 새까만 천으로 잇대였던 끈이 배낭덜개우에서 너털거린다.

(혹시나!!)

남순은 후두둑 뛰노는 가슴을 싸안으며 눈이 아프도록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가 피땀 뒀따르는 학생대렬을 돌아보았다.

낮익은 얼굴이 얼핏 어리는 순간 (맞구나!) 하고 남순은 허아래소리를 내며 차창가에서 물러섰다. 부리나케 승강구로 달려갔다.

학생대렬앞에서 《곤색배낭》이 움직이고있었다.

아니 또 보이지 않는다.

가슴을 꽉 채우는 압박감을 느끼며 남순은 눈을 맑히었다.

아 《곤색배낭》이 보이였다. 얼핏얼핏 움직이더니 벌써 개찰구앞이다.

《아니 이걸 어떡해?》 남순은 타드는 가슴을 이겨내지 못하고 승강구에서 훌쩍 뛰어내리었다.

하지만 앞에 물컾은 학생대렬때문에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발돋움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가슴이 기름가마처럼 빠질빠질 타들었다.

남순은 다시 승강구에 뛰어올랐다.

《곤색배낭》은 벌써 개찰구를 빠져고있었다.

그 순간 기적소리가 울리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르륵》 미끄러진 렬차는 남순이의 마음은 알바 없다는듯 덜럭덜럭 소리를 내며 속

력을 내기 시작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남순은 안타까이 발돋움을 해가며 역사쪽을 훑어지게 바라보았다.

역청사는 점점 멀어지었다.

이젠 눈발속에 가리워 거무스레한 형태만 알리는 무표정한 대지가 그물그물 따라왔다.

숨통치같은 눈발이 약해지더니 휘뿌러지기 시작하였다.

아, 이 눈보라치는 들판에서 그이가 가닿을곳은 과연 어딜까? 그러고보니 남편은 육중한 종자를 지고 재배시험지를 찾아 여기 고산지대까지 온게 분명했다.

남편이 무거운 배낭을 지고 눈길속을 걸어가고 있는동안 불밝은 차창가에 앉아있자니 꼭 바늘방석에 앉은것처럼 송구했다.

그이의 무거운 짐을 덜수만 있다면, 얼어든 남편의 손을 따뜻이 잡아줄수만 있다면,

종시 눈가에서 가랑거리던 눈물은 불을 타고 흘러내리었다. ...

그때처럼 불쑥 눈물이 솟았다.

여전히 이마를 숙인채 계산에 열중한 남편의 모습이 뿌연 망막속에 얼른거리었다.

(내가 너무 웅졸했구나! 넓은 조국땅을 안고사는 저이의 마음을 리해 못하더니, 우리 농장땅은 내가 말아안아야 할걸. )

죄스러움속에서 남순은 자기를 자책하고 또 자책하였다.

남순은 아까부터 시험자료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동안 보풀이 인 종이장우에 적혀진 잉크색이 퍼그나 바래지였다. 파란 잉크색, 까만 원주필로 덧쓴 수자들, 고심의 흔적들이 력렐했다.

농장살림을 할래, 공부할래, 그 틈시간속에서 시험사업을 하던 나날이 우렛이 떠오른다.

어떻게 이 귀중한것을 몽텅 치박을 생각을 그렇게 쉽게 했을까?

가슴이 몹시 쓰라리었다.

아까부터 밖에서 줄금줄금 내리는 비소리조차 온몸을 후려갈기는 채찍소리처럼 여겨지였다.

손기척소리와 거의 동시에 문이 열리었다.

《마침 있구만.》

남순은 귀에 익은 리당비서의 목소리를 듣자 얼른 일어섰다.

가랭이를 걸어올린 리당비서가 물이 똑똑 흐르는 비옷을 든채 들어왔다. ,

《편지가 왔더구만.》 리당비서는 앓을념도 앓고 편지부터 내밀었다.

《예?》 남순은 반색하며 편지를 받아들였다.

《××협동농장 시험분조 김금옥》이라고 써여있었다.

《아이, 주인의 시험분조에서 온겁니다. 그러잖아도 소식을 기다리는중인데.》



《그래?》비웃을 걸고 돌아선 리당비서는 앉자마자 버릇처럼 담배를 꺼내며 어서 읽어보라고 재촉하였다.

남순은 들쭉는 가슴을 안은채 편지를 꺼냈다. 《선생님, 이 품종은 분명 다수확성종자인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수확을 내는 품종이라고 해도 시기를 늦잡는다면 현장에서 그리 호평을 받지못할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농장에선 이 부족점이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분석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초기작황이랑 이삭패기단계까지는 좋았는데 그후부터가 문제입니다. 봄철도 그렇지만 늦여름부터 가을까지의 기후변덕이란 건 잡지 못합니다.

때문에 될수록 앞당겨 수확할수 있어야지 이렇게 여물기가 한정없이 늦어진다면 오히려 다수확성의 우월성은 늦종의 결함으로 가리워지며 알알이 여물어가던 열매까지 쪽정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한성이며 올종의 특성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지요? 물론 올종이며 다수확성을 겸비하는 것 이 육종의 기존공식을 깨뜨리는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육종분야에서 선생님은 많은 대담한 기존들을 깨뜨리지 않았는가요. 다수확성의 복잡성에 비해보면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는 물론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넘길수 없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작은 문제라고느끼지 않는 이상...》

환희로 뿔뿔던 가슴 복판으로 랭기가 좌르르 흘렀다. 남순은 편지를 더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뒤에 무슨 소리가 있을지 두려웠다.

리당비서가 담배를 태우다 말고 남순이를 바라보았다.

《비서동지.》

남순은 고개를 숙이며 편지를 내밀었다.

말없이 남순이의 얼굴만 주시하던 리당비서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입을 꼭 다물고 한자한자 무던히도 잔잔히 읽었다.

(이제 비서동지가 뭐라고 하실가?)

가슴속에서 덩이진 불안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문득 요전날 무엇인가 말할듯할듯 하면서 피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바로 이런 문제를 념두에 둔게 아니었던지.

남순은 리당비서가 편지를 읽고있는 순간이 한나절이나 되는것처럼 지루했다.

숨답담담 침묵은 살을 내리게 했다.

남순은 더 기다려내지 못하고 편지뒤에 붙어있는 수확고 분석수치를 찾아보았다.

첫장부터 마지막까지 열두장이나 되는 결과치들을 단숨에 내리훑었다.

기대하던 수자가 아니었다. 어깨가 폭삭하게 내려앉았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초기 작황까지는 좋았다. 그다음 결실단계부터 매우 완만했

다.

결정적으로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목적인 소출은 어렵도 없었다.

만일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것은 서리골에도 맞는 종자가 된다.

남순의 가슴은 울렁거리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남편의 머리속에 걸려있다는 건가? 생각이 이에 미치자 남순은 와뜰 놀라 고개를 들었다.

리당비서는 여전히 편지장에 눈을 박고 움직이지 않았다.

《비서동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리당비서는 인차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비뿔리는 창밖을 묵묵히 내다보기만했다.

남순의 마음은 비내리는 창밖처럼 눅눅해지었다.

비줄기는 점점 굵어지었다. 하늘은 사납게 변덕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례년에 보기 드문 봄소나기다.

휘뿌러지는 비발속에서 연약한 나무가지들이 몸부림치었다. 뽕얇게 쏟아지는 비발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해의 첫봄소나기이다, 봄소나기는 이 땅의 거점스러운것들을 훨훨 밀어던지기라도 할듯 요란스레 우뢰까지 몰고와 짹짹 내리퍼부었다.

유리창으로는 물방울들이 주르륵주르륵 흘러내리었다. 유리창에 부딪치는 비방울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련속 울리는 딱총같았다.

《알려주어야지, 영석이도 이 내용을 알아야 자기의 결함을 알지, 기본을 놓쳤다는걸 말이요.》

한참만에 리당비서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알아맞췄구나) 가슴이 서늘해지여 얼른 비서의 얼굴을 훑쳐보았다.

결단 보면 여전히 덩뎡한 표정이다. 거칠어진 미간에 굵은 주름살이 하얀 실금으로 뚜렷이 드러날뿐이다.

구부정하게 휘어진 어깨우에 누런 작업복을 후렁하게 걸친 그는 한본새로 창밖만 내다본다.

남순이도 자연히 비내리는 창밖으로 눈길이 돌려지었다. 움푹움푹하게 패여진 마당 곳곳엔 누런물이 고여 져있었다.

남순의 생각은 여전히 한뼘으로 줄달음쳤다.

(정말 그이가 다수확성만 생각하고 그외의것은 작은 문제라고 홀시했을까?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고향의 서리골 생각은 전혀 외면했다는걸 의미한다. 몇몇 선택된 지대에서만 은을 내고 그것으로 자기 명예를 내려고 신경을 돌렸단 말인가?)

《우루루 팡!》 또다시 우뢰가 천지를 울리며 배아리쳐갔다.

봄소나기치고는 곤덕지게 쏟아지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메달랐던 대지에 한참동안 성풍이를 했던모양  
사방에 호수같은 누런 물을 세워놓고야 비발은  
맥을 죽였다.

기승을 부리던 비줄기가 점차 가늘어지었다.  
어찌 물이 불었는지 뒤골짜기로 흐르는 물소리  
가 폭포소리만큼이나 요란했다.

《좀 돌아보겠습니다. 피해가 없는지.》

남순은 울적한 마음을 털어버리며 일어섰다.

《군에 회의를 간다면서? 자, 어서 떠나시오. 돌아보는건 내가 조직할테니.》

《강 이쪽만 보고 그길로 곧장 떠나겠습니다.》

남순은 머리에 썼던 수건을 거울옆에 걸었다.

맑은 거울에 며칠사이 훌쩍해진 얼굴이 얼핏  
비쳐지었다. 남순은 죽간 얼굴이 보고싶지 않아  
얼른 밖으로 나왔다.

머리카락도 걸으면서 대수 쓰다듬었다.

산산이 흩어진 재빛구름이 황황히 쫓겨가면서  
하늘이 흰히 들리었다.

흙센 젖어든 들길을 걸어가는 사이 무거웠던  
남순의 마음은 건허지는 하늘처럼 개어졌다.

봄비속에서 한뼘씩 자란 뽕나무뚝을 지나 풀잎  
들이 저마끔 키를 솟구는 수로뚝에 올라섰다.

그것들은 마치 깨끗이 씻어낸 재 모습부터 보  
아달라고 줄을 선듯싶었다.

죽신죽신한 땅에 포렛이 찍히는 장화자국이 문  
양처럼 나란히 줄을 맞춰 찍혀지었다.

꿈이나 불어난 개울물을 따라걸던 남순은 눈이  
휘둥그래지었다. 별로 앞이 허전하였다.

사위를 휘돌러보았다. 분명 백양나무가 있는  
둔덕인데 눈에 거치는것이 없었다. 무슨 일일까?  
가슴이 뛰놀며 눈길이 허둥거리지었다.

그러던 남순은 《어마나!》 하고 놀랐다.

수십년 자란 백양나무가 허연 뿌리를 드러낸채  
허양 나가넘어져있었다. 방금 해토를 끝낸 땅에  
박혔던 뿌리가 넘쳐나는 황토물을 이겨내지 못  
한 모양이었다. 넘어진 백양나무사이로 황토물이  
논관흙을 사정없이 밀고나가 그 번두리가 번번  
했다.

헤집어진 상처에 소금을 뿌린들 이보다 더 가  
슴이 아프랴, 그렇게 말썽이 많은 서리풀이 또  
입에 오르게 되었다.

아직도 물소리는 요란했다. 기세가 올라있는  
소리를 다 내는 물갈기의 요동이 얼굴까지 튀어  
왔다. 여전히 둔덕을 위협하는듯 시누런 황토물  
이 둔덕을 널름널름 활고있었다.

침침한 얼굴로 둔덕밑을 돌던 남순은 걸음을  
딱 멈추었다.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피어났다.

《아니?!》 남순은 눈빛을 빚내며 둔덕우로 건너  
뛰었다.

점차 물이 빠지는 둔덕우에 한뼘 깔리었던 싱  
싱한 금은화가 드러난것이다.

그 세찬 비바람속에서 거목은 쓰러졌어도 금은  
화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일사귀마다에서 은구슬같은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 신묘한 빛을 반짝반짝 뿜었다.

그 연약해보이는것들이 비바람속에서 살아남은  
게 신기했다. 그러나 신기할것은 없었다. 세상엔  
큰것만 위력한게 아니다. 아무리 작은것이라고  
해도 뿌리를 내리고 소박하게나마 자기를 지켜나  
가는것이 위력한게 아닐까.

마치 새로운 진리나 발견한것처럼 희열이 어리  
고 가슴이 넓어지었다.

한순간이나마 맥을 놓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남순은 들판을 바라보았다.

—눈앞에 패인 논판도 큰문제가 아니다. 이 금  
은화들을 수로뚝으로 옮겨주고 이 둔덕을 허물어  
논판흙으로 보충하자, 그리고 그 교잡시험사업  
을 계속하자, 어쩌면 남편이 가져온 종자의 부족  
점을 이 교잡종이 보충해줄지 알라.

청신한 기운이 감도는 들판은 남순이의 가슴에  
봄물싸같은 희망을 안겨주었다.

비오는 세월엔 돌도 자란다더니 비온뒤끝의 일  
이 이렇게 잘될줄이야.

남순이의 작은 가슴엔 승리자의 패감이 한가득  
어리었다.

이틀후 회의를 끝낸 남순은 고향마을로 돌아왔  
다. 누런 흙탕물속에 싸였던 들에는 맑은물이 흘  
러가고있었다.

그 사이 부풀어올랐던 개나리가 망울을 터치고  
노란 꽃잎을 활짝 펼치었다.

들판은 온통 푸른 기운속에 우적 들러있었다.  
금은화도 퍼그나 컸겠구나. 그 실패진 줄기들  
을 이 수로가에 옮겨주면 인차 뿌리를 내릴게다.

노란개나리와 흰 금은화꽃이 어우러진 개울가  
가 들판의 흥취를 돋우고도 남으리.

남순의 발걸음은 자연히 빨라지었다.

개울을 건너 고개를 들던 남순은 얼떨떨해지였  
다.

백양나무가 있던 둔덕에 프락포르가 서있는게  
보여졌다.

(웬 프락포르일까?저기서 뭘 하는걸까?)

남순은 잠시 그대로 서서 논판쪽을 바라보았다.

(아니 흙을 실는게 아니야?밀려나간 논판흙을  
보충하는 모양이구나!)

남순의 가슴은 기쁨으로 뉘뉘었다.

통통거리는 프락포르소리가 무슨 악기소리처럼  
들려왔다. 차창앞에서 나뭇기는 빨간 삼각기발  
이 팔락팔락 춤을 추는걸 보니 분명 37호였다.

남순은 처녀시절처럼 가쁜가쁜 실개울을 건너  
고 논두렁을 뛰어넘었다.

그렇게 수로뚝에 올라선 남순은 아연해지였다.  
흙이 논판에 뿌려지는게 아니라 반대로 차우에  
올려지는게 아닌가?

분명 누군가가 논판에서 삽질을 하고있었다.

《누가 흙을 파요?》

남순은 소리를 지르며 둔덕으로 달려갔다.

꼭 분별없는 길남이가 무슨 일을 저지른것 같  
은 생각이 들었다.

아닐세라 차머리앞으로 불쑥 나타난건 길남이

가 맞았다.

《위원장동지!》길남은 땀이 번지르르한 얼굴을 숙여 급석 인사를 했다.

《여기서 뭘 하는거예요?》

남순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위원장동지, 백양나무가 넘어갔습니다. 그저께 비에 말입니다. 그바람에 여기 논판이 패여서 떠내려갔습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영석형님 시험포전에 흙갈이를 하려구요. 그 시험포전두 피해를 많이 보았거든요.》

길남이의 눈가엔 장한 일을 하고 칭찬을 바라는 소년처럼 순진한 미소가 찰랑거려왔다.

《뭐라고요?》남순은 눈을 홑떴다.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다.

남순은 차체에 의지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위원장동지!》하얗게 질려가는 남순의 얼굴을 본 길남이가 삽자루를 팽개치며 달려왔다.

《길남동무, 볼썽없이 뻘대구 아예 버리겠어요? 여기두 우리 화답골인데.》

남순은 애써 자제하고 준절히 타일렀다.

《예?여긴 차츰 없어진대구—》얼떨떨해진 길남이가 떠듬거려왔다.

《누가 그래요?》

그러던 남순은 흠칫 가슴을 떨었다.

(혹시 남편이? 설마 남편이 이 땅을 없앨 생각을 했을까? 그럴수는 없어... 어쨌든 여기서 단 한삽도 퍼낼수는 없다.)

반발심이 굴뚝처럼 솟아난 남순은 획 적재함으로 뛰어올랐다. 삽자루를 움켜쥐고 흙을 도로 내리우기 시작했다.

《위원장동지!》어쩔줄 몰라 허둥거리던 길남이가 남순이가 켜 삽자루에 매달렸다.

남순은 눈길도 돌리지 않고 삽질만 해냈다.

꼭 파서 획획 뿌려내리었다. 삽시간에 온몸이 땀에 젖었다.

호리한 그의 몸에선 시퍼런 불길이 확확 뿜어나오는듯했다. 남순은 삽질을 하는속에서도 줄곧 한생각을 했다. 정말 남편이 이 일에 상관없이 없을가? 없을까. 흙을 파오라니까 길남이 혼자서 판단했는지, 아무렴 남편이 이 서리밭을 버릴 생각을 했을리는 없다.

점차 날카롭게 섰던 신경이 누그러지며 가슴도 현현해지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었던 땀방울이 주룩주룩 고랑을 지으며 툭툭떨어 떨어지었다.

이제 남편이 나타나서 《남순이 이제말이요》하고 루루이 설명을 할라치면 우정 새침해있을가. 그러면 그이는 얼굴이 시뻘개져 안절부절 못할게다.

남순은 눈앞에 떠오르는 환영을 그리며 속으로 웃음을 지었다.

그때였다.

《어찌자는거요?》하는 목소리가 차밀에서 들리었다.

남편의 목소리다.

길남이가 안보인다 했더니 아마 남편에게 갔던 모양이다.

부릅뜬 두눈이 남순이를 쏘아보고있었다.

까닭없이 떨리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남편은 숨도 돌리지 않고 재차 물었다.

(어떻게 되다니?) 남순은 아연해지었다.

《여기 흙을 왔다고 그렇게 성을 냈다면서?》

(어쩌면...)

기대에 어그러지는 허탈감이 발끝으로 흘러내리었다. 그자리에 꼭 주저앉을것 같았다.

눈길을 떨군 남순은 가까스로 차에서 내리었다.

땅에 발을 디디려던 남순은 흠칫 놀랐다.

그자리에 짓이겨진 금은화가 너저분했다. 아까는 어떻게 못보았던지.

논판흙을 파내느라 어찌나 돌아갔는지 둔덕우의 그 싱싱하던 금은화가 퍼그나 짓이겨져있다.

남순은 허둥지둥 금은화를 줍기 시작하였다.

허리를 꺾인것, 일이 떨어진것, 지지라진것.

손끝에서 금은화가 가볍게 떨리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들고있는 금은화가 이중으로 동강이 나보였다.

《그것도 심자는거요?》 어딘가 비웃는듯한 남편의 어조였다.

그래 남편은 금은화 핀 이 둔덕을 잊었던 말인가?

비바람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았던 금은화가 바퀴밑에서 짓밟힌것이 분했다.

우리 마음 우리 사랑이 담겨진 이 금은화가 이렇게 됐는데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단 말인가? 가랑가랑 뚫어오르던 눈물이 끝내 눈굽을 넘어서었다.

남순은 그만 얼굴을 싸쥐었다.

터진 설본은 무섭게 어깨를 떨게 했다.

《남순이》 남편이 당황하여 곁으로 다가왔다.

《그만하라구. 그까짓 꽃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여러서야 무슨 큰일을 하겠소.》

《...》

그럴수록 남순의 눈에서는 마냥 눈물이 쏟아지었다.

터지지 못한 분하고 섭섭한 마음이 한데 합쳐 열심히 눈물을 퍼올리는듯했다.

《남순이, 그만 그치라는데, 이제 다 보충할수 있소. 앞으로 시험사업만 완성하면 점차 이 서리밭은 없애야지 늘 끼구 애를 먹겠소? 대신 이쪽에서 봉창해야지.》

《?!》

그랬됐구나, 가슴이 뭉청 내려앉는듯했다. 피가 왈칵 물려오며 얼굴이 화끈했다.

서리밭같은건 땅으로도 생각지 않는단 말이지?

이제까지의 마음속 모대김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이르자 가슴이 그지없이 쓰라리었다.

남편의 부추김에 들썩했을 길남이의 모습이 커다랗게 확대되며 가슴을 땀다 미는것 같았다.

《대신한다구요?》

남순은 끝내 자신을 다잡지 못했다.

《그 무엇도 대신할수 없어요. 다 제몫은 있는 거예요. 저기 좋은땅뿐만아니라 여기 서리밭에

도.》

어딘가 반박하는 남순이의 웅골찬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것을 느낀 남편이 찬찬히 여겨보았다.

《도대체 뭘 말하자는거요?》 남편의 작은 눈매  
가 날카로워지였다.

격한 감정을 간신히 참는다는게 알리였다.

남순은 눈길을 피하며 재빨리 말했다.

《미안해요, ××농장에서 금옥이라는 농장원이  
보내온 편지를 미처 알리지 못했어요.》

《금옥이? 그 편지가 어디 있소?》

《리당비서동지한테요.》

남편은 바람이 일게 돌아섰다.

멀어 지는 남편의 발자국소리가 오래도록 남순  
이의 가슴을 울리였다.

어쩔수 없는 일, 한번은 터질 일이다.

그의 입으로 서리골땅을 없애야 한다는 소리까  
지 하는걸보니 더 끌고싶지 않았다.

물론 보잘것 없는 땅이다. 서리피해를 보고, 농  
사가 안되고. 그렇다고 버릴수 없는것 이 고향땅  
이 아닌가. 고향이기에 그것이 작은 흠일지라도  
더 가슴이 아픈것이다. 기름지고 잘되는곳에서만  
농사를 짓자고 하면 이 서리골은 버려야 할가?  
그럴수 없다. 그렇게는 할수 없다.

남순은 가슴이 달아오르는데로 삽자루를 힘있  
게 잡았다.

얼마후 남순은 37호에 올라탔다.

오늘밤을 새워서라도 이 패인 논판을 다 메꾸  
낼 결심이다.

못났다고 지청구를 받을수록 남순은 그 땅을  
그러안고 몸부림치고있었다.

남순은 지그시 변속을 넣었다.

《통통통!》

동음소리도 요란히 프락프르는 거침없이 달리  
였다.

앞창으로는 멀리 들판이 바라보이였다.

길가의 나무들이 휘휘 지나쳤다.

어찌나 몰아대는지 남순은 앉은채로 차천장에  
공중들이반기를 몇번씩 했다.

그래도 남순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차를 몰아  
했다.

마음이 끝나는 길목에서였다.

남순은 앓 소리를 지르며 급정거를 했다. 몸이  
확 앞으로 쏠리였다. 진땀이 바짝 났다.

길한복판에 남편이 우뚝 서있는것이다.

그자리에 뿌리가 내린듯 울려다보기만 하더니  
차앞으로 다가왔다.

남편은 아무말없이 부득부득 차안으로 올라왔  
다.

남순은 그의 얼굴을 보는것이 두려웠다.

무섭게 격노한 얼굴보다 고통스럽게 이그러진  
얼굴을 보는것은 사실 제일 피로운 일이다.

늘 번쩍거리는 두눈에 익숙했던 남순은 빛을  
잃은 남편의 눈을 보자 당황해지였다.

(그가 이제 뭐라고 할가?)

침묵이 흘렀다.

숨막힐듯한 정적, 차안은 진땀이 나는 긴장의

순간순간이 이어 지였다.

남순은 가슴이 파르르 떨리였다.

(그가 이제 물을게다. 편지를 왜 보이지 않았  
는가고 이제 이제...)

그러나 침묵은 퍼그나 오래 계속되였다.

남순은 그 긴장속에서 온 심신이 녹아내리는것  
같애 참을수 없었다. 더 견디기가 힘들었다. 썩  
썩 달리고싶었다.

그는 변속기에 손을 얹었다.

《남순이.》

별안간 남편의 커다란 손이 남순의 손을 꽉 잡  
았다. 숨이 딱 모두어지는듯했다.

남순은 남편의 눈을 보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

《난 당신의 시험자료를 보았소.》

《예?》 예상치 않은 그 말에 남순은 남편앞으로  
돌아앉았다.

번쩍거리는 기운대신 남편의 눈엔 그윽한 정이  
잔잔히 흐르고있었다.

《언젠가 내가 당신이 시험하는걸 보고 웃었  
지.》

자책어린듯한 목소리.

가슴이 몽클해오며 이상스레 가슴이 두근거리  
였다. (그럼 그게 가치가 있단 말인가?)

얼굴이 확 불어지며 호기심이 살아올랐다.

《그게 꽤 쓸만해요?》

《쓸만하구말구. 난 그 자료를 보고 내 연구사  
업에서 무엇을 놓치였는가를 알았소. 확실히 난  
중요한걸, 기본을 놓치였던것 같소. 그 작은 흠조  
차 없애지 못한 내가 대공을 날으려니 떨어질수  
밖에.》

남순이, 모든일은 결국 소소한것으로부터 시작  
되는것이겠지?

《?! ...》 남순의 눈가엔 핑 눈물이 어리였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던 남순이의 가슴에 남편의  
한마디한마디는 그대로 생명수였다.

《그런데 수많은 일어나는 분리현상들때문에...》

《그건 넘려마오. 원래 원천간 교잡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수 있는 대책을 동시에 세워  
야 하는거요. 그런 경우엔 중간계통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섞붙임을 하는 정밀보충실험단계가 필  
요하지. 내 머리속엔 이미 이런 소론문이 완성되  
여가고있소. <원천간 섞붙임에서 중간계통의 도  
입과 그 의의>》

(아!) 남순은 터지려는 환성을 저도 모르게 꼭  
삼켜버리였다.

자기의 연구사업이 가망성 있다는 희열에 앞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솟구쳐올랐기때문이다.

이렇게 남편의 머리가 트이기만 했더라면 쉽게  
해결될수 있었던걸 그렇게도 지지리 애를 태웠  
단말인가?

그러고보니 남편은 자기의 눈가림속에서 지난  
날의 영석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자기는 그런것도 모르고 혼자서 닭알장  
사마냥 공냥을 하고 또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었  
담.

섭섭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고개를 외로

튼 남순은 바깥만 내다보았다.  
《남순이》 곁에 앉은 남편이 따뜻한 목소리로 불렀다.  
《...》 남순은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남순이, 내 오늘 당장 시험포전을 서리골로 옮길 생각이요.》  
《예?!》 남순은 뜻밖에도 남편의 단호한 결심에 어지간히 놀래 몸을 돌리었다.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이상 우물쭈물할게 있소? 더구나 당신의 이 시험자료까지 있어 방도가 명백해지었는데.》  
《...》 남순의 가슴은 쿵쿵 울려났다.  
무슨 말이든 해야겠으나 왜 그런지 눈곱이 화끈해지며 말이 나오지 않았다.  
뿌옇게 흐려든 망막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얼른 거리었다. 역시 남편도 우리 화담골사람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치었다.  
《남순이, 내가 이미전에 이렇게 결심했다면 우리 종자는 벌써 서리골에 뿌리를 내렸겠지? 그걸

생각하면...》  
《아니 됐어요. 이제 됐어요.》  
남순은 서둘러 남편의 말을 자르며 속삭이였다.  
남편의 그 결심에 이제까지의 모든것을 용서하고 싶어 남순은 뇌고 또 뇌이였다.  
끝내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리었다.  
남편이 조심스레 눈물을 훔쳐주었다.  
《남순이, 그간 속 많이 썩었지?》  
《이젠 정말 우리의 소원이 풀리게 됐어요.》  
남순은 눈물 흐르는 얼굴을 들고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남순의 어깨를 꼭 그러안았다.  
남순은 꿈쩍하지 않았다. 감히 숨조차 나가지 않았다.  
해빛밝은 들길로 트랙토르가 달리였다. 한손들을 운전대에 얹은 그들은 나란히 앉아 차를 몰아 갔다.  
그들이 지나는 들길에서 금은화가 휘날휘날 춤을 추었다.

## 벼이삭에 깃든 이야기

백일호

풍년기쁨 실어 들이는 동쪽길우에서  
쳐너들 련결차에 벼단 섬기는데  
벼단에서 빠져나온 이삭 하나 들  
아쁠싸, 강물우에 풀렁풀렁

벼단을 받아썰다 말고 뛰쳐내려  
이삭을 건져올린 아바이  
쳐너들을 보고 화를 돋구네  
—불속에 떨어져도 건져와야지!

쳐너들아, 너희들은  
아바이를 탓할수도 있으리  
웃음지으며 할수 있는 말을  
저렇게 칼날을 세워 쏜다고

너희들도 보았겠지  
벼 한대 바람에 넘어질라쳐도  
저 아바이 새끼줄 다시 쳐주던것을  
그러나 그저 부지런한 일꾼씨라고만 했겠지

저 아바이 아름답게 벼 베어갈 때  
밀그루에 혹시 한이삭만 묻혀도  
들새를 날리며 목청을 돋구던것을  
그러나 그저 불같은 성미라고만 했겠지

아니란다 쳐너들아  
너희들은 모를수도 있지  
저렇게 왈각 화를 돋굴 때

더욱 살아나는 이마의 상처자국  
그속에 깃든 사연을

전화의 그날  
원췌의 소이탄에 불타던 벌에서  
마지막 벼단까지 안아내고도  
논배미에 널린 몇이삭이 마음에 걸려  
다시 불속으로 뛰어들어 입은 그 상처

불굴의 이 땅을  
수없이 파헤친 폭탄구덩이우에  
행복의 록음방초 다 피어난 오늘에도  
아바이의 얼굴에 그냥 새겨져있는  
증오의 저 상처  
그러나 알찬 이삭 하나로도 숨길수 있는  
저 상처

그래서 몰랐구나 쳐너들아  
파도높이 설레이는 벼바다에 묻혀  
증오의 저 흔적 그리도 깊은줄은  
흘러내린 한이삭의 그 귀중함을

오 그 한이삭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아바이의 그 마음에 받들려  
나라의 쌀독은 해마다 높아가고있구나  
그 어떤 세월의 불비에도 변함없이...  
그 어떤 우주의 조화에도 끄떡없이...

## 아들의 키

남래범

며칠전 일요일이었다.

막내아들녀석이 키를 재봐달라기에 나는 그 애를 책장모서리에 새겨놓은 눈금판앞에 세웠다. 그 눈금은 내가 첫아들을 키울 때 권척기를 얻어다가 새겨놓은것인데 학교나 진료소, 병원의 키 측정기구와 조금도 차이없이 아주 정확한것이였다. 다르다면 1미터 50계선에 붉은 연필로 굵다란 선을 그어놓은것뿐이다.

나는 발뒤굽치를 약간 쳐들사하는 아들애의 뒤다리를 가볍게 때리면서 삼각자를 머리우에 가져다 대었다.

순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1년전에 1미터39이던 아들애의 키가 16센치미터나 더 자라 어느새 1미터 50계선을 훨씬 넘어선것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이애도 다 자랐구나!) 하고 생각하며 나는 막내아들녀석한테 키가 얼마라는것을 대주었다.

아들은 기쁨에 넘쳐 《그럼 인젠 나도 어른이 됐나?》하고 묻는것이였다.

어른—이 물음에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하루종일 두고두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키가 1미터 50만 넘으면 어른이 된다고 아이들에게 말하였으며 또 나 자신도 그렇게 믿고있었다. 내가 《1미터 50》이라는 수자를 그렇듯 중시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였다.

미국놈들이 우리 공화국을 먹겠다고 전쟁의 불을 지르자 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남녀로소 할것없이 군대에 나갈것을 탄원해나섰다. 학생들도 중학교 2학년생으로부터 고종과 전문학교, 대학생들이 모두 떨쳐나섰다. 군사동원부는 매일 지원자들로 발을 들이밀 째이 없이 붐비고있었다.

이런 옥에서 나는 전쟁이 일어난지 한달 가까이 되여오던 7월 어느날 동무들과 함께 군사동원부에 찾아갔었다. 아직 군대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던 나는 그것때문에 가슴이 떨렸다.

그러나 동원부의 젊은 군관과 담화를 할 때 나는 나이를 두살을 더 불귀 열일곱살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속았는지, 속지 않았는지 그 젊은 군관은 그저 빙그레 웃으면서 몇가지 더 묻더니 저쪽에 가서 신체검사를 하라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어려운 고비를 용케 넘겼다는 안도감에 사로잡혀있었다.

하지만 신체검사에서 키가 1미터 5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 기준앞에서 걸리고말았다. 나이

는 속일수가 있었어도 키는 속일수가 없었다. 내가 것처럼 졸랐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무정하게도 신체검사표에 붉은 연필로 《불합격》이라고 써놓았다.

이때부터 나에게서는 《1미터 50》이라는 수자가 어쩔지 아이와 어른을 가르는 기준으로, 인민군대를 비롯하여 사회에 나갈수 있는 자격을 얻는 척도로 생각되였다.

그러기에 그후 군대에 입대한 나는 자기도 군대에 입대할수 있는가고 묻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키가 얼마인가고 물어보고 1미터 50에 이르지 못했으면 무조건 안된다고 갈라 말하곤하였다.

그 1미터 50계선을 열세살난 막내아들이 넘어섰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그러나 나는 막내아들녀석한테 《너도 이제는 어른이다.》하고 말할수는 없었다. 사실 사탕이나 과자같은것을 사와도 저혼자 독차지하여야 흐뭇해하는 막내아들, 아침 일찍 일어나 비자루 한번 쥐여보지 못한채 곱게 자란 아들을 어른이라고 내세울수는 없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1미터 50을 갓 넘어선 꼬마병사들은 얼마나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웠던가.

전투할 때엔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 서서 내달렸고 휴식할 때엔 또 지질줄 모르는 정력을 안고 병사들의 앞장에 서서 춤판에 뛰어들던 꼬마병사들, 소대와 중대, 대대의 연락임무를 맡아 수행하던 꼬마병사들은 포연탄우가 비발치는속을 불사신같이 누비면서 구분대의 지휘통신을 보장하였으니 그들의 슬기로운 모습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어린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연 꼬마병사들! 이들이 발휘한 영웅성의 높이... 그 높이가 어찌 키가 1미터 50만 넘어서면 저절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지금은 자라나는 애들의 키가 50년대나 60년도초보다 평균 10센치미터쯤 더 자란것 같다. 그러니 그 기준을 1미터 60에 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 그것도 아니다.

애당초 이런 외형적인 크기에 그런 기준을 놓은것자체가 잘못되였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용감하게 싸운 영웅전사들의 그 숭고한 정신세계의 높이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교양하는데 응당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의 명맥은 새세대들에 의하여 이어지며 조국의 앞날은 그들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우리들 대보다 지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원대한 포부와 높은 리상을 가지고있으며 주위에서 보고듣는것이 더 많아 지성정도도 더 높다. 어찌 그뿐이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에 대한 충실성과 효성이 지극하며 생활에서도 조직성, 규률성이 높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사회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하는것을 깨우쳐주며 생활에서는 곤난극복정신과 그 어떤 시련도 웃으면서 헤쳐나가는 힘을 키워주면 충분할것이다. 그러면 외형적으로뿐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 키가 1메터 50제선을 넘어섰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니 우리 부모들의 몫이 대단히 크다는것을 구태여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부모들은 모든 가능성과 조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녀들에 대한 계급교양에 힘써야 하며 그들에게 곤난극복의 정신을 키워주어야 하리라.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모두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야 한다.

무력무력 자라는 애들의 키에 학교, 사회, 가정 이 힘을 합쳐 더 풍부한 사상정신적기를 보태주자. 그리하여 1메터 50제선을 사상정신적으로 먼저 점령하게 하자.

이러한 강렬한 생각이 나로 하여금 《그럼 인젠 나도 어른이 됐나?》 하고 묻는 막내아들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늦게 깨달았으나 생활을 통해 절실하게 느낀 절리였다.

자식들의 커가는 키에 그저 만족을 느끼거나 별다른 생각이 없이 지내는 부모들이 있다면 나의 이 수필은 하나의 교훈으로 될것이다.

## 이삭은 말한다

량덕모

홍이로다 멋이로다  
메뚜기 뛰노는 보폭에 앉아  
농립모자 벗어들고 부채질하며  
시원히 바라보는 논벌

눈길 닿는 어느 배미 어느 이랑도  
봄여름 가꿔준  
정에 겨워 사랑에 겨워  
잠시조차 진정 못하는 금나락의 바다여

굽니는 물결우에 어려오는  
못잊을 나날들  
밤을 모르는 천리 물길공사장에  
찬서리 얼구는 새벽의 모판에  
앞을 다투어 들고나온 땀볼들  
그 불빛이 이 벌을 물들였는가

참으로 수고도 많았지  
분조장의 지령에 선동원의 호소에  
손발을 맞추어 드날리며  
사흘이나 당겨 기계모를 내고  
흐뭇이 안아보면 저녁노을  
그 황홀함이 그대로 내려앉았는가

올해같이 심술궂은 하늘날씨  
혼자야 이런 풍년 꿈조차 못꾸리  
제집의 터밭을 지나  
농장포전 푸른 이랑에 먼저 흘린  
그 후더운 땀방울들  
포기포기 황금으로 익었는가

묻지 말자 묻지 말자  
아니 물은들 어찌리  
어서 오라 벼수확기를 부르며  
지평선 끝까지 올려가는 설레임소리  
가꾼 내야 어찌 가려못들으랴

마치 사열대앞에서처럼  
만풍년의 들을 향해  
벌바람에 색이 바랜 농립모를 흔드니  
소리소리 모아 나에게 보고하는듯  
이삭은 이삭마다 말한다!

당의 뜻대로 농장포전 나의 포전에  
분조농사 나의 농사 꽃피워가는  
그 마음들 하나같이 티없어  
천만달알도 하나같이 여물었다고  
쭉정이 없이 그쫘하다고

# 남조선 진보적시문학에서의 조국통일지향의 예술적구현

한중모

오늘 남조선에서는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날을 따라 더욱 힘차게 벌어지는가운데 진보적문학인들속에서 민족문학,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있으며 인민대중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반

영한 민중문학이 뚜렷한 흐름을 이루고 발전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온갖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쟁취>의 구호밑에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습니다.》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진보적문학, 민중문학이 급격히 발전한것은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통일,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광범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작가들의 사상의식상태에서 전변이 일어난 사정과 관련되어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연구체득하기 위한 열의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대렬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진보적문학인들을 광범히 망라하고있는 《민족문학작가회의》는 1987년 9월에 발표한 창립선언에서 자유에 대한 제약의 철폐, 민중의 권리에 대한 주장, 조국통일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문학운동과 창작실천을 추진시켜나갔다.

삼민리념에 기초하여 창조발전되어나가는 남조선의 진보적문학, 민중문학은 남조선 근로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자주적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 파쇼독재의 포악성과 사회악을 폭로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과 함께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주요한 주체사상적과제로 내세우고있다.

조국통일에 대한 열렬한 념원과 지향의 예술적구현, 이것은 남조선의 진보적문학, 민중문학의 기본특징의 하나이다.

남조선의 진보적문학에서 조국통일주제의 취급은 물론 최근년간에 와서 처음으로 된것이 아니다.

1960년 4. 19인민봉기이후 순수문학론을 반대하는 참여문학론의 첨예한 논쟁과정에 형식주의적이며 자연주의적인 반동문학에 대립하여 자기모습을 보다 뚜렷이 나타내면서 장성한 남조선의 진보적인 사실주의문학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 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급속히 높아가는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들을 더욱 많이 내놓게 되었다.

남조선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인민봉기를 계기로 인민들의 민족적자각과 계급적각성이 촉진되고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

계으로 발전되었으며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계급, 계층을 망라한 대중적투쟁으로 심화발전된 현실에 토대하여 조국통일주제의 각종 문학작품들이 매우 활발히 창작되었으며 그내용도 더욱 심화되었다.

남조선의 진보적문학, 민중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들은 이른바 《분단문학》 작품들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남조선에서 한때 《분단문학》으로 불리운 작품들은 대체로 외세에 의한 분단의 비극의 본질, 현실의 진실을 외국하고 공화국북반부와 공산주의를 악랄하게 비방증상하며 북반부에서 이루어진 사회경제적변혁으로 생활적지반을 상실한 낡은 세력의 옛처지에 대한 허망한 동경을 감상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분단의 비극을 어쩔수 없는 숙명적인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반공》사상을 고취하고 허무주의를 전파하는것들이였다.

남조선의 진보적문학에서의 조국통일지향의 예술적구현, 조국통일주제작품들의 왕성한 창작은 이러한 반사실주의적이며 반동적인 문학과파의 대립투쟁속에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인한 불행과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상과 통일에 대한 념원과 의지를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창조적사색과 탐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최근년간에 남조선에서는 분단의 장벽을 막고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을 끝장내며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리라는 투철한 의지를 반영한 문학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으며 남조선의 진



보적문학, 민중문학에서 조국통일주제는 기본주제분야의 하나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진보적문학, 민중문학은 소설, 시, 희곡을 비롯한 여러 종류와 형태에 걸쳐 다양하게 발전하고있으며 조국통일주체도 여러 종류와 형태의 문학작품들에서 취급되고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년간에 창작된 서정시들을 기본으로 하여 남조선의 진보적시문학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과 념원이 예술적으로 구현되고있는 정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고찰하려고 한다.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최근년간의 남조선시문학은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인공적인 국토량단,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온 겨레가 통일된 조국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력사의 그날을 안아오려는 불같은 사상감정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노래하고있다.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남조선의 시작품들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업이고 사회력사발전의 필연성이며 민주주의적자유를 쟁취하며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반드시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있다.

시 《또 늦었구나 생각하면》은 그 누구도 감히 통일을 외면할수 없다고 하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해결하여야 할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며 민족사와 세계사의 전진과 관련하여 있음을 밝히고있다.

우리의 통일은 갈라진 시대의 모든걸  
헌신짝처럼 버리는곳에 있는데  
우리의 통일은 통일 이외의것은  
갖지 않는곳에 있는데

우리의 통일은 통일이란 두 글자가  
모든것에 우선하는 법인데  
우리의 통일은 통일 그외의것은  
모두가 가짜인데 우리의 통일은  
민족사의 전진이자 세계사의 전진인데

시는 이와 같이 남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통일문제해결이 가지는 선차적의의와 중요성을 시적으로 강조하면서 통일을 말할 사람은 분단의 아픔과 피로움을 겪고있는 사람 자신임을 밝히고 《사십년동안 우리의 썩은 내장을 힘껏 토해낼 때가 되었다》고 절절히 웨쳤으며 갈라진 아픔이 뼈속 마디마디, 살속 줄기마디 스며들어 통일이 아니면 개인도 없고 민족도 없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그리고 시는 통일문제를 민족적량심문제와 결

부시키고 통일은 《우리의 삶》, 《다시 태어나는 천지개벽》임을 밝히고 통일문제에 대하여 조선 사람의 량심이 대답하기전에 누구도 감히 함부로 통일을 말할수 없음을 모박아 언명하고있다.

우리의 단 하나 마지막 남은 희망은  
통일이다

첫련을 이렇게 펜 시 《통일의 노래》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만이 가장 참되고 값있는것이고 무엇보다도 절박한 과업이며 조선의 량심은 바로 조국통일을 위하여 일어나는데 있다는것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이룰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통일에 맞서는 모든건 거짓이다  
모든 값은 통일만이 새겨내나니  
한반도의 량심이여 들어보라  
분쟁으로 지새는 아픔은 누구의 설음인데  
분단으로 덕보는자 그 누구인가?  
부러지던 내 나라 함께 쓰러진  
선현의 눈물 아직도 시퍼런데

무엇을 주저하라  
늦출수도 머뭇댈수도 없는 길  
아무리 앞장서도 다함이 없는 길  
한국의 량심이여 일어나라  
원통한 반세기 녹슬은 그 사슬  
어영차 끊어내자

시는 통일이 그처럼 량심있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절박하고 중대한 문제로 되는것은 그속에 바로 《온 겨레 고루 사는 길》이 있고 《완결짓는 <한> 반도의 평화》가 있으며 《세계의 해방으로 직통하는... 모든 삶 모든 희망》이 매듭져있기때문임을 밝히고

오, 통일  
우렁찬 진군을 모으는 징소리따라  
통일 통일로 통일을 이루자

라는 격조높은 호소로 민족의 량심을 조국통일성업으로 부르고있다.

시 《만나는 소리》는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우리 민족이 통일된 강토에서 함께 살게 되는것이 자연스러운 리치이며 력사적필연성임을 특색있는 비유를 써서 시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이 시의 서정적주인공은 갈라진 땅과 땅, 북과 남으로 헤어진 겨레들이 합쳐지면 《무슨 소리가 날가》라고 물음을 제기하고 환희와 오열이 터지고 감격의 환호가 천지에 메아리칠 그날의 격동적인 광경을 그려보이고있다.

이밖에도 남조선의 진보적시문학에서는 과거 36년동안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야만적탄압과 노예적굴종을 당해온 우리 인민이 또다시 미제에 의하여 국토가 랑단된채 긴긴세월을 살아가는 비분을 토로하고 《단일한 언어／단일한 문자／단일한 국토／단일한 전통／단일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 온 겨레가 단 하나의 조선, 단 하나의 조국을 이룩하기 위한 통일성전에 일떠설것을 강렬하게 호소한 시《통일이여! 열리라》를 비롯한 많은 시들이 조국통일성취의 절박성과 중요성, 력사적필연성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둘이 되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몸  
둘이어서는 한시도 아니 될  
하나의 집  
둘로 갈라질수 없고  
달라질수 없는 하나의 피

아, 우리 민족은 하나!  
산맥도 하나  
지맥도 하나  
혈맥도 하나  
가자 하나의 민족으로  
우리 민족은 영원히 하나!

시 《하나》는 이와 같이 노래하면서 아득한 태고적부터 같은 지맥으로 이어진 한강토에서 한 조상의 피줄을 이어받고 대대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절대로 둘로 갈라져있을수 없으며 영원히 하나로 있어야 한다는것을 절절히 토로하고있다.

시 《남누리, 북누리 아름다운 남북누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어져 몇백, 몇천번 끊어지지 않는 조선반도의 자연과 기후, 그 나날에 한 형제로 태어나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들의 삶에 시적계기를 두고 민족통일의 필연성을 노래하면서 남누리, 북누리가 한누리가 되는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굳센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이렇게 한반도에는 사시사철이 이어져 몇백, 몇천이 끊어지지 않는 하루하루이니 그 나날에 비록 온 천지를 가지진 못해도 우리들 태어나면서 형제로 태어난 우리들이 나라에서 남누리 북누리 아름다운 남북누리가 한누리될 때까지 살박에 없다 그러나 아직 청산에 사월에 죽은 냇이 묻히지 않았고 오월에 죽은 냇은 사람마다 떠돌아 일년 열두달 죽음의 사설이 끝나지 않았으니 이제는 남누리에 온몸을 주고 흙과 풀뿌리를 끌어안은 국토에서 우리들은 어우러지면서도 황토빛을 뿜으며어우러져 춘하추동 향그러운 남누리 북누리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시 《종다래끼》는 생활의 구체적인 계기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는 하나이어야 한다는 사상을 시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조국통일에 대한 념원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아, 정녕코  
할수만 있다면  
우리 나라는 하나여라 하나여라  
하나여라

이 시에서 싸리대로 엮은 종다래끼에 담은 고운 씨앗은 바로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 깃든 통일의 씨앗이며 이남의 물고기맛과 이북의 산나물 맛이 한가지라는것은 우리 인민이 한강토에서 대대로 살아온 단일민족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한 시적표현이다.

오매에도 그리는 통일에 대한 갈망,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통일의 귀중함에 대한 절규는 시《산길》에서도 절절하게 울리고있다.

북을 향하여 해가 저물도록 산길을 걸어가는 서정적주인공의 가슴에 서린 하나의 념원, 그것은 오직 통일된 조국에서 사는것이다》 서정적주인공은 자기의 뜨거운 심정을 이렇게 토로한다.

아니됩니다  
아니됩니다  
내 아무리 이대로 복될지라도  
몽구리 중놈으로 복될지라도  
그걸로는 아니됩니다  
외진데 들꽃 바라보며 물 보며  
하루내내 강원도 산길 걸으며 맘먹었어  
남북통일 안되면 아무것도 뜻없습니다  
그리운 그리운 우리 민주주의도 뜻없습니다  
어느 뜻도 뜻이라면 통일이여요  
저문 산골 황소 앞세워 구시렁 구시렁 돌아가는이  
오늘밤 패대길 깊은 잠 꿈에서나마  
우리네 온전한 나라 그 나라에 살기 바랍니다

서정적주인공의 온 마음을 사로잡고있는것은 조국의 통일이다. 파쑈광풍이 휘몰아치고 인간의 자주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중요한 과업이지만 민주주의도 남북통일을 이룩할 때에만 뜻있는것으로 될수 있다는것, 조국통일을 떠난 민주주의란 뜻없는것이라는것, 바로 이것이 깊은 잠 꿈속에서도 그리는 통일된 나라, 온전한 나라에서 살기를 피타게 바라는 서정적주인공의 일념이다. 그러기에 서정적 주인공은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이 나라를 두동강내여 영원히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갈라진 조국에서 이대로 먹고 잘수 없으며 《우리네 살다가 갈곳 두동강

똑딱 아니예요》라고 웨치면서 《남북통일 되는 날 래일입니다》라고 통일실현에 대한 확신과 랑만을 표시하고있다.

이 시에서 《길》은 북으로 가는 길, 통일을 지향하여 가는 길, 통일을 이룩한 《온전한 나라》에 이르는 길로서 깊은 시적의미를 가지고있다.

통일지향에로의 길이 가지는 이러한 시적의미는 시 《길》에서도 깊이있게 표현되고있다.

서정적주인공에게는 부랴부랴 잠들지도 못하고 힘이 솟아넘쳐 가야 할 길이 있으니 그 작품에는 《하나인 나라》가 있는것이다.

나는 가야 한다  
나는 가야 한다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말아라  
저 끝에서 길이 나라가 된다  
그 나라에 가야 한다  
한평생의 추가령지구해  
그 험한 길 오가는 겨레속에  
내가 살아있다  
남북삼천리 모든 길에  
내가 살아있다  
나는 가야 한다  
기필코 하나인 나라에  
이르는 길이 있다

서정적주인공, 《나》의 가는 길은 혼자의 길이 아니고 《겨레속에》 함께 가는 길, 《남북삼천리 모든 길에》 잇닿아있는 길, 북과 남의 전체 인민이 하나로 통일된 조국을 향하여 가는 길인 것이다.

이처럼 서정적주인공이 걷는 길에 대한 시적형상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온 겨레의 도도한 대행진이 시적으로 일반화되어있다.

하나인 나라, 통일된 조국에서 살기를 절절히 바라는 남녘겨레들의 뜨거운 심정은 대를 이어서라도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하며 후대들은 통일된 조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최근년간에 창작발표된 조국통일주제의 남조선 시작품들은 국토량단과 민족분렬로 인한 겨레들의 불행과 고통을 그려보이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민족지상의 과업이고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며 역사적필연성이라는것을 강조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온 민족의 단합된 함으로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심오하게 밝히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그리고 무력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통일하는것은 조국통일의 가장 옳바른 길이다.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을뿐아니라 자수성의 시대인

우리 시대의 흐름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에도 부합되는것이다.

시 《해방을 우리 손으로》의 서정적주인공은 해방을 맞이하여 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삼천리강토에 기발이 구름처럼 휘날렸으나 외세와 그 앞잡이에 의하여 나라가 둘로 갈라져 《살기는 살아도／사는것이 아닌 삶》 끌어왔고 《억압과 가난

의 험한 날들을／허수아비같은 세월에 담아》《구금과 학살과 식민의 슬픈 역사를／멍든 가슴에 새기며》 살아온 분단을 쓰라리고 아픈 심정으로 돌이켜보며 우리 손으로 기어코 해방을 이룩할데 대한 결의를 굳게 가다듬는다.

시에서는 남북형제들, 온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인 미제와 그 앞잡이인 군사파쑈도당들을 몰아내고 그 통치지반을 짓부시며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새 통일조국을 세울 승리의 날을 기약하면서

이번만은 우리 손으로  
분단을 부시고  
백두에서 하나까지  
7천만 해방의 위대한 날을  
기어코 우리 손으로 이루어내리라

이렇게 격조높이 웨치고있다.

남조선의 진보적시작품들은 갈라진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나라를 두동강내어 겨레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미제를 몰아낼데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시 《고개들어 조국의 하늘아래》는 《우방》이요, 《유엔군》이요, 《보호》요, 《협력》이요 하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남조선을 강점하여 식민지로 만들고 분단을 지속시키고있는 장본인이 《이방인의 군대》 즉 미제침략군임을 까밝히고 외래침략자들이 산과 들을 밟아대고 한쪽의 풀이라도 굏고있는 한《나는 아니다 고개들어 조국의 하늘아래 우리러 몇몇한 인간의 얼굴이 아니다》라고 민족적울분을 토하면서

벗이어 너와 나 치욕으로 살지 말자  
식민지 종속국 배부른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주린 창자 자유로 채우며  
직립보행 독립의 나라로 일어서자

라고 격조높이 호소하고있다. 시의 이러한 격동적인 웨침은 식민지강점자로서의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예리하게 폭로규탄하고 민족적존엄과 자주의를 지니고 외래침략자들을 몰아냄으로써만 나라의 완전독립과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외래침략자들이 물러가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갈라진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사상은 가사 《하나의 조국》에서도 높은 정론성과 호소성을 가지고 울리고있다.

말도 피도 같은 겨레 우리 몰래 땅이 갈려  
마음깊이 상처를 지닌 5천만의 형제자매  
백록담과 천지물에 사무친 그리움 맴도는데  
소원은 산맥을 넘어도 오고갈길이 막혔다

가슴아픈 《휴전선》에 철조망을 같이 열고  
그자리에 꽃을 심으면 꼭게꼭게 번지리라  
삼십년도 더 갔는데 방해할 그대로 둘러인가  
자주와 민족대단결로 어서 남북을 합치자  
민족은 하나 조국도 하나 통일이 독립이요  
통일만이 해방이다

가사에서는 한피줄을 이어왔고 하나의 언어를 가진 단일민족인 우리 겨레가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휴전선》으로 하여 서로 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것을 통분에 넘쳐 노래하면서 민족대단결로 통일을 방해하는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자주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할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시 《민중과 하나되는 그날까지》도

이제 삼천리천지는  
외세의 반역과 민족의 맞싸움  
분렬주의의 배신과 민중의 맞싸움으로  
가파르게 맞섰나니  
여기서

만약 한발자국이라도 물러서면 우린 모두 죽는다  
그러나 그러나 용맹하게 나아가 깨뜨리면  
천지개벽 곧 통일이라  
그렇다 일편단심 두 글자  
통일이란 두 글자 부여안고  
형제여  
젓먹이적 밀힘마저 다하여  
이밤은 네 힘으로 헤치자  
마지막 눈빛에 흠이 들어온듯  
...

라고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외세와 민족, 분렬주의와 민중의 날카로운 맞섬, 판가리싸움에서 모든것을 다 바쳐 용맹필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여야 한다는 불굴의 의지와 확고한 결의를 시적으로 부각시키고있다.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남조선의 진보적시작품들가운데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념원을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동경과

결부하여 노래한것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시 《만남》은 전쟁시기에 남으로 나간 아우가 40년이 지나 공화국북반부의 고향에 돌아와 누이를 만난 감격, 너무나도 변한 고향모습에 대한 그의 경탄을 통하여 조국통일이 이루어지고 헤어졌던 가족과 친척, 이웃이 서로 만나고 모이게 될 기쁨을 북반부의 사회주의농촌의 행복한 생활과 결부하여 랑만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전쟁때 집은 타버리고 느릅나무와 우물만 남았던곳에 그때의 느릅나무가 아름드리로 자라 하늘로 뻗고 우유빛 아빠트가 솟아나고 남자들같이 큰 손을 한 누님이 치마자락 걸어쥐고 일터로 가며 백양나무들이 일렬종대로 늘어서서 무수한 기발처럼 손을 흔드는 광경을 남에서 40년을 꿈같이 흘러보낸 아우의 시점을 통하여 그의 지난 날의 허무한 생활과 대조적으로 펼쳐보임으로써 통일이 이룩된 다음 이 땅우에 아름다운 생활이 어떻게 꽃피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시 《백두산 가는 길》은 남에 나갔던 아들이 두만강변 고향에 돌아와 어머니를 업고 기뻐서 춤을 추며 백두산으로 가는 감격적인 모습에 대한 시적묘사를 통하여 공화국북반부에 펼쳐진 《환한 세상》에 가슴벅차오름을 금치 못해하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과 념원을 백두산으로 쏠리는 온 겨레의 뜨거운 마음, 백두산에 가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우람찬 행군길과 결부하여 감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휘영청 트인 눈부신 들에  
사슴 노루 메돼지  
아이들처럼 뛰노는데  
늙으신 어머니 얼굴에도  
어느새 꽃같은 웃음이 피어  
환한 세상이 숨이 잡니다

이것은 늙은 어머니를 업고 백두산으로 가는 아들의 눈을 통해서 본 북반부의 휘황한 현실에 대한 시적묘사이다. 그리고 이것은 조국통일의 그날 우리 인민이 다 같이 누려야 할 행복한 생활모습이기도 하다. 눈부신 들에 짐승들도 아이들처럼 흥에 겨워 뛰놀고 백살난 로인도 얼굴에 꽃같은 웃음을 피우고 너를너를 춤을 추며 풀한 줌, 물한모금, 모래 한줌도 사람들과 함께 반겨하는 《환한 세상》, 이는 정녕 백두산의 《너무나 크고 넓은 그림자》앞에 펼쳐진 지상락원인것이다.

그러기에 시에서는 아들에게 업혀 백두산으로 가는 어머니의 뜨겁고도 절절한 심정에 대하여

애야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이 산을 터삼아 밭갈고 씨뿌리며  
백년천년 줄줄이 살아보자

라고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고향에 돌아와  
어머니를 업고  
백두산 가는 길은  
다시 태어나는 길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의 아침이니  
드높은 우리의 산 우러러  
어머니도 아들도  
눈물 코물 뒤범벅이 되어  
춤을 추지요  
넋놓고 춤을 추지요

라고 결속짓고있다.

시에서 백두산은 《아득히 솟아오른 그리움의 산》, 《너무나 크고 넓은 그림자》를 지닌 산, 《름름히 솟은 조선의 산》, 《드높은 우리의 산》으로 높이 우러러 칭송되고있으며 어머니를 업은 아들과 함께 만들이도 갑순이도 개마고원, 삼지연벌 넘쳐나게 기발 지켜든 형제들이, 노동자와 농민, 수많은 학생들이 막혔던 삼천리를 가로질러 백두산을 찾아오고있는 장엄한 모습을 격동적인 시적 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을 벌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실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어 숭고한 뜻을 키우신 고귀한 혁명사적이 어리어있는 혁명의 성산-백두산, 그 줄기가 뻗어내려 삼천리를 하나의 강토로 되게 한 조종의 산-백두산.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백두령봉에서 개척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져나가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그러기에 시에서 고향을 찾은 아들의 마음, 아들을 다시 만난 어머니의 마음은 북과 남의 온 겨레의 마음과 하나로 어울리어 백두산을 높이높이 우러르며 그들의 발길은 전민족적인 대행군에 합류되어 백두산으로 향해가는것이다.

백두산으로 가는길, 이것이 바로 북남이 하나되는 통일의 아침을 맞이하는 길이라는 여기에

이 시의 알맹이를 이루는 주체사상이 있다.

시 《백두산》은 백두산에 심오하고 거대한 형상적의미를 부여하고 백두산에 가는 길이 곧 통일의 길임을 노래한 점에서 시 《백두산 가는 길》과 공통성을 가진다.

하지만 시 《백두산 가는 길》이 백두산으로 가는 온 겨레의 도도한 흐름을 밝은 정서적색감을 가지고 랑만적으로 노래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진 휘황찬란한 그날을 감동적인 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시 《백두산》은 백두산에 가려는 서정적주인공의 뜨거운 마음을 그의 길을 가로막고 못가게 하는 반동세력과 침예한 대립속에서 부각시키면서 원수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기어이 백두산에 가리라는 드팀없는 결심과 각오를 예술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시에서는 백두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적묘사를 주지 않았으며 백두산으로 가는 서정적주인공의 로정에 대해서도 전개하여 보여주지 않고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함축된 간결한 시적표현속에는 심오하고 거대한 사상적의미가 담겨져있다.

내 손으로 이 깊은 밤을 으스스리게 찢고  
저 백두산에 내가 가리라 저 백두산이  
나를 부르니 남과 북의 말뚝 뽑은 꽃피는 길을  
손벽치며 다리걸며 내가 가리라

서정적주인공이 백두산에 가는 길은 걸음마다 걸음마다 방해책동에 부닥치지만 그는 결코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백두산으로 가려는 길을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서정적주인공의 마음속에 백두산의 부름따라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이 깊이 뿌리내리고있으며 《물이란 물은 다 내 물고 산이란 산은 다 내 산》이며 《흙이란 흙은 다 내 흙이고 풀이란 풀은 다 내 풀이라는 민족적자각, 이 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의식이 확고히 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손으로 칼날의 숲을 불놓아버리고 자기 발로 남과 북의 말뚝뽑은 꽃피는 길을 걸어 기어이 백두산에 가리라고 소리높이 웨치는것이다.

저 백두산에 내가 가리라 저 백두산에  
못가게 하네 저 백두산에 내 어찌 못가리  
내 손으로 이 칼날의 숲을 불놓아 태우고  
살아서 저 백두산에 내가 가리라

시의 이 마지막 편은 통일을 방해하고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원수들의 방해책동과 파썸적폭압을

자기 힘으로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 이룩하리라는 서정적주인공의 굳은 신념과 드팀없는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국통일주체의 남조선시작품들은 민중시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바와 같이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내용을 담고있을뿐아니라 민족적이며 인민적인 형식을 갖추고있는것으로 하여 형식주의적인 순수시, 퇴폐적인 모더니즘시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며 첨예하게 대립된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시작품들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사활적의의를 가지는 조국통일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취급하면서 그것을 인민적인 언어로 형상하려는 시인들의 탐구적노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에서 페로 든 작품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남조선의 진보적시작품들은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생활적인 언어, 우리의 고유어를 적극 살려쓰으로써 시의 인민성과 민족적특성을 보장하고있다. 이것은 영어를 비롯한 외래어들과 난잡한 한자어의 람용, 문법적규범에 어긋나는 피이한 단어결합 등으로 무의미하고 허황한 언어유희를

일삼는 모더니즘시들과 판이한 대조를 이룬다.

오늘 남조선의 진보적시인들, 민중시인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창작되고있는 조국통일주체의 시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을 높여주고 민족자주의식을 키워주며 그들을 반미구국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큰 작용을 하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남조선시작품들이 다 사상예술적으로 원숙한 경지에 이르고있는것은 아니다.

조국통일주체의 남조선의 시문학앞에는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를 예술적으로 밝히는것을 비롯하여 내용적면에서 더 깊이 파고들 여지가 적지 않으며 시어를 사용하는데서도 필요없이 비속한 발들과 조잡한 표현들을 쓰는 작품들이 없지 않다.

앞으로 남조선시문학에서는 인민들속에서 통일기운이 더욱 높아가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이 확대강화되는 현실에 토대하여 조국통일주체의 진보적내용을 보다 심화하고 형식을 세련시키면서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 아들딸들이 돌아온다

서장선

아들딸들이 돌아온다  
그리운 어머니품을 찾아  
떠나갔던 형제들이 모여든다

그 몇번째이나  
환희의 부두에 닻을 내리는  
《만경봉》호의 배고동소리  
어느 하루도 그치지지 않누나  
역두에서 비행장에서  
서로 얼싸안는 겨레들의 상봉은

아들딸들이 돌아온다  
그리운 어머니품을 찾아  
떠나갔던 식구들이 모여든다

오랑캐령넘어 간도땅으로  
두만강 건너건너 씨비리로  
눈물속에 헤어져 그 얼마  
산설고 물설은 현해탄 멀기넘어  
기약없이 떠나간  
아빠 엄마 누이들 오랍동생들

지금은 돌아들오누나  
소시적에 떠난이들 자손들을 거느리고  
이국땅에 숨진이들 혼이라도 묻히고저

아, 거치른 이역의 하늘밑으로  
짓궂긴 민족의 피와 살인양  
살길찾아 정처없이 흩어질적에

가지 말라 가지 마  
말 한마디 못해준  
그 땅이 아니다  
매맞아 울어도 피흘리며 쓰러져도  
하소할길 없던 고아의 설음은  
이제는 영영 지나간 옛말

아버이가 계시여  
아버이가 계시여  
안아주는 품으로 사회주의조국으로

아, 아들딸들이 돌아온다  
그리운 어머니품을 찾아  
떠나갔던 형제들이 모여든다!

## 피지 못한 꽃

김선

광주인민봉기의 나날  
피의 항전의 나날에  
주인없는 책상우에  
흰꽃송이 놓여있었네

못다 피고 처버린  
어린 녀을 달래는가  
배움의 창가로 흘러드는  
5월의 봄바람에  
흰꽃잎이 하늘하늘 날리었네

그 누가 가져다 놓았는가  
항쟁의 광장에서 쓰러져  
다시 피어나지 못한  
열네살 어린 동무의 책상우에  
희고 흰 꽃송이를

아, 출석부를 퍼놓고  
아침이면 누구나 목메어 불러본다  
복수의 대명사처럼 선서처럼  
그의 이름을 불러본다  
-박창권! 박창권!

피의 광풍이 광주를 휩쓸던 그날  
항쟁의 거리에 달려나간 소년  
수혈할 피가 없어 의로운 형님들이  
총상에 숨겨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피도 뽑아달라 건어올린 애어린 그 팔도  
파쑈의 아성을 들부시고있었다

만류하는 형님 누나들앞에  
당돌히 웨치던 그 목소리  
-나도 광주의 아들이예요!

두번 세번 팔을 걷는  
소년도 광주의 항쟁투사였다  
혼미해지는 정신을 가다듬고  
항쟁의 거리에 뛰어나가던 그 어린모습이  
가슴가슴에 불을 지퍼주었더라

아, 야수들의 총탄에 쓰러지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돌  
오늘도 수천의 광주소년들이  
가슴깊이 분노의 화약처럼 받아안는다

깨끗한 어린 꿈이  
갈망했던 그 자유  
천진한 그 어린 녀이  
불러 부르며 피를 바친 그 민주  
기어이 찾아야 할 통일을  
기어이 안아올 맹세를 새기며

아, 피지도 못하고  
쓰러진 어린 꽃망울  
기어이 다시 피울 그 신념안고  
광주의 소년들은 오늘도 부른다  
남녘의 분노한 대지가 봄을 부른다  
그 꽃 그 향기 피워줄  
통일의 봄을!

## 잘 가라, 통일의 열망으로 들끓던 해여!

리광선

하루라도 더 있다갔으면  
얼마나 더 좋으랴  
정깊은 벗과 헤어지듯  
아쉬운 마음 달랠길 없구나

그저 평범한 해였으면

보내는 마음  
이리도 설레이진 않으리

그저 흘러간 해였으면

바라는 마음  
이리도 따라서진 않으리

잊지 못해라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자꾸만 눈앞에 얼른거리는  
범민족대회에 왔던 정다운 모습들  
통일축구와 통일음악회의 나날들이여

통일열망이 하늘끝에 닿은  
이 땅에서  
이게 얼마만이냐고  
이게 몇해만이냐고  
서로 얼싸안고 감격에 목메이며  
가슴들을 터치던 그 마음이어

친형제이면 이리도 뜨겁고  
부자간이면 이리도 목메이라  
백두에서 관문점에서  
지나는 거리와 마을들에서  
그렇듯 뜨겁게 굽이치던  
통일열원이여  
웨치며 흔들던 손과 손들이여

설레는 그 마음  
내닫는 그 마음  
그 마음 받아안고  
통일 거리 건설자들은 이른아침부터  
더 분주히 벽체들을 올리고  
아이들은 통일의 노래높이 더 일찍 학교로  
갔더라  
건설장의 기중기들은 더 힘차게 긴팔을 내젓고  
평양역을 벗어난 열차들은  
통일의 마음 안고 역과 역들을 지나갔더라

공장은 공장마다  
농장은 농장마다  
통일의 목소리를 높여  
쇠물을 뽑고 강판을 밀어내고  
푸른 벌을 가꾸었더라

사는곳은 달라도  
한민족 한피줄  
그야 어디 가랴  
한마음한뜻  
그리움이야 어디 가랴

아, 그 마음과 마음들이  
불같이 타번졌거니  
그 누가 통일을 가져다주랴  
그 누가 통일을 이룩해주랴  
우리가 힘합쳐 통일을 찾자  
그 높은 민족분단의 장벽을 넘어  
뛰고 달린 해여

그 노래 그 웨침  
세계가 들었더라  
인류가 보았더라  
그가 미국에 있건 남미주에 있건  
서독에 있건 일본에 있건  
량심의 녀이 어리던 그 노래, 그 웨침

잘가라, 통일의 새 장을 기록한 해여  
사람들의 생각도 마음도  
하나로 이어져  
통일의 한뫼으로 줄기차게 흘러간  
승리의 1990년이여